현대불교

제 814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12월 15일 수요일(음력 11월 18일 · 불기 2554년 · 주간)







“진실로 대하면 절로 포교돼”

제1호 명예국제포교사 브라이언 베리

“국제포교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식을 전달하고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몸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 제1호 명예국제포교사로 선정된 브라이언 베리(66, Brian A. Barry)는 1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제포교사회 품수식에서 자격증을 수여했다.

브라이언은 미국 코네티커트 대학에서 1968년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1967년 전북 부안 변산반도에서 평화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 매료돼 졸업 후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후 40여 년간 탱화를 비롯한 불교미술 제작과 번역을 바탕으로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암 투병 중인 브라이언 베리는 자격증을 받은 것에 개의치 않고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특별한 수행이 있지 않고서는 내 병과 고통을 남이야기 처럼 하기란 쉽지 않아보였다.

브라이언은 “저에게 포교이자 수행은 탱화를 그리는 것이니까 계속 하고요. 또 번역활동도 그대로 하고요. 저는 이판사판에서 사판이에요(웃음). 참선을 많이 못하고, 수행이라고 해봐야 탱화 그리는 것이 다거든요. 수행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모두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투병도 그냥 병 수행 한다고 생각해요. 어디 안 아픈 사람 있어요. 별것도 아니에요”라며 거창한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브라이언 베리와 학인 스님 4명을 포함해 30명의 국제포교사가 품수를 받았다.

글=이상언 · 이나은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템플스테이 예산 대폭 삭감…조계종 강경 대응

“4대강 사업 반대 종교편향 용납 않겠다”

정부지원 템플스테이 예산이 185억원에서 109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해 조계종은 졸속적 · 폭력적이라며 정부 지원 예산 전면 거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 여당 관계자의 사찰 출입 금지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MB정부 출범 이후 종교편향을 원인으로 계속돼 온 조계종과 정부의 갈등이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을 계기로 더욱 악화되게 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국회 예산안 통과 직후인 12월 8일에 이어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긴급 종무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회의는 강경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가운데, 조계종은 정부 · 여당과의 공식적인 접촉을 모두 끊고, 정부 · 여당 관계자의 총무원 청사 접근도 막기로 결의했다.

특히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의 교역직 스님을 비롯해 차 · 팀장이 참여한 9일 긴급 확대종무회의에서는 정부의 템플스테이사업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조계종 민족문화수호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총무부장 영담 스님을 위촉했다.

조계종은 민족문화수호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전국 본사주지회의와 템플스테이사찰주지회의, 원로회의 등을 잇따라 개최해 종단의 강경한 입장을 적극적 ·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같은 날, 조계종은 ‘졸속적이고 폭력적인 국가예산안 통과를 규탄하며’ 제하의 성명서에서 한나라당의 국회 예산안 단독 통과를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화쟁위원회’와 ‘4대강사업국민적논의위원회’를 구성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해 왔다”면서 “4대강사업에 대한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채 새해 예산안이 처리돼 불교계의 충정과 국민의 우려를 무참히 짓밟혀졌다”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이 불교계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 ‘템플스테이’ 예산을 종교편향적 입장을 갖고 삭감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계종은 성명서에서 ▷정부지원 예산 전면 거부 ▷정부 · 여당 관계자 사찰출입 거부 ▷4대강 사업 반대 ▷전통사찰법 전면 폐지 ▷자연공원내 사찰 경내지 · 사찰림 해제를 촉구했다.

조계종의 강경한 분위기가 전해지자 9일 오전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 정병국 · 조윤선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조창희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았지만 예방은 성사되지 못했다.

견지동 일대에서는 이번 템플스테이 예산안 파문과 관련해 국비 지원에 의존하는 조계종의 체질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정부가 불교문화 관련 지원에 있어 민원 해소 차원이 아닌 정책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불교계-정부간 갈등이 해소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조동섭 기자

“장로 대통령이 민족문화 말살”

조계종 중앙종회 ‘정부의 종교차별 종식 및 종교평화 확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주경)는 ‘한나라당과 현 정부는 끝났다’ 제하의 성명서에서 “한나라당은 날치기 예산통과로 국민을 우롱하고 불교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더 이상 한나라당과 현 정부에 대해 어떠한 신뢰와 기대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종교차별종식 특위는 ▷전국 사찰에 정부 비판 현수막 게시 ▷선거등에서 여당 · 정부지지 철회 ▷불교행사시 여당 · 정부 인사 출입금지 등을 실천키로 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환경연대 등 12개 불교단체가 참여하는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 · 여당의 날치기 예산 통과를 비판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앞세워 생명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현 정권과 거대 여당을 향해 강력히 맞서고, 온 국민의 힘으로 파사현정의 죽비를 내리칠 때까지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종책모임 보림회(회장 영배), 화엄회(회장 성직), 법화회(회장 정념)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비판했다.

보림회는 9일 ‘장로 대통령은 민족문화를 말살해도 되나’ 제하의 성명서에서 “졸속적이고 폭력적인 국가예산안 통과를 규탄한 조계종 총무원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화엄 · 법화회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MB정부 · 한나라당과 소통을 않겠다”고 선언했다.

불교환경연대 지도위원 법응 스님은 “조계종은 그동안 정권에 대한 그릇된 정책과 식견으로 스스로 화를 자초해왔다”며 “종정 예하의 교시 등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불교도 서명운동을 벌이자”고 촉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무소속 의원모임도 “조계종단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정부 · 여당의 비민주적인 폭거에 매섭고 강단진 모습으로 대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조동섭 기자



정찬주의 행복한 禪여행 ⑥

법이 살아야 불교가 산다

밀인사 2

불교사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 관계의 효시는 부처님과 10대 제자들이리라. 사리불이나 목련, 가섭존자 등은 스승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의 눈을 떠 아라한이 됐던 것이다. 그러나 인도불교는 부처님 열반 뒤, 또 다른 스승과 제자 관계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쇠퇴하고 만다. 무불시대(無佛時代)에 보살의 출현은 있었으나 수행보다는 논쟁만 일삼는 사변(思辨)의 승가로 변해갔고 결국 대중에게 외면당했던 것이다.

달마가 중국으로 건너와 중국불교를 크게 변화시킨 것 중에 하나는 수행과 법으로 맺어진 스승과 제자 관계의 복원이 아니었을까. 초조가 되어 사제(師弟) 간에 활발발한 법으로 이어지는 법맥은 당송시대까지 흘러가 중국선종을 꽃피우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선종도 명청시대를 거치면서 사제 관계가 세속의 장자 상속처럼 형식적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데 한국불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에는 승속을 불문하고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다. 심혼(心魂)에 불을 밝혀줄 선지식의 교화가 세상에 퍼지지 못하고 문도의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기 때문이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인도불교의 쇠락이 보여주었던 역사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 미래를 걱정하면서 수행과 법을 기둥으로 삼지 않고 허장성세나 방편에만 치우친다면 세계화는커녕 불교를 고사케 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될 터. 안국선원 순례자 일행이 들어선 밀인사의 1200년 역사와 흥망성쇠도 바로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19면에 계속

법보시 (국민은행) 023-25-0005-381 예금주:현대불교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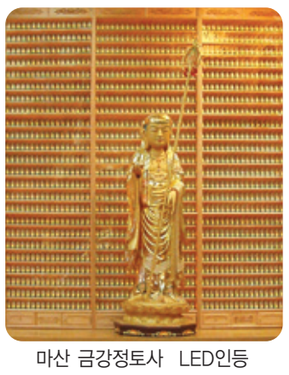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조계종 UN에 대사 파견한다

국제교류위 위촉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 언급

조계종 총무원 원장 자승 스님이 UN-NGO 등록을 추진하는 방안을 언급해 성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는 신규 국제교류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12월 7일 총무원 접견실에서 가졌다.

이 날 제4기 국제교류위원회에 진월 스님, 무심 스님, 혜민 스님, 이치란 위원이 새롭게 위촉됐다.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포교부장 계성 스님은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진월 스님은 부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상임이사인 진월 스님에게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UN에 등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를 해외 교구서 담당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의 발언은 위촉장 수여 후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진월 스님이 "국제 교류는 우리가 스스로 역할을 찾아서 실천해야 한다"는 제언에 따른 답변이었다.

이치란 위원도 "조계종에서 한 때 국제국 설치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조계종이 다른 종단에 비해 국제부가 약한 것 같다. 앞으로 국제 교류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된 진월 스님(오른쪽)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

UN이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UN-NGO에 등록되면 UN-NGO 협의기구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역할을 넓힐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불교가 UN 본부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활동하고 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생태·환경, 불교적 대안 제시

조계종, 내년 1월 불교사회연구소 설립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생명·생태·환경·통일 등 사회문제를 다룰 연구소를 2011년 1월 경 설립키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1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설립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설립추진위원은 14명으로 총무부장 영담 스님, 기획실장 원담 스님, 재무부장 성월 스님, 사회부장 혜경 스님,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정호 스님, 총무원장 종책특보 태연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주요 소임자와 남양주 봉선사 주지 인묵 스님,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대오 스님,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주경 스님, 사패산 기금위원회 초격 스님, 여주 신륵사 주지 세영 스님,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지관 스님, 손안식 중앙신도회 부회장 등이다.

연구소 설립추진위원장은 원담·태연 스님이 공동으로 맡는다. 추진위 간사는 박희승 불교사회연구소 사무국장으로 정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위촉장 수여 후 "종단 숙원사업 완성을 위해 마음을 내준 위원들에게 감사하다. 연구소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연구소 설립추진위는 종령 등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법적제도 정비 작업과 함께 조직 구성, 재원 마련, 운영계획안 수립 등 연구소 개원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게 된다.

연구소 설립추진위는 위촉식 후 가진 제1차 회의에서 ▷연구소 명칭과 위상 ▷연구소장 추천 ▷사무실 준비 ▷재원 마련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연구소 명칭은 가칭을 확정해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로 채택했다. 또, 연구소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무원장 직속기구로 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며, 차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발전시켜 독자적인 연구활동이 가능케 하기로 결의했다.

연구소장은 적합한 인사를 각각 추천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연구소 재원은 설립에 사패산 터널공사 보상비가 근간이 된 만큼 보상비와 종단 기금을 중심으로 활용하되 별도의 후원회도 운영키로 했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 총장 14일 이사회서 선출

동국대 총장 후보에 보광 스님, 김희옥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무봉 교수가 확정됐다.

동국대 총장추천위원회(위원장 학담)는 12월 8일 동국대에서 총장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소견을 듣고 투표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후보별 득표수는 총추위 방침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선출된 3명의 총장 후보자는 이사회(이사장 정련)에 추천돼 14일 오전 10시 30분 이사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총장 후보자 보광 스님은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정토사 주지 등을 맡고 있다. 1951년생으로 경주고, 동국대 불교학과 학부·석사를 마치고 일본 붓교대학에서 불교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불교대학장, 대외협력처장과 전자불전문화재콘텐츠연구소장, 건학100주년 기념사업본부장 등 보직과 한국정토학회장,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등을 거쳤다.

스님은 소견발표에서 ▷학교-종단 협력 강화 ▷1000억원 재정확보 ▷불교와 첨단 학문간 융섭 ▷로스쿨 재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헌법재판관인 김희옥 후보자는 1948년생으로 경북고를 졸업한 뒤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서울대 신문학과 석사, 동국대 법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대전 등에서 검사장을 지내고 법무부차관에 이어 2006년 9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활동 중이다.

김 재판관은 소견 발표에서 ▷로스쿨 재추진 외에는 소통과 화합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며 학교 운영기조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무봉 동국대 국문과 교수는 1955년생으로 충암고, 동국대에서 국문학 전공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교무처장 등 보직을 거쳤다.

김 교수는 ▷로스쿨 재추진 ▷대학 내 연구기관 활성화 ▷국가고시 지원센터 설립 ▷교수업적 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공약했다.

한편, 동국대 경주부총장 최종후 보자 3인에는 김영종 정치행정학부 교수, 이계영 컴퓨터멀티미디어학부 교수, 임배근 경제금융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환경위 재활약 주목

제5기 출범 위원장 장명 스님, 부위원장 이병인 교수



종단 안팎의 문제들로 5개월간 표류하던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조직 구성을 마치고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불교계 공식 환경(종령)기구인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1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5기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은 위원(스님 10명, 재가자 8명) 및 전문위원(11명), 명예위원(1명) 등에 대한 공로패 및 위촉장 수여, 총무원장 격려사, 공로패 수상자 소감 등으로 진행됐다.

위촉식에 이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5기 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 회의에 앞서 제5기 위원장에 중앙종회의원 장명 스님(사진)이, 부위원장에는 이병인 부산대 교수를 선출했다.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혜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환경위원회는 현장 운동 외 학문적 성과를 통해 정부의 환경 관련 정책에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정책이 결정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자연 및 사찰 수행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적 활동 전개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자문 기능 강화 △사찰 환경침해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매뉴얼 구축 △사찰환경 보존 정책 연구기능 강화 △불교계 및 시민사회계 환경단체와 연대활동 강화에 나서기로 방향을 정했다.

특히 불교수목원 추진, 사찰 환경보존 및 개선 정책을 위해 사찰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위한 지원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사찰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사찰림 보전을 위한 정책 연구, 환경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토론회 및 입장표명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불교수목원은 명예위원으로 위촉된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이 위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불교 수목원 설립 발원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새롭게 선정됐다. 김재일 소장은 자승 스님에게 "불교수목원 설립은 기초 투자자금 만으로 3~4년 내 수익구조를 낼 수 있다. 숲의 종교인 불교 본래의 수행 문화 보급 및 종단 재정 등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원력만 세우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해 위원회 활동 계획안으로 선정되는데 힘을 얻었다.

위원들은 불교수목원 추진을 위해 2008년 조계종과 산림청이 사찰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 지자체에서 생태숲 조성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불교 수목원은 불교와 사찰을 주제로 한 테마수목원으로 김재일 위원은 △무우수(無憂樹), 보리수(菩提樹), 사라수(沙羅樹) 등 경전에 언급되어 있는 초본과 목본을 심어 증식시키고 보전 전시한다면 불교 순례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상언 기자



(사)세계선불교문화교류연맹 총재 영공 도성 대선사 건당식(비구·비구니)

이 땅에 부처님의 법이 파종 된지 2000여년 보우 국사님의 육조선맥 뿌리내려 어언 1400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년에 와서 함께하기 보다는 기득을 지키고 배타하여 집단과 개인의 이익를 먼저하는 다수인에 의해 일불 제자임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가 하나 되고 세계인이 함께하는 시작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뜻을 함께하는 불제자들이 모여 선불교 역사를 재조명 할 수 있는 시작을 2010년 9월 27일 부산 KBS홀에서 세속 96세이시고 대한선불교의 산 증인이며 세계선불교 지도자이신 영공 도성 큰스님을 모시고 사단법인 세계선불교문화교류연맹을 출범하였습니다.

본 연맹 1차 목표인 불교를 국교로 하는 12-30개국과 함께 상호교류를 통해 선불교 발전을 도모하고 언로를 함께하며 각국 선불교 대표 큰스님의 법을 공유하여 세계인이 함께하는 찬란한 불국정토를 이룩하는 중심에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덕망 높으신 스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세계선불교 지도자 찾아 법맥기행 -

1. **영공 도성 큰스님 제 1회 (傳法建幢) 건당식**
   - 증 사 : 경우 큰스님, 인왕 큰스님, 무진본 큰스님, 법왕 동산 큰스님, 불심 도문 큰스님(조계종 원로의원), 무진장 큰스님(조계종 전포교원장) 외 본 연맹 장로단.
   - 일 시 : 2010년 12월 28일 14:00시
   - 장 소 : 부산 연제구 연산 8동 383-34번지 황정사
   큰스님의 전법을 받으시고 성불 도생 하시기 바랍니다.
2. **중국 광동성 육조 혜능 대선사** (2011년 3월 20일 예정)
3. **태국 담마까이(법신사) 닷딴지도 대선사** (2011년 4월 21일 예정)
4. **캄보디아 왕사 땟풍 대선사** (2011년 6월 예정)
5. **미얀마, 스리랑카, 대만 및 달라이라마, 기타 국 계획 중.**

* 상기 일정에 (일부 및 전체) 동참하실 대한불교 각 종단 지도자 스님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법건당 법첩, 기념책자, 가사(법계에 따라 17쪽 – 25쪽), 기타 준비 관계로 행사 1주일전 마감합니다.
(사진 3장, 본 연맹 신청서 1부 비용 50만원)

사단법인 세계선불교문화 교류연맹

영공 도성 근본선불교 법맥잇기 추진 위원장 **황정** 합장 | 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730번지 사무총장 김대식
전화 010-3501-3005. 053-767-8551 팩스 053-765-4814 / E-mail : koreakds@gmail.com / 입금계좌 농협 176277-51-004739

4대강 논의위 날치기 예산 통과에 "허탈"

"민주주의 제대로 할 때까지 지속 행동"

정부 ·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하자 4대강 갈등의 중재안 마련에 부심했던 4대강논의위원회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도법 스님(불교) · 조성천 교무(원불교 · 김대선 교무 대참) · 이훈삼 목사(개신교) 등 4대강논의위원회의 종교단체 대표들은 1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부 · 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날치기 예산 통과가 없었다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4대강 중재안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종교단체 대표들은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외면하는 정부 · 여당을 슬퍼한다' 제하의 성명서에서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의 '예산안을 단독처리 하는 일이 없다. 4대강논의위원회가 협상할 시간이 있을 것' 이라던 장담이 있었음에도 정부 · 여당의 소통부재로 예산안 통과라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종교단체 대표들은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면서 국민에게 사회통합을 외면할 경우 단호히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독선적이고 오만한 정부 · 여당이 무례를 참회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때까지 냉정하고 지속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법 스님은 "예산안 통과로 4대강 논의위원회 활동은 중지된 상태"라면서도 "국민적 논의의 취지를 무색케 한 정부 · 여당에 대한 구체적 안을 마련해 체계적 ·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4대강 찬성 국회의원 "2명"

반대 96명, 무응답 200명

4대 종단 연대회의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자체 조사 결과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2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와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298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4대강 사업의 찬 · 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찬성 응답은 한나라당의 나성린, 이주영 의원뿐이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96명, 무응답은 200명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 등 사회원로들과 불교4대강사업 저지 특별대책위원장 지관 스님, 실천승가회 대표 퇴휴 스님, 4대강 사업 저지 천주교연대 집행위원장 서상진 신부, 기독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양재성 목사 등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운하반대교수모임 공동대표 이상돈 중앙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선 4일에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종교계, 야당, 시민사회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예산 삭감을 위해 적극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박기범 기자

한나라 "실수다" 민주당 "석고대죄하라"

민주당 연등회, 안상수 · 이재오 · 정병국 등 불자 7적 지목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등 날치기 예산 통과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실수였다"고 해명을,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불교를 우롱했다"며 공방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2월 1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한나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예산 중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도된 것은 야당의 지연작전 속에서 국가예산을 회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생긴 실수"라고 밝혔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 등의 증액은 당에서 약속한 것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서갑원(전남 순천) ·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이 여수 엑스포와 영암F1 그랑프리 예산에 집중하면서 템플스테이 예산을 미처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당직자의 해명과 달리 F1 예산도 4대강 사업 예산에 밀려 100억원 가량 삭감됐다.

같은 날, 민주당 연등회(회장 최문순)는 성명서를 통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2천만 불자들에게 템플스테이 예산을 약속했던 안상수, 정병국, 김무성 의원과 새해 날치기 예산안 통과의 주범인 이주영, 이재오, 박희태, 정의화 의원을 불자 7적으로 규정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연등회는 "안상수 · 정병국 의원은 예산안이 날치기 통과된 8일 예결위 회의에 참석했다"고 폭로했다. 이들 의원은 회의에 참석했으나 템플스테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등회는 "안상수, 정병국 의원은 1700년 맥을 이어온 전통 불교를 우롱한 장본인"이라며 "2천만 불자에게 석고대죄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템플스테이 예산 얼마나 깎였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2011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 가운데 템플스테이 예산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185억원에서 62억5000만원이 삭감된 122억5000만원이다. 122억50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반영액(109억5000만원)과 여수 엑스포 지역 사찰 지원액 13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방침에 따라 12월 9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에는 정부 · 여당 관계자의 사찰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조기룡의 사찰경영학 ⑨

포교는 만인을 이롭게 하는 것

우리는 지하철, 거리, 역 대합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공질서나 공중예절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매우 시끄럽게 전도하는 개신교 전도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예수천국, 불신지옥"만을 큰소리로 외치고 다닐 뿐이다. 필자도 지하철에서 이런 상황을 종종 접한다.

그럴 때마다 "도대체 기독교 전도자들은 어떤 특권을 갖고 있기에 저렇게 안하무인과 막무가내로 활동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 생각 한켠에는 불교계가 포교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성어린 생각도 더불어 공존한다. 물론 개신교의 무례한 전도가 본받아야할 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포교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불교의 현실에 이와 같이 모순될 수도 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불자가 포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께서 부촉(咐囑)하신 전도를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자들아! 자, 이제 길을 떠나거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人天)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그리고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 제자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진리 · 가르침]을 전하라. 또한 원만 무결하고 청정한 범행(梵行)을 설하라. 사람들 중에는 마음의 더러움이 적은 이도 있거니와 법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도 악에 떨어지고 말리라. 들으면 법을 깨달을 것이 아닌가? 제자들아! 나도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벨라의 세나니가마로 가리라."〈잡아함경〉 권39, '승삭경(繩索經)'

개신교 전도 행위 거북해만 말고 우리도 전법륜 열심히 굴려야

이는 유명한 전도부촉이다. 부처님이 다섯 비구에게 최초의 포교인 초전법륜을 설한 후 제자가 60명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포교를 분부하고 부탁하신[부촉(咐囑)] 것이다.

물론 부처님이 전도를 부촉하심이 기독교에서 하듯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부르짖는 저급한 행위를 촉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전도는 당연히 무례하지 않은 여법(如法)한 포교이다. 우리가 포교를 여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의미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한다.

포교란 무엇인가, 포교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자. 포교(布敎)의 '포(布)'는 고대에 화폐를 대신해 사용됐던 베로 일종의 통화였다. 베는 널리 유통되고 움직이는 것이므로 제한이 없이 두루 쓰이는 사물이었다. 그러므로 포교란 통화가 널리 유통돼 만인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널리 불법(佛法)을 유통시켜 세상사람 모두를 이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불법을 사회에 널리 펼쳐서 중생이 불법에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불법을 따르고 지켜서 모두가 이롭고 윤택한 불국정토를 일구는 것이다.

포교는 부처님의 초전법륜(初轉法輪)이래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불법전수와 불교교단 유지의 근간이 되는 행위이다. 초전법륜이란 부처님께서 성도 직후 녹야원에서 교진여 등 다섯 비구에게 자신이 깨달은 바를 처음으로 설법한 일을 의미한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길 주저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가 너무 심오하고 난해해 일반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다. 이에 부처님은 이 진리를 누구에게 설할 것인가를 생각한 끝에 처음 출가했을 때 스승이었던 카라마와 라마푸트라를 떠올렸으나 이미 죽은 뒤였다. 그래서 함께 고행했던 다섯 사람을 생각해 내고 그들이 있는 녹야원으로 찾아가 첫 설법을 행했다.

"고행과 쾌락의 두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전법륜경(轉法輪經)〉에 의하면 부처님의 첫 설법은 이렇게 시작됐다. 중도에 이어 해탈에 이르는 네 가지 진리인 사성제와 괴로움을 소멸하는 여덟 가지 수행방법인 팔정도가 설해졌다. 부처님이 이와 같이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자 땅의 신들이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가장 훌륭한 법륜을 굴리셨다. 이것은 사문 · 바라문 · 천신 · 악마 · 범천 등 세상의 어떤 누구도 굴리지 못한 것이다"라고 소리쳤다. 이것이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최초로 설한 가르침의 상황이다.

이로부터 부처님의 포교 생활은 49년 동안 지속됐고 그동안 아난다 등 10대 제자를 비롯한 수천의 비구 · 비구니와 빔비사라 등 여러 국왕과 그 밖에 무수한 선남선녀들이 불제자가 되어 인류역사상 중요한 대종교로서의 초석을 놓을 수 있었다.

초전법륜에서 보듯이 흔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륜에 비유한다. 법륜은 진리의 수레바퀴라는 뜻이며, 전법륜(轉法輪)이란 옛적 인도에서 전투할 때 쓰던 전차(戰車)의 바퀴가 굴러가서 적을 무찌르듯이 법을 설해 인간 고뇌의 원인인 번뇌를 부순다는 뜻이다. 만약 부처님이 법륜을 굴리지 않았다면, 세상은 여전히 칠흑 같은 무명에 싸여 휘청거리고 있을 것이다. 아직도 탐욕 · 성냄 · 어리석음이 중생계에 가득하지만, 그래도 중도,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에 의해 광명에 도달하는 길이 열려 있기에 희망이 있다. 부처님이 법륜을 굴림으로써 중생이 구제되고 세계는 인간자존(人間自尊)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

포교는 왜 해야만 하는가, 포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포교란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널리 편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포교를 함에 있어 그 목적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올바른 포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황금영구위패는? ※디자인특허※

◈ 하나 하나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하여 제작한 황금위패로 영가위패단의 품격과 신도는 조상에 대한 숭모의 뜻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안 치 전 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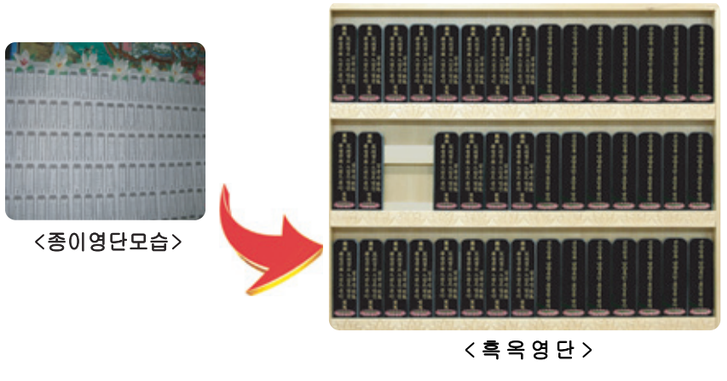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작업 조각

흑옥위패단은? ※디자인특허※

◈ 자연석 고급석재로 제작하여 영단의 안정감과 품격을 높여줍니다.
◈ 비용이 저렴하여 많은 신도가 위패제작에 동참할 것입니다.
◈ 뒷면에 고유번호와 가족이름을 넣을 수 있어 관리가 편합니다.
◈ 좁은 공간에 많은 봉안영구위패를 장엄 할 수 있는 맞춤형 흑옥위패 단입니다.
◈ 사찰비용없이 영단 설치와 어려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가의 문구는 각 사찰의 요구대로 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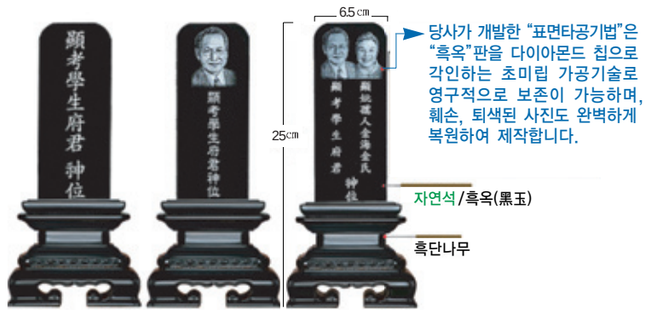
※ 전국 어디든 각 지역 사업부에서 샘플과 자료를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

흑옥 제사용 위패는? ※디자인특허※

◈ 제사 때나 명절에 지방위패에 조상님의 사진과 함께 제작한 지방으로 제사를 모시면 생전의 모습을 잊지 않을 것이며, 지방을 쓰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흑옥(黑玉)과 흑단 나무를 부착하여 제작하였기에 영구적으로 보존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시 사진은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제작 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와 함께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966-9650
(주)대양아트 FAX : 02) 921-9650
본사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6-1 e-mail : dyart@daum.net

일 주 문



천태종 국제선원 상량식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12월 8일 청주 명장사에서 천태종 국제선원 상량식을 봉행했다.



월정사 삼보일배 대정진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2월 31일부터 신년 1월 1일까지 월정사~상원사간 삼보일배 대정진을 봉행한다. (033)339-6623



대전·충남 불교지도자 송년법회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12월 16일 대전 아리제뷔페에서 대전·충남 불교지도자 송년법회를 봉행한다. (042)482-0020



백양사 산사 김장 담그기 행사
장성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은 12월 10~13일 백양사 경내에서 2010년 산사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한다. (061)392-7502



송광사 구산 스님 추모법회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12월 18일 송광사 대웅보전에서 구산 스님 27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061)755-0107



밀양사암연합회 회장 취임
밀양 삼양사 주지 월장 스님은 12월 8일 밀양 화랑예식장 7층에서 밀양사암연합회 회장에 취임했다.



포교사단 경기인천 지역단장 선출
임희웅 포교사단장은 12월 22일 경기인천지역 포교사단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개최한다.



제8회 대원상 수상자 발표회
민병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12월 24일 대원상 콘텐츠대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02)719-2606

■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진광 스님 임명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2월 6일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에 진광 스님을 임명했다. 진광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4년과 1998년 각각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 수지했다. 1994년 동국대 졸업, 1998년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2003~2005년 총무원 사서실 사서를 지낸 스님은 2009년까지 덕숭총림 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수선했다.

"스님들 지식향상 더 노력해야"

조계종 제6기 고시위원장 지 안 스님



"한국불교가 시대에 맞는 불교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려면 변화해야 한다. 승가교육이 변화해야 한국불교가 산다. 승가고시를 통해 승가교육 변화를 완성하겠다."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이 제6기 고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스님은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6기 고시위원회 첫 회의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승가고시를 통한 승가교육의 변화를 강조했다.

지안 스님은 "수행자는 지식과 인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승가고시를 내·외전을 두루 살필 수 있도록 강화해 출가자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교육원이 추진 중인 기본교육과정 개편과 연관해 승가고시가 불교와 사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출제로 변화하면 학인스님들도 자연스럽게 이를 따르게 된다는 설명이다. 과거 통과의례처럼 받아들여졌던 승가고시는 최근 조계종이 승가교육을 강화하면서 자격고시처럼 인식되고 있다.

스님은 "불교를 외호했던 문정 대비에게 보우 스님이 '승가고시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승가고시는 중요하다"며 "승가고시의 변화가 한국불교 중흥의 큰 힘이며, 승가교육 개선의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안 스님은 "유명한 스님들의 TV 법문을 본 불자 중에는 '한문 용어 좀 쉽게 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 불교가 우리 사회의 지식공간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식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승가고시 출제경향을 한문 경전 위주에서 불교 전반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꿀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위원장 지안 스님을 비롯해 송광사 승가대학장 일귀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 스님, 선운사 승가대학원 재연 스님, 경주 정각원장 화랑 스님,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법인정사 선원장 설우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 등 9명이 제6기 고시위원회 의원에 위촉됐다.

고시위원회는 12월 2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연찬회를 열고 승가고시 유형평가와 고시출제위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아동·여성·장애인 복지 강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신임 상임이사 종 선 스님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에 편중된 불교계 사회복지를 아동·여성·장애인 복지를 특화해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에 종선 스님(도솔천노인전문요양원 원장)이 임명됐다. 스님은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자승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 받았다.

종선 스님은 임명장 전달식 후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복지 기관, 법인, 재단이 각기 할 일이 다르다. 재단 상임이사로서 재단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지역 산하단체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날 "재단과 지역기관이 상·하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종선 스님은 울산 남구 노인복지회관 관장을 지낸 10여 년 동안 울산시 사회복지위원, 울산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을 맡는 등 울산지역에서 왕성한 사회복지 활동을 보여 왔다.

스님은 "지역에서의 활동 경험이 재단 상임이사직 수행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조화를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까닭에 종선 스님은 재단의 입장에서 불교 사회복지의 전체적인 것을 총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상임이사직을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 사회복지의 문제점을 노인 복지 편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여성·장애인 등 전방위적인 복지사업을 펼쳐야 하고, 이는 포교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종선 스님은 출가 후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다. 고민 끝에 사회복지가 정답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때부터 사회복지와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이 곧 복지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심성을 정화하는 것이고, 정화는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복지입니다. 이 생각으로 복지재단을 이끌겠습니다."

한편 종선스님은 1990년 12월 통도사에서 사미계, 1993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무애스님이다. 본사는 통도사이며, 현재 거주사는 울산 울주군 온양면에 위치한 내원암이다. 1995년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고, 2007년에는 동국대학교 장례문화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박기범 기자

해인사, 화상사고 어린이에 1000만원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는 12월 7일 경남 합천 가야면사무소에서 조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5살 제화정 어린이에게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제화정 어린이는 가야면 황산마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다. 지난 10월 할머니가 묵을 만들려고 끓여 놓은 물에 빠져 화상을 입어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제화정 어린이는 가피절제술과 사체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앞으로도 2~3회 정도 자가 피부이식술 등 수술이 필요하지만, 가정형편상 치료비를 부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날 성금을 전한 해인사 총무국장 심우 스님은 "다섯 살 화정이가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인총림 대중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제화정 양의 빠른 회복을 발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팔공산 선본사 일주문 낙성



갓바위가 있는 선본사(주지 향적) 입구에 일주문과 무지개 다리가 조성됐다.

팔공산 본사는 12월 6일 경산 와촌 사찰 입구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 등 4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일주문, 금륜교 준공식을 봉행했다.

행사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선본사 일주문, 금륜교 조성은 팔공산 개산의 연원에 닿는 불가의 자랑스러운 업적이다. 갓바위 성역화 불사에 더욱 힘써달라"고 격려했다.

선본사는 최근 경북도, 경산시의 지원을 받아 일주문을 세우고 진입로에 무지개 다리를 조성하는 등 갓바위 주변 정비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삼보조계종 금강계단 구족계



대한불교삼보조계종(총무원장 법장)은 11월 25일 칠곡군 위봉사 대법당에서 제3회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해동율맥 수진율사와 1세 종정인 멸공 스님 등 종단스님들을 증명법사로 구족계 및 법계품서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비롯해 종단 임원진 및 종도 200여 명이 동참했다. 055)338-0050

조동섭 기자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제7회 법계고시 시행 최종공고
[총본산창건기념 사암 및 종도 모집]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법계고시를 종법에 의거 (제7회 법계고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덕, 대선 및 대덕, 종덕 및 종사, 대종사 품수를 응할 대덕큰스님은 소정의 절차를 기간 내에 이행하시어 법계고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명 : 제7회 대한불교전통조계종 법계 고시 및 품수 수여식
• 일 시 : 2554(2010)년 12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 장 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645번지 각황사
* 금년도 법계고시는 총본산 각황사에서 시행합니다.
* 사암 및 종도 모집하오며 년간 분담금 없음.
* 임원 간부 소임을 맡을 분 환영합니다.
* 종사급 이상 품계를 받는 분에게는 종사기, 인증패, 불자 등을 수여함.
* 본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승려도 환영 합니다.
임제종 칠탑사 백성장로 법맥을 이어 받을 전법제자 건당 신청 받습니다. (25조 홍가사 수여함)

• 대선 및 중덕 대상자
(1) 구족계 수지한 비구, 비구니
(2) 승납 5년이상(대선)
(3) 승납 10년이상(중덕)
• 대덕 및 종덕 대상자
(1) 구족계 수지한 비구, 비구니 (중덕 및 대선 수지자)
(2) 승납 20년이상(대덕)
(3) 승납 25년이상(종덕)
• 종사 대상자
(1) 법납 30년 이상.
(2) 종덕 법계 5년이상
• 대종사 대상자
(1) 법납 35년이상
(2) 종사 법계 5년이상
• 대승정 대상자
(1) 법납 40년이상
(2) 대종사 법계 5년이상

• 신청 및 구비서류
(1) 법계신청서 (총무원에서 발급하는 양식) (2) 건당신청서(건당 하실 승려에 한함) (3) 증명사진 1매
• 신청마감 (서류전형) : 불기 2554년 12월 15일(수요일) 오후 5시
• 문 의 : ☎053)325-0400, 010-2772-0779

불기 2554년 12월 3일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법계 고시 최고위원회
명예위원장 각 암 위 원 장 원 당 총무원장 능 인

권 선 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대한불교 고승연합회 복지지원단에서 부처님과 불자를 위해 한 생을 바치신 노스님 들의 귀의처가 될 복지원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전국 사·암에서 버려지는 불필요한 폐초 및 불기 자재 수거와 후원금을 받습니다.
부디 고승복지원이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여러 불자님께 많은 홍보를 부탁 드립니다.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수거품목 : 폐초, 파불, 촛대, 향로, 제기, 불화, 공양미 등
[후원금 예금주] 대한불교 고승연합회 (농협) 1124-01-138620

• 수거품이 있으실 때 연락 주시면 택배업체를 보내드립니다. (택배비는 복지지원단에서 지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십시오.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삼리 227번지
전화 : ☎ 031)764-3511, 070-4246-3511 / 팩스 031)764-4711
• 복지지원단에서는 스님들이 수행하시는데 불편한 각종 애로사항을 최선을 다해 해결하여 드립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大韓佛教高僧聯合會 복지지원단
총무원장 대종사 광명 합장

후원단체 : 대한불교신인종, 국제불교조계종, 불교무술사회교육원, 해동불교금강조계종, 대한민국무술연합, 자비실천운동본부, 용화불교교단, 천토불국사, 백제무예연구원, 불자가수회, 호국연예인예술단, 사천왕경호대, 서울불교방송, 한·중 불교문화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55주년

본말사 신도조직 활성화 다짐

"전국의 신도들 결속해 명실상부한 한국의 단체로 만들겠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창립 55주년을 맞아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55주년 기념식 ·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전국각지에서 모인 신도단체장들은 중앙신도회 55주년의 역사를 계승하고 교구본말사의 신도조직을 활성화 하는데 결의를 다졌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포교국장 정무 스님, 김의정 회장, 중앙신도회 손안식 상임부회장, 포교사단 임희웅 단장 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중앙신도회의 55주년을 돌아보는 영상자료를 상영하는 시간도 가졌다.

중앙신도회는 1955년 6월 1일 창립해 2004년 전국신도회와 중앙신도회의 통합으로 종단과 함께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정진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불교의 사회화를 위해 걸음을 내딛은 결과 상설기관의 활성화와 의료 복지 활동 가속화, 신도회 정비 및 역량강화 등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다.

혜총 스님은 기념법문에서 "승가가 곧 재가요, 재가가 곧 승가이며 이들은 둘이 아니다. 지난 55년간 많은 일을 일구어낸 중앙신도회의 역대 회장 및 임원과 김의정 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나라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불교다. 불교의 중심에는 승가와 조계종, 신도회가 있다"며 "우리가 솔선수범할 때 정치, 경제, 이웃종교계에서 존중해줄 것이다. 확고부동한 신심을 갖고 계를 지키며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것이 신도회와 불교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임무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신도회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신도회 지원금을 1억 5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3000만원을 추가지원 할 것을 밝혔다.

김의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앙신도회는 55년동안 희노애락의 변화속에서 전국신도회와 중앙신도회가 통합했고, 신도운동의 염원이자 터전인 신도회관을 개관했으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스스로의 모습을 다듬고 맡은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종단과 함께 교구본말사 신도회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조직을 통해 조계종도로서의 자긍심고취는 물론 불교의 사회적 활동으로 지역과 사회에 자리매김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식전행사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마당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연우(이사장 구자선)에 기증된 '무료 이동한 방검진버스 무사운영 기원법회'가 진행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등 전국의 신도단체장들이 창립 55주년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이나은 기자

"작가는 죽어서 지옥에 간다"

소설가 조정래가 말하는 '문학과 삶'

소설가 조정래씨 12월 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제22차 불교미래사회포럼에서 '문학과 삶'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다음은 조정래 작가의 강연 요지이다.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방법, 인생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이 문학이다. 작가는 신(神)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신을 닮고자 하는 문화인들이다. 그래서 문학하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간다. 감히 그 범위에 범접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철학가들은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많은 책을 썼다. 하지만 철학만 가지고서는 인생이 무엇인지 쓸 수 없다. 인생은 논리보다 체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학은 인간의 삶 자체를 글로 쓰되 영혼에 감동을 불어넣어 오래도록 남도록 한다. 감동을 넣은 예술이다. 역사는 인생 전체의 기록이다. 역사는 기록할 만한 가치만 있는 것을 적은 것이라면, 문학은 희로애락을 감동적으로 쓰는 것이다.

문학은 역사에 비해 더 큰 범주다. 역사학자는 문학을 몰라도 되지만, 문학가는 역사를 모르면 문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인류가 없어진다고 할 때 인간이 살다간 증거는 불경, 성경, 역사책이 아니다. 제일 잘 된 소설이다. 소설 속에는 종교와 철학, 역사, 풍습, 습관 모든 것이 버무려져 있기 때문이다. 깊이와 전통을 알기에는 제일 잘 된 소설을 읽으면서 그 민족을 알게 된다.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촛대의 역할을 한다. 그러기에 문학작품을 읽고, 현실에 관한 괴로움을 견디어 가며 일생을 문학에 바치는 것이다.

문화사가들은 작가를 인류의 스승이고 시대의 산소라고 정의한다. 작가는 인류의 스승이 될 수 있을 만큼 시공을 초월해야 한다.

정리=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조정래 작가는 1943년 전남 승주군 선암사에서 태어났다. 일본의 황국화 정책으로 대처승이 된 아버지 조종현과 어머니 박성순의 4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이런 자신을 일본의 은혜를 입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

소설가 조정래. 그는 일본의 은혜를 갚기 위해 식민지시대의 민족수난과 투쟁을 그린 소설〈아리랑〉을 썼다. 대하소설 〈태백산맥〉 〈한강〉 〈아리랑〉에 이어 최근 출간한〈허수아비 춤〉은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비밀을 파헤쳐 이 시대 좌표를 제시했다.

100자 뉴스

국박, 혜초 〈왕오천축국전〉 선보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던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이 12월 14일 128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2월 18일부터 2011년 4월 3일까지 '실크로드와 둔황' 기획전을 통해 〈왕오천축국전〉을 일반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기획전에는 〈왕오천축국전〉외에도 중국 신장(新疆) · 감숙(甘肅) · 영하(寧夏) 등 3개 성(省) 10여 개 박물관의 유물 220여 점이 전시된다. '혜초와 함께 하는 서역 기행'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8세기 혜초가 여행했던 길을 따라 파미르 고원 동쪽의 실크로드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노덕현 기자

천수천안, 고양시에 '자비의 쌀'



천수천안불교자원봉사단(이사장 대오)이 고양시 독거노인과 차상위 계층 지원을 위한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이번 자비의 쌀 나눔은 20kg쌀 200포대를 최성 고양시장과 고양시불교사암연합회 이사 스님들이 함께한 가운데 12월 9일 고양시청에 전달했다. 이 쌀들은 고양 지역의 200여 세대에 지급될 예정이다. 박기범 기자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 봉정

구하 · 경봉 · 월하 · 벽안 스님 등 영축총림 고승들의 일대기를 다룬 근현대 불교사 총서가 출간된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는 12월 16일 10시부터 월하 대종사 제7주기 추모일을 맞이해 경내에서 통도사 선조사스님들의 100년 행장기인 〈영축총림 통도사 근현대 불교사〉 출판 봉정식과 출판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

서울경기지역단, 포교사 전진대회

조계종 포교사단 서울경기지역단(단장 임희웅)은 12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가졌다.

포교국장 남전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해도 스님, 불자가수협회 김활선 회장을 비롯한 300여 포교사 및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공연 및 포교사 공로포상 시상식과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포교사 공로포상으로는 군8팀 신현덕 전문포교사가 수상하고, 포교사단 단장상은 강민숙, 강예자 외 3명이 수상했다. 이나은 기자

생명나눔, 광동고서 조혈모세포 교육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2월 7일 남양주 광동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교육'을 가졌다. 12월 7일 광동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교육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조혈모세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 노동부 지원 · 사회적기업(예비) · 초의신다 최고급상 수상 · 청와대 사랑채 납품 · 김포공항 4F 입점 T:061-285-0301~2

2010년 한국 보이차 연말연시 할인행사

여름에 선보였던 한국 보이차(청차 보이, 황차 보이)에 보내주셨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매진되었고 그 뒤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에는 저렴한 가격의 생병(녹차 보이)을 만들었습니다. 할인 판매는 연말부터 설명절까지만 받을 예정입니다.
바로 드셔도 좋은 茶이지만 일 년 이상을 묵혀 드시면 더욱 맛있게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다관에서 우려 드셔도 좋으며, 떡차처럼 끓는 물에 넣어 다시 한 번 끓여내어 숭늉처럼 드시면 더욱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찻잎으로 만든 초의병차는 무농약, 친환경, 위생문제를 해결했으며 한국인의 미각에 맞는 깊은 맛과 향을 차인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차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초의차사업단에서 정성들여 준비한 한국보이차로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 드립니다.



2010년 보이차 연말연시 할인행사 가격

구분	보이차 300g
할인 가격	25,000원 → 15,000원
할인 기간	1월 31일까지
차 만든 시기	2010년 9월 1일 ~ 2010년 10월 10일
	좀 더 다양한 맛의 차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고급 보이차! 가격 50,000원 (다섯 개이상 구입하시는 분께는 할인행사 보이차 1개를 더 드립니다.)

구입 및 문의 061-285-0301, 2

(사) 초의학술문화원

입금 우 체 국 500033-05-002572 (사) 초의학술문화원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 초의학술문화원

● 입금시 주문자 이름과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 제품에 불만이 있을 경우 100% 환불해 드립니다.


▲ 2010년 국제차문화대전 참가


▲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장관과의 오찬간담회 6월 12일



▲ 2010년 목포도자기축제 참가


▲ 일본 기타나고야 시장 방문


▲ 2010년 초의선사탄생문화제—초의선사학술세미나



▲ 초의학술문화원—목포우체국 업무제휴협약 7월 22일


▲ 평택시예절교육관 한국 보이차 체다 실습 6월 17일


▲ G20 정상회의기념 어린이 행다법 시연


▲ 청와대 사랑채 다도 체험


▲ 청와대 사랑채 행다 시연 및 무료시음 행사

청와대사랑채 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행다시연 및 무료시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초의학술문화원 전화 : 061-285-0301,2 choyeetea.co.kr 후원 : 무안군

"고귀명수 (鼓龜命數 : 육임운명판단법)" 할인 출시 및 "효사 활인천역집 (曉史活人天役集 : 육임종합 CD프로그램)" 리콜 실시!

"저는 여러분의 기대를 먼저 고민 했습니다"

-. 효사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 리콜 실시 안내



1. 정 가 : 5백만원 → 할인가 250만원
2. 기 능 : 상담전문활용육임종합 CD프로그램
3. 리콜대상 :
   가. 효사활인천역집 2010완결판
   (판단의 애매성이 일부항목에서 불식되지 않음)
   나. 효사활인천역집 2010완결보정판
   (판단의 애매성이 일부항목에서 불식되지 않음)
   다. 효사육임사주감정법(대,세,일 운세 배치 오류 발견 됨)
4. 리콜이유 :
   가. 승인기능을 없앴음.
   나. 신분 직업을 미리 알수 있도록 보충 하였음.
   다. 초사(初辭)와 내정(來情)의 핵심사에 대한 애매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아래 사항들의 낮 밤, 남녀 구분 및 어간(語間)의미를 최정련 시켰음.
      1). 근친상간자에 대한 판단의 정확도를 위해 해당 천장 분별과 낮밤 시간 구분 표시를 철저히 했음.
      2). 남녀삼각관계(一男二女 · 一女二男)와 불비 · 부족관계에 있어서의 애매한 부분(三傳三合 / 四課 全 一 陽 · 陰)에 대한 채용 · 불채용의 적용을 명확히 했음. 이때 남자 또는 여자가 질투로 남자 또는 여자를 살해하게 되는 대상 남녀의 구분도 엄중히 했음.
      3). 교동(狡童 : 남자가 타인의 부인을 유혹하여 색정거래 하는 것)과 음일(淫溢 : 여자가 남자를 적극 유혹하여 가출하려는 것)의 낮 · 밤 시간 판단구분을 철저히 했음.
      4). 부인이 간사(姦私)로 남편을 살해하는 대상 여인도 엄중히 구분해 적시 했음.
      5). 데릴사위 신분임을 철저히 구분해 적시했음.
      6). 처에 의한 소송을 당하는 남자를 철저히 구분해 표시 했음.
      7). 부부이별 하는자에 대한 구분을 철저히 표시 했음.
      8). 상신(傷身) 또는 불구(不具) 여부가 본인 · 처첩 · 자녀 · 부모 · 형제 중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를 엄중히 표시 했음.
      9). 혈광사의 대상과 암매사의 대상을 양일(陽日)과 음일(陰日)로 분명히 구분시켰음.
      10). 고등(사법 · 행정 · 외무 · 변리 · 회계)시험과 대학입학 시험 합격자 및 선거 당선자 여부를 별도로 표시 했음.
      11). 12귀신(作事鬼 病鬼) 중 '여귀(女鬼)' '음귀(陰鬼)' '가택귀(家宅 鬼)' 의 종류를 새로 보강 했음.
      12). 12부정(邪崇)중 부정침범부위(신변 · 가택 등)를 철저히 구분해 표시 했음.
      13). 산소탈 14부 중 묘지속 상태에서의 '뱀굴' 여부 · '복골' 여부 · '水듬' 등 여부를 재정련 시켰음.
      14). 집안에 귀물(鬼物 : 木 · 火 · 土 · 金 · 水)이 있는 경우 이를 표시 했음.
      15). 기타에 있어
         가) 이 사람이 왜 왔는가?
         나) 이 사람의 전체적 상황은 어떠한가?
         다) 이 사람의 구체적 문제는 무엇인가?
         라) 이 사람의 비밀사안은 어떤 것인가?
         마) 묻고자 하는 일이 이미 벌어졌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
         바) 바깥일인가? 집안 내부 일인가? 후회하는 일인가?
         사) 밝혀도 되는 일인가? 숨기고 싶은 일인가?
         아) 上人(男)에게 유리한 일인가? 下人(女)에게 유리한 일인가?
         자) 내 말을 신뢰 하는가? 설득해야 하는가? 자기 고집이 있는가?
         등 위 프로그램에 장착된 15종 600여가지 사안 중 위 큰 항목 1 · 2 · 3 세가지와, 작은 항목 1-15 내용을 정련 · 보강 · 삭제 시켰으므로 리콜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5. **위 1항 대상외 기존 "효사활인천역집 Ⅰ · Ⅱ · Ⅲ CD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환 시기가 수차 있었기 때문에 금번 리콜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 고귀명수(鼓龜命數) 출시

"안녕하십니까?"

중동지절(仲冬之節)에 저 고복자 효사 문안드립니다.

육임운명판단법 '고귀명수(鼓龜命數)' 를 시작한지 4년만에 드디어 완성 시켰습니다.

선입금 하시고 지금껏 기다려 주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귀명수' - 혼신을 기울여 무섭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사주(四柱)에 연연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시간의 방문자마다, 이어지는 다음 사람들까지, 또는 출생 연월일시별로, 표시해 놓은 해당 쪽수만 펼치면 거기, 군더더기 하나 없는 속 시원한 내용 들이 또박 또박 써져 있을 것입니다.

읽고 해석해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인 부동(不動) 단구(單句)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간추려 드리건대 **수명 관계 / 건강 · 질병 관계 / 직업 · 신분 관계(來情과 命運 겸용) / 배우자 성정 · 용모 관계 / 명운 · 부부 선후사(先後死) 관계 / 일생 귀인조력 · 유무 및 그 거소지 관계 / 일생 구해(仇害)인 유무 및 그 거소지 관계 / 육친별 상신불구(傷身不具) 관계 / 출산자녀친구(親仇)관계 / 매년 나이별(신수) · 길흉관계 / 띠별 현재 상황 관계 / 여자운명 관계 / 초년 · 중년 · 말년 길흉 및 육친 불행 관계 / 초 · 중 · 말년 12작사귀 · 12병귀 · 침범관계 / 신변 · 가택 · 초 · 중 · 말년 12부정 침범관계 / 산소탈-육친 중 누구에 의한 파가(破家) 또는 흥가(興家) 하겠는가? 관계 / 묘지 속 '뱀굴' '복골' '水듬' 관계 / 남녀 혼인 기(期)관계 / 전체 인생정체(定體) 관계 / 구체적 인생행로(行路) 관계 / 살인 · 색정 · 생사별 · 사고 · 사건 관계 / 12궁위(本命 · 財 · 兄弟 · 田宅 · 子息 · 奴業 · 夫婦 · 病危 · 遷移 · 官職 · 老後福德 · 相貌) 길흉 관계 까지,** 육임의 장점인 정확도 · 신속도 · 그 효과성에 맞춰 최대한 - 후회없이 - 잘 살펴 놓았다는 점을 주지해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들을 일별할 수 있게 한 일, 즉 복 · 명(卜 · 命)을 합쳐 '명운(命運)' 과 '당면사정(當面事情)' 들이 모두 한 면 한 눈에 들여다 보이게끔 구성시킬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일상(日常)을 떠난 세월' 과 '육임에 대한 역사성' 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못해 낼 작업이었고, 애 제자 귀옥자 乙山의 외지조응(外之助應)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曉史集 第二十七集

鼓 龜 命 數

고 귀 명 수

- 육임운명판단법 -

鼓卜子 曉 史
龜玉子 乙 山 共著

도서출판 朱 雀

曉史集 第二十五集

曉史六壬刪策

- 2011 증보판 휴대용 -

鼓卜子 曉 史

도서출판 朱 雀

이 '고귀명수' 의 완성은 '육임이 복(卜)일뿐 명(命)에는 약(弱)하다' 는 오해를 단 한번에 불식시킨 쾌거로서, 수천년 육임사에 이 책과 같은 '명 · 복 활용서' 로까지 만들어진 예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 개인의 불행사가 육임 '고귀명수' 를 만들어내게 한 소명으로까지 이해하고 이 책의 완성과 함께 제 인생의 완성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운에 있어서 -이 책처럼 딱딱 부러지는 '정형화(定形化) 되어있지 못한 것' 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분명히 써 놓아야만 흑 · 백이 가려질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한 눈금의 오차가 없어야 할 우리 활인 천역자들의 '잣대' 이면서 '칼' 임에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선입금을 받고도 4년을 끈 저의 진의는 바로 이점 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을 여기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미리 알고 권위있게 먼저 하게 될 말씀들을 애써 기록한 것입니다. 대 만족하실 것 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책 값은 3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 소식을 접한 분들께서는 저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겠기에 **2010년 12월 13일 - 12월 31일** 사이 동안만 150만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전화 070-7514-8680에서 제가 직접 주문 받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庚寅 仲冬 鼓卜子 曉史 拜上

고복자(鼓卜子) 저술 소개 진정한 프로를 위한 진검승부적 위상을 제고시킨 육임활용 · 학습서들 입니다. 누구나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되어 있습니다.

활용서
-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최종 2011 완결판
- '효사육임산책' (휴대용) · '효사육임복변집' (좌정용)
- 도사에게물어봐 (2011 증보판)
- 출산길일길시택일비법 (2011 개정판)
- 육임풍수 (2011 개정판)
- 육임 1년신수비결 (2011 개정판)
- 육임래정비법 (증보판 개편판 : 휴대용 좌정용)
- 도정기 (道程記) - 신간
- 불가법요집 (佛家法要集) - 고품격완성도 / 해당법문 경구 색인 수록 / 법회의 감동심 고취 구성 / 각종행사 30여 발원 · 기도문 게재 등 새 지평이 제시됨.
- 육임대계전서 (2011 개정판)
- 본 효사활인 천역집 (2011판 육임종합 CD프로그램)
- 본 육임운명판단법 고귀명수 (鼓龜命數)
- 효사육임강의 CD (2011년 최신판)
- 오행제례의식집 (2011 개정판)
- 효사육임복변집부록 (2011 개정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 개정판)

학습서
- 효사육임강론 (曉史六壬講論) 2011 보정판 / 上권 : 육임각법종합구성 / 2050쪽 (학습용) 下권 : 육임서 역대저자 머리글 / 육임대요문답/사과삼전보기요령/항목별주요신장제시 / 사과삼전표 / 천지반표 / 과 / 격 / 초사 / 국수해설 / 항목별성부단정 수록 / 2015쪽 (임상용)

개관 10주년 맞은 서울노인복지센터, 훈훈한 송년의 밤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우리 모두의 꿈”

희망법당
서울노인복지센터



전원주씨가 서울노인복지센터 송년 모임에서 재능기부 약정서를 체결한 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에서는 지하철로 1~2시간 이상 걸리는 일산이나 천안에서 오는 어르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도권 곳곳에서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숫자도 꽤 많아서 센터에서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 어르신들은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우수한 프로그램과 활기찬 분위기가 좋아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다.

2001년 4월 개관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개관하던 해 12월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수상할 정도로 처음부터 우수한 면모를 보였다.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통해 노인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2002년에는 제1회 고령자취업박람회 ‘일터에서 만납시다’를 시작하면서 노인 취업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취업훈련센터, 자활사업단 등을 시작하면서 어르신들의 건전한 문화 형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2008년 시작한 ‘제1회 서울노인영화제’는 국내 최초로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한 단편영화를 상영해 화제가 됐다.

이처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서울노인센터가 올해로 개관 10년을 맞아 12월 9일 명동 라루체에서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봉사자 · 후원자 송년 모임- 좋은 인연’을 마련했다.

이 날 모임은 특히 10년 동안 센터와 인연을 맺고 활동해 온 900여 명의 후원자와 봉사자들이 대거 참석해 센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올해의 사업을 돌아보는 영상보고로 시작한 송년 모임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 대한 시상과 축사가 이어졌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은 “사회복지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은 우리 사회의 비타민이자 윤활유 같은 분들이다. 이 분들과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서울노인복지센터가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해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기부문화의 확대와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창근 후원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홀로 남으신 어머니가 센터를 다니시면서 다시 밝아지셨다. 그것을 보고 센터 후원을 결심했다. 언제나 센터에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은 특히 방송인 전원주씨가 재능기부 약정서를 체결해 행사의 의미를 더 했다. 방송활동 이외에 지자체 등에 강의를 다니고 있는 전 씨는 앞으로 노인복지센터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할 예정이다.

전원주씨는 “나눔은 아름다운 일이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분들이다. 모두 나눔에 동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또 노인문화복지 발전을 위한 소액기부자를 3만명 이상 개발한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7400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2000여 명이 후원에 참여했다. 센터는 이들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바탕으로 소액기부자를 더욱 늘려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거액 기부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소액기부 활성화가 복지사회 형성에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소액기부를 통해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생활 속에서 익히게 되면 더욱 다양한 자원봉사와 나눔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가섭 스님은 “센터는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 모든 것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노력한 결과다.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기범 기자

어르신 문화 특성화 빛나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실버문화벨트, 노인영화제 등 새로운 시도 적극적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비전은 ‘한국노인복지의 새로운 모형 창출을 선도하는 센터’다. 이곳에서는 노인복지의 새로운 모형 창출을 위해 ‘노인문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센터는 서울시와 함께 탑골공원과 종묘공원 일대를 어르신들의 생활문화와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해 왔다. 이 일대에는 센터를 중심으로 실버 라디오 스튜디오, 탑골 작은 도서관, 설문조사원 탑 리서치, 실버공연장, 어르신 생활용품 전문점, 실버영화관 등이 밀집해 있다.

센터는 2006년 9월 개관 5주년 토론회에서 ‘노인플라자’ ‘한국의 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또한 2009년에는 노인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토대로 ‘실버문화벨트’를 제안했다.

2008년 11월 18일에는 제1회 서울노인영화제를 열었다.

노인영화제에서는 센터의 미디어 교육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물과 전국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을 상영했다. 이 영화제는 미디어를 통해 노인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노인미디어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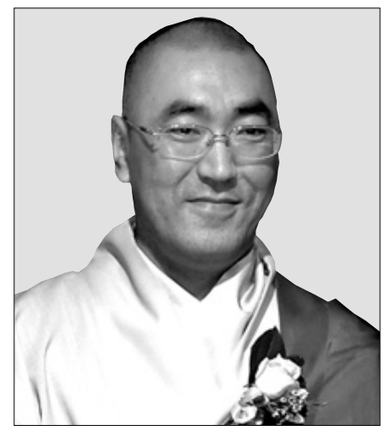
또한, 문화 · 복지 서비스에는 인문학 아카데미, 라디오방송, 문화체험, 각종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인 ‘탑골인 문화사랑’은 문화재 보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활동이다. ‘탑골 사랑 봉사회’는 종로의 거리 환경 개선과 환경보호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박기범 기자

“노인의 사회적 역할 회복할 것”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가섭 스님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역사가 20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절반을 이끌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좋은 프로그램과 복지기법을 선보였고, 다른 기관에 확산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가섭 스님(사진)은 10주년을 맞은 소회에 대한 질문에 자신감 있는 어조로 그동안의 성과를 밝혔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대한 대처, 다양한 사업을 통한 어르신들의 문화적 삶에 대한 지원 등 센터는 지난 10년간 쉴 새 없이 달려왔다. 특히 어르신들의 새로운 문화 형성에 대한 센터와 가섭 스님의 의지는 특별했다.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에서 ‘문화’를 만드는 주인공으로 부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야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가섭 스님은 센터가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여기에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결합시키는 것이 불교계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10년의 세월 동안 센터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 복지에서 실현하려는 의지들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냈고, 다양한 특화 사업을 어르신들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는 불교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센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노인 복지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가섭 스님은 1994년 통도사에서 성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1년 송광사에서 무영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계했다.

옥천범음대학
2010년 동계방학 특강안내

과 목	교 수	기 간	수업요일	수업시간
홍 고	김능화 스님 (영산재 범패 이수자, 범패 박물관 관장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외래교수	2010년 12월 27일 ~ 2011년 1월 24일 (5주)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4시
도량장엄	이경암 스님 (영산재 장엄 준보유자)	2010년 12월 28일 ~ 2011년 1월 25일 (5주)	매주 화요일	
법 고 무	이기봉 스님 (영산재 범패 준보유자)	2010년 12월 29일 ~ 2011년 2월 16일 (6주) * 구정연휴기간 2월2일 ~ 2월9일 제외	매주 수요일	

※ 각 과목별 수업요일과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접수방법 : 특강 수강신청서 1부 (옥천범음대학 행정실)

▶ 접수문의 : 02)392-3234

유네스코 세계무형 문화유산 등재
중요무형문화재영산재보존회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이기봉 합장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교육생 상시 모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li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지부교육원

영남교육원 055-543-3155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교육원 063-288-5623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441-0111	전북익산교육원 063-854-1060	제주교육원 064-755-7588
해운대교육원 051-757-9990	광주교육원 062-672-5432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운덕 대종사, 총무원장 정산 스님, 종의회 의장 도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명이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열린 동안거 제100회 입재식에서 삼귀의를 올리고 있다.



안거기간 수행정진으로 마음자리 찾을 것을 당부하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관세음보살" 정근에 겨울밤은 깊어가고…

천태종 제 100회 동안거 결제 현장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소백산 자락에 자리한 단양 구인사, 늦은 밤중에도 층층이 자리한 법당 마다 관음정근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진다. 천태불자들이 지난 12월 7일 일제히 경인년 동안거 한달 수도에 돌입한 것이다.

한국불교에서 유일하게 출·재가의 안거가 제도화돼 있는 천태종. 추운 겨울에도 각 법당에는 수십에서 수백 명의 신도들이 염불수행에 정진하고 있었다.

결제 이후 천태불자들은 한 달간 꼬박 관음정진과 울력으로 하루를 보내며 주경야선(晝耕夜禪)을 실천한다. 그동안 안거는 스님들의 전통적인 수행문화였다. 이는 어떤 특권의식이나 권위적인 계승의 문제를 떠나 안거 자체가 장시간의 집중을 요구하다 보니 일반불자들이 참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100회를 맞은 이번 동안거에는 단양 구인사에서만 1000여 명의 재가신자들이 방부를 들였다.

결재 첫 날, 각 법당에는 한 달 간 사용할 옷가지 등으로 인해 비좁았다. 이들은 채 1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몸을 누인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안거 기간만큼은 모든 불자들이 승속(僧俗)을 떠나 하나가 됐다. 이들은 모든 지위와 명예의 겉모습을 벗어던지고 삼매에 빠져들었다.

천태종 재가신도 안거는 하루 중 수면, 공양, 휴식 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염불수행이 진행된다.

전국적으로 150여 천태종 사찰에서 안거에 동참한 불자들은 1만여 명에 달한다. 구인사 안거에 동참하지 못한 신도들은 같은 기간 각 지역의 천태종 사찰에서 매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 30분까지 관음정진을 한다.

그 첫날인 12월 7일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0회 경인년 동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결제 법회에서 종정 도용 스님은 "모든 일에 앞서 마음이 청정해야 한다. 마음자리를 바로 찾기 위해 매순간 정진해달라. 이번 안거 기간 동안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 법을 꼭 찾길 바란다"고 법어를 내렸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결제사를 통해 "상월 원각 조사의 진속불이 정신으로 자리한 신도안거는 이제 사상 초유의 수행문화로 자리했다"며 "100회 안거와 상월 원각 조사 탄신 10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대계를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입재식에는 한달 수도 동참자외에도 3일 수도, 1주일 수도로 나눠 단기안거에 들어가는 재가자들이 많았다.

각자 업과 수행을 병행할 수 있게 변화한 안거문화였다.

안산에서 온 김명수(47) 씨는 "안거 기간 모두 있지는 못하지만 매년 짧게나마 동참하려고 오고 있다"며 "안거를 하며 많은 절 일도 해볼 수 있고, 수행을 통해 마음이 편한해진다"고 말했다.

소백산 국망봉을 중심으로 장엄하게 늘어선 봉우리 가운데 연화봉 아래로 펼쳐진 연꽃잎을 연상시킨다 하여 연화지라 불리는 구인사. 관음정진 기도를 올리는 불제자들의 모습은 추운 겨울에 눈꽃대신 핀 환희심이 가득한 연꽃이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 관음정진 기도를 올리는
> 불제자들의 모습은
> 추운 겨울에 눈꽃대신 핀
> 환희심이 가득한 연꽃이었다

안거와 천태종 신도안거

안거(安居)는 음력 4월 보름 다음날부터 7월 보름까지 3개월 동안 한곳에 머물면서 수행에 전념하는 것을 이른다. 안거는 산스크리트어의 '바르샤'를 번역한 말인데, 우기(雨期)를 뜻하며 하행(夏行)·하경(夏經)·하단(夏斷)·하좌(夏坐)·좌하(座夏)·백하(白夏)라고도 한다.

원래 인도에서는 우기인 몬순기에 3개월 동안 비가 많이 오는데, 이때 치러지는 불교 교단의 특수한 연중행사를 안거라 했다.

즉 이 시기에는 바깥에서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나아가 비를 피하기 위하여 초목과 벌레들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에 아예 외출을 삼가고 일정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에 힘쓴 데서 비롯된 것이다. 동안거는 한국·중국·일본 등 북방불교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안거 첫날은 안거의 제도를 맺는다는 뜻에서 결제(結制)라고 하고 푸는 것을 해제(解制)라고 하였다. 또한 안거 중에 죄를 짓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파하(破夏)라고 한다.

안거를 마친 뒤에는 안거중에 죄를 저지른 일이 없었는가를 서로 묻고 답하는 자자(自恣)를 벌였는데, 이 날을 특별히 자자일(自恣日)이라고 한다.

천태종 신도 안거의 전통은 사부대중 모두의 수행정진과 실천행을 강조하는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조사의 새불교운동 정신에서 비롯됐다.

상월 원각 조사는 천태종 개산과 함께 종래 출가자에게만 실시된 안거를 신도들에게까지 확대 실시했다. 천태종은 매년 여름과 겨울 각 한 달 씩 2차례 신도안거를 시행하는데 평시에는 각 지역사찰 월 정기법회 이후 3일에서 5일간 철야정진 관음기도가 실시된다.

천태종 스님들은 재가자 안거를 지도하며 함께 수행하며 신도 동안거가 끝난 뒤 2개월 동안 승려안거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지역사찰 주지 소임과 종단 소임 등을 멈추고 모두 안거에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 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도로표지판에서 사찰이 사라졌다

전주 국도관리사무소, G20 앞두고 숭림사·송광사·선운사·안국사 삭제 물의

전북 주요도로 표지판에 사찰안내표시를 지우고, 인근 지역명으로 표기해 지역 불교계가 반발하고 나서자 황급히 수정에 나섰다.

문제의 도로 표지판은 익산 용안삼거리, 덕용 교차로 지점의 숭림사(보물825호 보광전 보유) 표지 2곳과 완주 송광사(보물1243호 대웅전등 2점) 3곳, 고창 선운사, 무주 안국사 등 주요 국가문화재 보유사찰 표지가 도로 안내 표지판에서 사라졌다. 또 선운산, 내장산 등 명승지의 안내표지도 모두 인근 지역명으로 변경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전주 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토해양부의 공문에 의해 3개월 전부터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도로표지 선진화 계획안에 따라 도로표지 안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로표지사업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표지 선진화 계획안은 △지방 도시 간의 경계 및 시내 진입 후 연속성 확보 △국도에 연결되는 도로의 회전전후 안내의 연속성 확보 △혼란이 우려되는 동음(同音) 행정구역의 명칭정비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 가톨릭 성지인 17번 국도 '천호성지'의 경우 규정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표시돼 있어 전주국도관리사무소측의 주장이 신빙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좌)선운사 표시를 지우고 흥덕으로 고친 흔적이 보인다. (우)전북 완주군 백제예술대학 앞 17번 국도 가톨릭 성지인 천호성지 표시는 규정에 맞지 않음에도 그대로 표시돼 있다.

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담당자는 "G20을 앞두고 서둘러 처리하면서 사후 처리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며 본부에서도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숭림사 주지 지광 스님은 "방문객들이 찾는데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니 안내표지가 사라져 있어 국도관리사무소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현재는 원상복구한 상태다"고 말했다.

전주 국도관리사무소는 숭림사의 경우 원상복구 시켰고, 문화재 보유 사찰의 경우 규정에 맞게 12월 8일까지 모두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ud1080@naver.com

"법정 스님 책은 집안의 상비약"

법정 스님 가르침 호남지역에 전파하는 현 장 스님

"다른 책들은 읽으면 누구에게 주거나 없애는데, 법정 스님 책은 집안의 상비약처럼 두게 된다. 스님 책은 약(藥)같은 존재가 됐다. 자신 마음이 괴롭거나 마음이 아플 때 법정 스님의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최근 법정 스님의 서간과 묵적, 도자기, 편액 등을 모아 전시회와 서적 〈무소유의 향기, 법정스님 선묵집〉을 출간하면서 법정 스님 선양사업을 진행하는 현장 스님(지장왕사 주지, 법정스님기념관)을 만났다.

"법정 스님은 스님이면서 사회적 활동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 메아리는 떠나신 후에 더 크게 울리고 있다. 그 중 저술활동을 통해 무소유의 철학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스님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주변을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

현장 스님은 법정 스님 선양사업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스님은 법정 스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스님의 가르침을 몸소 배우며 실천해왔다. 이 인연으로 현장 스님은 법정 스님에게 배운 삶과 사상을 호남지역에 뿌리내리고자 최근 '법정스님기념관'과 맑고 향기롭게 사무실을 현장 스님이 주지로 있는 광주 지장왕사에 옮겨 본격적인 선양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법정 스님 저술로 독서토론
불일암 다실에서 스님 삶 체험

"다른 종교인들도 스님 책을 보고 자기 종교를 바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고 있다. 일반인들도 스님의 책을 읽고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고 있다. 그래서 스님의 사상을 선양하는 일이 불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법정 스님 기념관에서는 스님의 저술에 대한 독서토론을 통해 삶과 사상을 나누고, 봉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또한 '불임암 다실' '불임알선실'을 조성해 스님의 삶을 체험하고, 사상을 공부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맑고향기롭게는 스님 입적 후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커졌다. 재도약의 기회다"고 설명했다. 그 첫 선양사업이 선묵전 전시회와 서적출간이었다. 스님은 "스님의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반면 지인들에게 써주신 게송, 선시, 편액, 서간문 등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귀한 것이다. 시간이 가면 소멸될 소지가 있어 책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현장 스님은 "책을 보면 종교적인 내용보다는 자연현상, 인간관계, 선시, 게송 등을 통해 후세의 스님들이 법정 스님의 사상을 연구하는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스님은 향후 광주맑고향기롭게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현재 광주지부의 독거노인 도시락지원사업 외에도 장학사업, 임산부에게 명상음악으로 2세들에게 감성을 키우는 육아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소외된 이웃과 현대인에게 다가갈 방침이다.

스님은 최근 '다래헌' 출판사를 설립했다. 이는 적극적인 출판선양사업을 위한 것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hanmail.net

"관람료와 주차비 받지 않습니다"

순천시, 선암사 재산관리 부실 드러나

순천시가 선암사 입장료와 문화재 관리를 세외수입으로 관리하지 않고, 수입과 지출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내부적으로만 결산해 온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순천시의회 이종철 의원은 11월 29일 "순천시가 선암사 입장료 등 수입금 10억여 원을 시 예산 편입 없이 별도장부로 관리한 것은 잘못이다"며 "수십억 원의 수입금에 대한 외부의 감사 기능이 적혀 작동되지 않은 채 시가 임의로 관리하는 것은 심각한 지방자치 훼손이다"라고 지적했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조계종과 태고종간 소유권 분규로 1970년부터 선암사 재산관리를 위탁받아 문화재 관람료와 토지 임대료, 주차비 등으로 연평균 3억 3000만 원의 수입금을 관리하고 있다.

선암사는 12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순천시는 문화재관람료 및 주차비, 선암사 토지에 대한 사용 공금을 밝히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선암사나 조계종에 기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순천시는 현재 주차비와 문화재관람료를 이중으로 징수함으로써 상가번영회 및 선암사 포교와 신도 활성화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2일부터 선암사 관람료와 주차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암사는 "2004년 관광자원개발사업 일환으로 국비와 시비를 들여 개관한 전통야생차체험관이 사찰토지에 건립됐으면서, 조계종과 선암사측의 양해 없이 순천시가 소유권을 갖는 것은 재산횡령이다"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순천시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선암사의 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암사는 2일 추가로 보도자료를 내고 "순천시가 선암사 재산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도선암(순천 상사면 소재) 등이 없어졌으며, 박물관의 부실운영, 문화재를 도난당했다"며 "재산관리주체인 순천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비의 연탄 날아갑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와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12월 3일 광주지역 독거노인세대 70여 세대에게 연탄 1만 4000여 장을 전달했다. 연탄은 본지가 공동주최한 2010 빛고을불교아카데미 수익금과 사찰, 단체, 개인 등 이 뜻을 모아 700여 만원으로 마련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1일 엄마' 만나 따뜻한 하루

결손가정 소년원생들과 명예부모 결연

여수 청암사(주지 지암) 불자들이 조손가정 소년원생들의 대모(代母)로 나섰다.

여수 청암사 어머니회는 12월 8일 법무부 소년보호교육기관 고용정보산업학교(교장 고봉용, 광주소년원) 원생과 명예부모 결연식을 개최하고 '1일 부모'가 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결연식은 평소 교화활동을 많이 하는 지암 스님이 부모가 없는 가정의 학교 원생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서 이를 신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청암사 어머니회 회원 14명은 학생 중 조손가정 아이들 11명과 인연을 맺고, 매월 학교를 방문해 결연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줄 예정이다.

지암 스님은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어머니회원들과 같이 고민도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100원 희망불씨콘서트

부산생명나눔 15일 개최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12월 15일 제5회 '100원 희망 불씨 콘서트'를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봉행했다. 희망 콘서트는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100원 희망 저금통' 행사의 일환으로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적은 돈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서 들어온 저금통 전액은 환우들에게 전달된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선풍기, 믹서기 성공신화 신일산업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각질관리기~!!"
신일이 만들면 모터부터 다릅니다.
비교 거부 유사품주의!! SHINIL 마크를 확인하세요
각질제거기
47년 전통의 신일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기본구성
본체 + 노즐 1개 + 풋크림 1개
추가구성 노즐1개
추가사은품 풋크림1개
99,000원
39,800원
쉽다! 빠르다! 간편하다!
제품기능적 특성(소구점)
• 기존의 각질관리기 보다 힘들이지 않고 자동으로 마른발에 사용하는 간편한 제품(원터치 형식)
• 남녀 노소 계층의 구분없이 두터운 소비계층
• 국내 100% 완제품
• 각 가정마다 손톱깍이 처럼 한 두개씩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 제품
• 환절기에는 발이 갈라짐에 따라 통증이 있음
• 건전지 교체 형식의 반영구적인 제품
• 작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하며 뛰어난 그립감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 사용전과 후의 각질관리 비교가 확실한 제품
• 각질관리후 풋크림 사용시 더욱더 효과증대
• 강력한 모터의 힘과 특수 회전줄의 기술력으로 각질 관리의 효과가 뛰어남
※택배비 2,500원 소비자 부담
평균 6개월 사용 (건전지 교체)
건전지는 별도구매
제조원 : 신일산업 (국산)
SHINIL
구입문의 : 031-454-3110 | ■입금계좌 : 농협 302-0128-3007-71 김원중
☞ 이런분들에게 권합니다. ☜
발, 다리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분들
스타킹을 신을때 자주 올이 나가는 분들
예쁜 발, 자신있는 발을 갖고 싶은 여성분들
출산 후 각질이 많아진 여성분들
겨울철만 되면 발뒤꿈치가 갈라져서 고생하는 분들
하루종일 구두나 신발을 신고 일하시는 분들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배송됩니다.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⑯

선원총림의 조직과 기구(5) - 감원과 유나

감원의 핵심 소임은 상하간 화목

재정과 행정 등 총림 업무 총괄
기강 확립 위해 유나 권한 강화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유나의 의지를 반영하듯 범어사 금어선원의 장삼이 가지런히 정리돼있다.

빈틈없는 재정과 엄격한 기강의 총 책임

감원은 지사(知事) 서열 가운데 1위이다. 주지를 보좌해 총림의 재정과 운영, 서무(庶務), 행정 등을 총괄 · 감독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총무와 재무가 합해진 소임이다.

감원은 원주(院主) · 원재(院宰)라고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사찰의 원주와는 직무가 전혀 다르다. 안 살림을 맡고 있는 오늘날 원주(院主)와 달리 당 · 송 시대 원주의 권한과 직무는 서무 · 행정 면에서 주지 다음이었다.

얼마 전 월정사 주지스님 등과 함께 일본 후쿠이(福井)에 있는 조동종 본산인 영평사를 탐방했다. 이때 외빈을 맞이하는 대표 스님의 직함이 감원이었다. 안내자는 주지와 같은 위치라고 했는데, 영평사에서는 관수(貫首 · 방장격) 다음이라고 할 수 있다.

감원, 주지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

감원의 임무에 대해 〈선원청규〉에는 "감원이라는 직책은 선원 내 모든 일을 총괄한다. 즉 관청에 나아가고 관리나 시주들이 찾아오면 영접하며, 길흉의 경조사, 재정 출입, 회계, 금전과 곡식, 고원(주방) 용품 등 수입 지출을 담당한다(監院一職, 摠領院門諸事. 如官中應副(…)相看施主, 吉凶慶弔, 借貸往還, 院門歲計, 錢穀有無, 支出收入)"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주의 사항으로 "감원 소임의 핵심은 어진 이와 대중을 받들며, 상하를 화목하게 하고 대중이 늘 환희심을 갖게 해야 한다. 권세를 빙자해 대중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라고 환기시키고 있다. 또 주지를 보필할 때에는 "고사(庫司 · 창고)에 재용(財用)이 부족하면 스스로 힘을 다해 대책을 강구하되, 주지에게 알려서 마음을 쓰게 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그 실정을 대중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주지는 참선지도와 공안(화두) 제시, 법거량(선문답), 설법 등 교육을 통해 수행승들이 깨달음을 얻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총림의 살림을 걱정하게 되면 대강(大綱)이 흔들리고, 결국 인천(人天)의 안목이 될 선승을 길러 내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 또한 총림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되면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감원의 책무가 얼마나 막대한지 알 수 있는 구절이다.

총림(선종사원)의 소임 가운데 총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소임으로는 주지 · 수좌 · 감원 · 유나 등 4개의 직책이 있다. 주지는 총림을 대표하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지만 나머지는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

수좌는 좌선 등 교육을 총괄하고, 유나는 기강과 규율을 담당한다. 또한 감원은 서무(사무)와 재정 일체를 감독한다. 수좌와 감원은 총림의 여러 소임 가운데서도 주지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이다.

감원의 명칭과 소임은 총림이 세워지던 백장 선사 시대부터 송대 중기(북송)까지 이어졌다. 남송 때에 이르러 감원의 역할은 변화를 맞게 된다.

남송 때 국가사원 성격인 5산10찰 제도가 생기고, 총림의 규모가 커지면서 감원 혼자서 총림의 재정과 사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감원의 역할은 도사(都寺) · 감사(監寺) · 부사(副寺)로 분할된다.

송대 중기(북송)에 편찬된(1103년) 종색의 〈선원청규〉에는 지사직(知事職)으로 감원 · 유나(기강 담당) · 전좌(典座, 창고, 주방 담당) · 직세(直歲, 건물 보수 관리)의 4지사(知事)가 나온다. 이보다 약 150년 후인 도원(道元, 1200~1253)의 〈영평청규〉에는 도사(都寺) · 감사(監寺) · 부사(副寺) · 유나(維那) · 전좌(典座) · 직세(直歲)의 6지사가 언급된다. 또한 1338년에 편찬된 〈칙수백장청규〉 동서지사장 도감사(都監寺) 항목에서도 〈영평청규〉와 마찬가지로 6지사가 나온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6지사는 1200년대 초(남송 때)에 정형화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선종사원의 직제에는 아직 감원 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

도사(都寺) · 감사(監寺) · 부사(副寺)는 모두 감원에서 갈라진 소임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직무는 도사(都寺)이다.

도사(都寺)는 감원의 여러 업무 가운데서 주로 서무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지금 우리나라 사찰의 총무와 같다고 보면 된다. 감사(監寺)는 감원의 직무 가운데 감독 기능만 독립시킨 것으로서 각 소임의 업무를 감독하는 직책이다. 근대에 감무(監務)라는 소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감사이다. 부사(副寺)는 감원의 직무 가운데서 금전 출납, 쌀, 천, 곡식 관리 등을 맡는다. 다른 이름으로는 부사(副司) · 고두(庫頭 副寺의 고칭) · 궤두(櫃頭) · 재백(財帛) · 부원(富院) 등으로도 불리는데, 우리나라의 재무와 같다. 그리고 도감(都監)이라는 소임은 도감사의 준말로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아직 쓰이고 있다.

기강과 사법담당 유나(維那)

수좌가 교육을 담당한다면 6지사(六知事) 가운데 하나인 유나는 기강과 사법(司法)을 담당한다.

유나를 '차제(次第)' 또는 '열중(悅衆)' 이라고도 한다. 차제란 순서를 뜻하고 열중이란 대중을 기쁘게 한다는 뜻이다. '유나' 라는 직함에 얽매여 기강을 잡는데 치중하면 대중들은 경직될 수밖에 없다. 경직된다면 대중생활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기쁘게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열중(悅衆)이라고 한 것이다.

〈선원청규〉 유나 장에서는 유나의 직무에 대해 "범어로는 유나, 우리나라(중국)에서는 열중(悅衆)이라 한다. 유나는 대중의 일(행동거지)을 관장한다. 새로 입방 하려는 자에 대해 사실 여부를 조사 ·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승당 내 모든 물품을 관장하되 모자라는 것이 있을 때에는 고사(庫司, 창고 담당, 부사)에게 알리고, 부서진 것은 직세(直歲, 건물 관리 보수 담당)에게 의뢰해 보완 · 충당토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선원청규〉에는 또 "병승(病僧)이 있으면 연수당(延壽堂, 열반당) 담당자(간병)에 알려서 조처하도록 하고, 당두시자(방장시자), 연수당주(열반당 책임자), 로두(爐頭, 화로 담당), 중료의 요주(寮主)와 각 전각 관리자(=殿主) 등 소직(小職)에 대한 임명 제청도 모두 유나가 관장한다. 만일 승당 내에 분쟁 등 큰 일이 생기면 당두(주지)에게 알리고 작은 일은 유나가 규율에 의해 처리한다. 승당 내에 분실물이 발생해 피해자가 수색할 것을 요청하면 대중에게 알리고 수색하되, 수색한 결과 분실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의뢰한 당사자를 승당에서 추방하거나 전출시킨다. 가능한 화해를 시켜 소란스럽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중책 수행
공동체 생활 속에서 대중을 먼저 생각

유나는 대중 가운데 규율을 어기거나 규율을 어기고도 참회하거나 승복하지 않을 때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추방할 수 있었다.

예컨대 주지가 공무(公務)로 바빠서 보청(울력)에 나오지 못할 경우 대신 방장실 시자가 나오게 돼 있는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방장 시자를 추방, 문초, 전출 시킬 수 있다. 실제로 방장실 시자까지 추방이나 전출 시킨 사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청규에서는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많은 대중들이 함께 기거하고 수행하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기강과 규율 · 사법(司法)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총림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유나의 권한을 강화시킨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나는 청규 내용과 규칙을 잘 알고 있어야 했다. 그래야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법규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화합과 화해를 더 중시해 문제가 생기면 양자를 종용해 화해하도록 했다. 법 적용은 최후의 수단이고 그에 앞서 화합과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나의 능력일 것이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changhwa9@hanmail.net

현지사 소개
그 아홉번째 주제
- 석가탑 -

영산불교 현지사 '석가탑' 건립 - 내년 사월 초파일 점안
영산정토 영산궁의 '석가탑'을 재현하다

삼계의 법왕이신 석가모니부처님과 탑을 솟아
그 법을 증명하신 다보부처님
두 부처님의 실존(實存)과 법(法)의
진실을 증명코자 두 탑을 세우다

◆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 정토, 그곳의 무량광 빛의 탑을 이곳에 재현하다
현지사에서는 세계 최초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정토에 있는 빛으로 된 석가탑을 규모만 줄여서 그대로 재현하고자 합니다. 이 탑은 높이 10m 내외의 8각형 정자 형태로 조성되고 다보탑과 더불어 정법도량 현지사를 상징하게 됩니다. 내년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날 봉축 10만등 불사를 봉행하면서 점안식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 세상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는 미증유한 탑
인도와 중국, 미얀마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는 부처님을 기리는 많은 탑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불국사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하는 석가탑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국사의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토에 있는 탑과는 그 모습을 달리하며 점안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현지사에서 조성하는 석가탑은 이와 달리 부처님 세계의 탑을 그대로 재현할 뿐만 아니라 붓다에 의해 점안됨으로서, 실제의 탑과 직접 연결(link)되게 된다는 점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탑입니다.

◆ 석가탑건립의 의미 - 부처님의 실존과 부처님 회상임을 상징
현지사에서 석가탑을 건립하는 것은 현지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회상이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화경 여래수량품〉에서 말씀하신 바처럼 "방편으로 열반을 보일 뿐 진실로는 멸도하는 일이 없으며", 지금도 현지사에서 두분의 제자와 함께 위없는 법륜을 굴리고 계십니다. 현지사는 가섭과 아난, 당신의 두 제자를 보살피기 위해 부처님께서 상주하시는 붓다 회상임을 석가탑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불법 - 무너질 수 없는 영원한 진리.
석가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法) - 연기의 이법, 사성제 팔정도, 업과 윤회 및 해탈 · 니르바나(Nirvana)의 세계, 칭명염불 수행법 - 을 상징합니다. 이 진실한 법이야 말로 동서고금을 넘어 온 우주 법계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특히 팔각의 석가탑은 사각의 다보탑과 함께 각각 팔정도 사성제를 상징하는 법의 상징물입니다. 〈법화경 견보탑품〉에서 다보여래께서 출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현지사에서 석가탑과 다보탑을 나란히 조성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 국가적 보물이며 인류의 문화유산인 현지사 석가탑
이제 현지사의 진정한 정법 불교가 세계로 퍼져 나간다면 이 보물들의 가치를 세상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법신체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을 중심으로 좌우로 모셔진 석가탑과 다보탑은 현지사의 보물이자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 현지사 출간 서적 목록 -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16쇄 I 371면 I 25,000원) 한국어판 · 영어판 · 일본어판
2.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 (385면 I 25,000원) 한국어판 · 영어판 · 일본어판
3. 영혼체 윤회론 (158면 I 10,000원)
4. 영산불교와 본문묘법연화경 (381면 I 25,000원)
5. 관음태교 (187면 I 10,000원)
6. 관음태교에서 천도까지 (311면 I 15,000원)
7. 붓다의 메시지 존평 (506면 I 15,000원)
8.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요해 (269면 I 15,000원)
9. 칙천무후 (238면 I 15,000원)
10. 영산불교의 법세계 (80면 I 10,000원)
11.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489면 I 15,000원)
12. 비교종교학 (537면 I 25,000원)
13. 법문집 (1~10권) 재발간 예정
14. 신불교사상 (193면)
15. 신불교학개론 (65면)
16. 반야심경강의 (134면)
17. 영산불교 사상에 대한 기자와의 인터뷰 (47면 I 소책자)
18. 신불교사상의 실체를 파헤친다 (42면 I 소책자)
19. 부처님이 주관하시는 천도대재 (32면 I 소책자)
20. 행복으로 가는 길 (22면 I 소책자 I 만화본,사진본)
21. 지역 팀장을 위한 수지교본 (47면)
22. 자재만현 큰스님과의 대화 (145면)
23. 법령집 (74면)
24. 21세기 그랜드 비전 (65면)
25. 108 대참회문
26. 영산 1, 2

※ 자재만현 큰스님 BBS TV 법회 절찬리 방영중!! 18일 오전 10시, 19일 오후 10시 특별 편성 방송 (QOOK 550, BTV 521, U+108번)

현지사 대법회 - 매월 음력 8일, 23일 http://www.hyonjisa.com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033)243-1787,1795 / 대전 분원 042)525-5325, 5345 / 부산분원 051)554-5150

출입문에서부터 자력수행 강조하는 대웅전

덕숭산 수덕사

수덕사는 덕숭산 아래에 있는 사찰입니다. 아름다운 계곡과 기암괴석이 조화를 이뤄 호서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덕숭산은 예산읍에서 서쪽 20㎞ 방향의 덕산면 사천리에 솟아 있습니다. 해발 580m의 덕숭산은 주변에 있는 가야산(해발 677.6m)보다 낮지만 백제 위덕왕 때 지어진 수덕사가 있는 탓인지 명산으로 꼽히는 산입니다.

도립공원인 덕숭산은 기암괴석이 많아 바위가 언뜻 보면 사람의 두개골이나 입을 벌리고 있는 맹수의 형상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소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벚나무 등이 많아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원효봉, 석문봉, 해태바위가 절경으로 꼽히며 수덕사 이외에도 정혜사, 보덕사, 만공탑 등 문화재도 많고 덕산온천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등산 코스가 길지 않아 가족 단위 등산객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덕숭은 덕을 숭상한다는 뜻이며 수덕사는 덕을 닦는 사찰이라는 의미입니다. 수덕사에서 닦는 덕은 대웅전 마당에서 내려다보이는 전경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전경은 흡사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내려다보이는 전경과 마찬가지로 무한히 뻗은 산줄기를 한눈에 바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경을 신라 시대 부석사에서는 화엄 또는 극락이라고 표현했고, 법화사상적 배경을 가진 수덕사에서는 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제 위덕왕 때 지명 법사 창건

수덕사는 백제 위덕왕(554~597)때 지명 법사에 의해 창건됐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지명 법사가 신라 승려이기 때문에 지명 법사 창건설에 관한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삼국유사〉와 〈속고승전〉에서 601년 백제 무왕 때 혜현 스님이 〈법화경〉을 지송하고 삼론을 강연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 수덕사가 백제말에 사격을 갖춘 가람이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삼국유사〉에는 혜현 스님에 대해 "백제 사람으로 어려서 출가하여 〈법화경〉을 외는 것으로 업을 삼았으며, 부처께 기도하고 복을 청해 영험한 감응이 실로 많았으며 삼론을 배워 수도를 시작하니 신명에 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볼 때 수덕사는 창건 당시부터 법화신앙에 따라 석가모니불을 주불전으로 갖춘 사찰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덕사의 명칭과 창건에 관해서는 재미있는 수덕각시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통일 신라 때 가람이 퇴락해 중창불사를 해야 하는데, 젊은 여인이 불사를 돕기 위해 공양주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미모가 빼어나 수덕각시라는 별칭이 생겼고, 수덕각시의 미모를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신라 재상의 아들인 정혜가 청혼을 해오자 수덕각시는 불사가 성사되면 혼인하겠다고 약조합니다. 그래서 정혜는 10년 걸릴 불사를 가산을 보태 3년 만에 끝내고 낙성식을 하게 됐습니다. 낙성식 후 정혜는 수덕각시에게 같이 떠날 것을 청했고, 수덕각시는 옷을 갈아입겠다고 방에 들어가더니 기척이 없었습니다. 정혜가 문을 열어보니 수덕각시는 다른 방으로 사라지려하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급히 수덕각시를 잡으려 하자 옆에 있던 바위가 갈라지더니 수덕각시는 버선 한 짝만 남기고 바위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후 바위가 갈라진 틈에서 봄이면 버선모양의 버선 꽃이 피는데 관세음보살의 화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이 절의 이름을 수덕사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수덕사에서는 전설을 믿고 관세음보살 가피를 받기 위해 기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최근에는 관음상을 봉안하게 됐습니다. 대웅전 서쪽 백련당 뒤편에 있는 바위가 바로 관세음보살이 현신했다고 전해지는 바위입니다.

완성도 높은 백제의 건축 양식

수덕사의 백미는 국보 제49호인 대웅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주위 산세와의 조화나 단정한 품새는 백제가 가진 불교 신앙세계를 완성도 높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 때 창건된 건물로 1308년(충렬왕 3년)에 지어졌습니다.

수덕사 대웅전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대웅전 중에서 가장 정형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을 살펴보면 정면 3칸, 측면 4칸 규모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일반적 건물입니다. 기둥 위에만 공포가 올라가는 전형적인 주심포 양식이며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 백제 건축의 아름다움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정제된 장대석 축대 위에 올라가 있는 대웅전은 법왕으로서 권위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뒷산 높이에 맞춰 건축물을 조성해 마치 숲이 병풍처럼 대웅전을 둘러싸고 있는 듯합니다. 맞배로 조성된 지붕은 정면에서 볼 때 수수하면서도 광채가 나는 고귀한 여인네 같은 성스러움마저 느끼게 합니다.

수덕사 대웅전의 문은 밀어서 여는 문입니다. 이는 들어오는 수행자가 스스로 문을 미는 행위를 통해 자력완성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은 자신을 성불로 인도하는 길잡이요 안내자일 뿐이라 하며, 성불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수덕사 대웅전의 문은 스스로 수행을 통해 들어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밖으로 당기는 문인데 안에서 보면 밖으로 밀어서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행자를 위해서 부처님이 문을 열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웅전은 석가불을 중심으로 우보처에는 아미타불을, 좌보처에는 약사여래불을 봉안해 3존불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은 좌우 보처불과 구별해 조금 더 높은 단을 만들어 주불임을 표현했으며 손 모양이 왼손을 무릎 위에 두고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내려 땅을 가리키는 촉지수인을 하고 있어서 석가모니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옷은 양어깨를 다 덮는 통견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한쪽 어깨를 드러내는 우견편단의 형식은 법을 설하는 모습의 표현이고, 통견 형식은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모습의 표현입니다.

부처님 당시 제자들이 부처님께 법을 청할 때 오른쪽 어깨를 들어내는 예를 취했는데 이를 통해 불상에서 우견편단의 모습은 법을 설하는 모습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양쪽 어깨를 다 덮은 모습은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푸는 모습으로 해석합니다.

약사불과 아미타불 또한 머리 모양, 얼굴 형태, 귀 · 눈 · 입 · 코의 표현, 양손과 옷 주름선의 사실적 묘사에서 본존불과 동일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보처 아미타불은 구품수인 중 하품 중생인을 취해 법을 설하는 수인을 취하고 있으며, 좌보처 약사불은 약 그릇을 들고 있어 약사여래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약사불 좌측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이 서 있고, 아미타불 우측에는 실천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이 서 있습니다.

당목 전통 따른 종각 조성

중국 전설에 용생구자(龍生九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용이 성격이 각기 다른 9마리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에서 소리 지르는 걸 좋아하던 포뢰(蒲牢)라는 용이 있습니다. 이 포뢰가 종의 윗부분을 장식하는데 쓰이는 용입니다.

이와 관련 〈삼국유사〉에는 "종은 모두 각(閣)과 포뢰가 있고 고래로 당(撞)을 삼았다(皆有閣有蒲牢 鯨魚爲撞)"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성호사설〉에는 "바닷가에 있는 포뢰라는 짐승은 천성이 고래를 두려워한다. 매양 무엇을 주어 먹을 때에 고래가 물결 위로 뛰어 오르면, 포뢰는 몸둥이를 움추리면서 우는데 그 울음이 큰 북소리처럼 웅장하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한국 종의 상륜부에 올라가 있는 용이 포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포뢰를 울리기 위해서는 고래 모양의 당목이 있어야 구색이 맞습니다. 현존하는 한국의 많은 종들에서 고래 모양의 당목 전통이 사라지고 실용적으로 종을 치기 좋게 만든 반면에 수덕사 종각에는 고래 모양 당목을 조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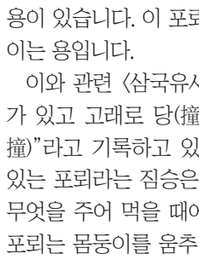
한편 종각 맞은편에 있는 수덕사 법고각에는 사찰에서 일반적으로 보기 어려운 특이한 형태의 사물이 조성돼 있습니다. 거북이처럼 생긴(연으로 추정)동물 위에 올려져있는 법고를 비롯해 특이한 구름 모양의 운판과 화려한 용으로 변신한 목어가 있습니다. 수덕사 종각의 고래 당목은 맞은 편 법고각과 함께 수덕사의 명물입니다.

원래 종은 수행자를 위해 하늘의 천인들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본존 석가모니불 가르침에 따라 자력완성의 목표를 위해 결사 정진하는 수행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수덕사 대웅전은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 백제 건축의 아름다움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창건 당시부터 석가모니불 주불로 신앙구축
수덕각시 전설로 방문객 늘어 관음상 봉안



글 · 사진 한지유 mytra@naver.com
한국생활문화연구소 소장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문화재 강사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빚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원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 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 게 : 25kg

•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45>

마음을 비워라 그것이 자조다

〈自照〉

학승이 물었다.
"공겁(空劫) 중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이 그 속에 앉아있어."
학승이 말했다.
"어떤 법을 설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가 물은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問 空劫中阿誰爲主
師云 老僧在裡許坐
學云 說什麼法
師云 說你問底

공겁은 성겁(成劫)·주겁(住劫)·괴겁(壞劫)·공겁(空劫)의 네 겁 중에 마지막 공겁을 말한다. 우주는 만들어지고, 머물고, 파괴되고, 비워지는 네 단계를 거쳐 순환 반복한다. 우주가 무너지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텅 빈 상태로 있게 되는데 그것이 공겁이다. 공겁이 지나면 다시 성겁이 시작되어 우주는 순환한다.

여기서 조주 스님은 공겁을 시간 적인 것보다 직접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선적이다. 즉, 조주 스님에게 있어서 공겁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조주 스님은 우주의 진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우주는 항상 비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주가 원래 그러하듯 자신의 마음도 영혼도 덩달아 비워졌다. 그날 이후부터는 언제까지나 공겁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다.

공겁 중에 조주 스님은 그 누구, 어떤 사상이나 감정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공겁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누가 물으면 대답해 주고, 묻지 않으면 조용히 심심한 것도 잊은 채 선정 삼매에 들어가 있으면서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옛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비어있는 빛은 스스로 비춘다[虛明自照].' 라고 했는데 스스로 비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남이 비추는 것이 아니야."
학승이 말했다.
"비추지 못하는 곳은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네가 말에 떨어진 것이야."

問 承古有言 虛明自照 如何是自照
師云 不稱他照
學云 照不著處如何
師云 你話墮也

허명(虛明)이라는 말은 '빔의 빛'이다. 빔의 빛은 자비, 사랑, 용서, 화합, 지혜, 창의적 발상 등이다. 만약 마음이 비어있지 않고 무엇인가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갈림이 되어 빛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없는 사랑이나 이해도 '빔'에서 시작되고, 자기만의 특별한 아이디어나 발상도 '빔'에서 나온다. 이것이 바로 허명자조(虛明自照)이다.

허(虛)라는 말은 비었다는 말이다. 빈 허공에 있는 빛은 비추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처럼 마음도 허공처럼 비워졌다면 이 세상 어디고 비추지 못할 곳은 없다. 범죄도, 이기심도, 추악함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빛이요, 자조(自照)이다. 그러나 마음에 조금의 분별이라도 있다면 도저히 용서되지 못하므로 자비나 사랑은 불가능하게 된다. 마음에 분별이 있으면 빛은 없다. 자조(自照)는 누가 비추게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빛난다. 마음이 비워진 사람은 세상 어디도 다 볼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 비출 수 있다. 이것이 자조(自照)이다.

비추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참으로 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 말만 비웠다고 하고 마음 한쪽은 여전히 미움, 분노, 시기, 탐욕, 어리석음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을 조주 스님은 '말에 떨어진 사람'이라고 했다. 허명(虛明) 자체가 빔의 빛인데 마음이 비워졌다면 어찌 비추지 못할 곳이 있단 말인가. 그러하니 말에 떨어지지 말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가장 적합[的]할 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야."

問 如何是 的
師云 一念未起時

적(的)은 적합하다, 적당하다, 지당하다, 맞다 등의 뜻이 있다. 여기서는 적합으로 번역해보았다. 인생사에서 가장 적합하고 참된 시점이 언제일까? 조주 스님은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야"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간단하지만 심오하다.

모든 의미, 개념은 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선악에 대한 정의나 부처와 중생의 차이도 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류의 개념들이 다 진실일까? 그렇지 않다. 이 개념들은 모두 사람들의 약속일뿐이다. 절대적 선(善)은 없다. 우리는 다만 오늘 이 시점까지는 불합리해도 그 선을 따르는 것이다.

악(惡), 절대적 악은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 악이 오히려 선(善)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선악은 없다. 선악으로 인간을 미워하거나 평가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 죄를 진 자도 부처이고, 선을 행한 자도 부처이다. 마음에서 선악의 개념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진실과 부합할 때이다.

마음에 분별 없어야 어리석음 사라진다
선악·부처·중생 모두 마음에서 지은 것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법왕(法王)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주(州)의 대왕(大王)이다."
학승이 말했다.
"화상은 대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자네는 모반하는 의심을 지어서 한 왕을 부인하는 거야."

問 如何是法王
師云 州裡大王是也
云 和尚不是
師云 你擬造反去都來 一箇王不認

석가모니불은 진리의 왕이라 하여 당시 왕들이 법왕(法王)이라고 불렀다. 그 뒤로도 훌륭한 선지식을 법왕이라고 불었던 흔적이 여러 곳에 있다. 사람의 왕은 대왕(大王)이지만, 사원의 방장 정도라면 당연히 법왕(法王)으로 불리 울만하다.

그러나 조주 스님은 인(人)의 왕인 대왕(大王)이 곧 법왕(法王)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사람이 곧 부처라는 철저한 사상에서 나온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운명적으로 부처이다. 그가 대왕이라면 그가 곧 법왕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나라에는 두 왕이 있을 수 없으므로 둘이라고 하면 모반이 된다는 것이다. 조주 스님은 자신을 몹시 낮추면서 한 말이지만 그 말에는 확실한 선적 사상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㉕

한산시집(寒山詩集)

천태산 세 둔세은자의 시 채집

〈遁世隱者〉

〈한산시집〉은 언제 성립됐는지, 또 한산이라는 인물의 실재 및 생몰 연대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록이 없이 다양한 설만 제기돼 있다. 〈한산시집〉은 당나라 태종의 정관치세에 절강성 태주의 조의태부(朝儀太夫) 사지절(使持節) 태주제군주(台州諸軍主) 자사(刺史) 상주국(上柱國) 사비어대(賜緋魚袋) 여구윤(閭丘胤)이 도교(道翹)라는 스님에게 한산의 시를 채집할 것을 명해 그것을 편집한 것으로 8~9세기에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이 당 말기 오대 시대부터는 여기에 습득(寒山)과 풍간(豊干)의 시가 첨가되어 전하다가 송대에는 현재와 같은 〈한산시집(寒山詩集)〉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됐다. 〈당서문예지〉에서는 이미 7권본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볼 수 있는 텍스트는 송대 이후의 것으로 6종이 있다.



한산습득도 (寒山拾得圖) /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

한산·습득·풍간의 시 386수
문수·보현보살 화신으로 추앙

한산자(寒山子)는 천태 당흥현의 서쪽 70여 리 되는 곳의 바위굴에 숨어살면서 스스로 한산(寒山)이라 칭하면서 홀로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다고 전한다. 한산은 국청사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절에는 습득(拾得)이라는 스님이 공양주로 있었는데 잔반과 채소 졸가리 등을 대나무 통에 담아두었다가 한산에게 주었다고 한다. 한산은 대나무통을 짊어지고 긴 회랑을 천천히 소요하면서 유쾌한 듯이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크게 웃기도 하다가 어디론가 떠났다고 한다. 그들은 털모자를 뒤집어쓰고 헤진 옷을 걸치고 나막신을 신었다. 때문에 마치 은자로서 안빈낙도하면서 번거로운 세속을 벗어나서 불도를 깨치고 중생구제를 위하여 화광동진(和光同塵)하는 화현보살로 간주되기도 했다. 그래서 한산은 문수보살의 화현이고 습득은 보현보살의 화현으로 불리우기도 했다. 또한 국청사에는 풍간이라는 선사가 있었는데 세속을 초탈한 고덕이었다. 이들 세 사람을 예로부터 둔세은자(遁世隱者)의 성현으로 추앙해왔다.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여구윤이 태주로 부임해 가는 길에 풍간을 만나서 "이 지역에 스승으로 모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묻자 풍간이 말했다. "국청사에 가면 한산이라는 문수보살의 화신이 있고, 또 습득이라는 보현보살의 육신이 계시는데 모두 형모는 초췌하지만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여구윤이 부임해 풍간선사를 찾았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는데 방안에는 단지 호랑이 발자국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부엌에 가보니 아궁이 앞에 이상하게 생긴 두 사람 곧 한산과 습득이 불을 쬐면서 담소를 하고 있었다. 여구윤은 그들을 보고 바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두 사람은 "풍간이야말로 미타불이었는데 그를 몰라보고 도리어 우리한테 예배를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는 절을 뛰쳐나가 버렸다.

두 사람은 다시는 국청사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명령을 받은 관리가 한산의 바위굴을 찾아서 법의 두 벌과 향과 약품을 공양하자 한산은 큰 소리로 "들어오지 말라,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더욱 깊은 곳으로 몸을 숨기고는 "그대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정진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는 말을 남기자 바위굴이 저절로 닫혀버렸다. 습득의 경우도 이후의 소식과 전기가 없이 다만 몇 수의 시만 남겼다고 한다.

이리하여 그들이 마을의 민가 및 관청의 벽, 석벽 및 나무 등에 새겨 두었던 시가 채집됐다. 한산의 시 가운데는 스스로 610수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약 311수가 채집됐다. 때문에 씌어진 순서도 없고 연대도 분명하지 않다. 한산의 시와 더불어 습득이 토지당의 벽에 써놓았던 70수와 풍간의 5수가 권말에 수록됐는데 이것이 곧 〈한산시집〉이다. 이로써 〈한산시집〉은 천태산에 숨어살았던 한산(寒山)·습득(寒山)·풍간(豊干)의 시라는 의미에서 〈삼은집(三隱集)〉이라고도 한다.

〈한산시집〉의 내용은 물외에 초탈한 안빈낙도의 삶과 세속적인 분별을 벗어난 선적인 기지 및 내면의 진실이 자연물에 투영해 두두물물이 모두 깨침의 그림자와 같다는 조사선풍의 풍모가 물씬 드러나 있다. 때문에 한산시대로부터 300여 년 후 송대에 황룡의 회당조심(晦堂祖心)이 태사(太史) 황산곡(黃山谷)의 거사에게 〈한산시〉에 화운(和韻)을 붙일 것을 부탁드렸지만 거사는 열흘이 지니도록 일구도 짓지 못하고 "만약 내가 십 년을 더 공부한다면 도연명을 따라잡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태어난다 해도 한산시에는 도저히 따라붙을 수가 없구나"라고 말했다. 이처럼 송대의 두자미(杜子美)라고 칭송받았던 황정견(黃庭堅)마저도 혀를 내둘렀다고 전한다.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일주일 철야 정진법회 안내



본 보림선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동계 철야정진 법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보림선원 일주일 철야정진 법회는 백봉선생님께서 확철대오 하신 후 본격적인 대중교화를 펴실 때 학인들을 개오(開悟)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실시 하셨으며 입적 후에도 철야정진을 놓치지 말라는 유훈에 따라 제자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세속에서 맺어진 생업을 가지고 혈연을 돌보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인들이 일주일 철야 정진 기간 동안 좌선과 설법을 통해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하시어 많은 공부인을 양성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선생님의 공부 방편을 그대로 계승하여 현재까지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일주일 철야정진 기간동안에는 백봉선생님의 육성법문과 불교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 마련을 위해 백봉선생님의 법문 녹취집을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아 래

■ 일 시 : 2010년 12월 29일(수) 오후 8시부터
2011년 1월 4일(화) 오전 7시까지
■ 장 소 : 보림사 선방 (서울 종로구 부암동 185-30)
■ 회 비 : 일반 10만원 ■ 준비물 : 간편한 참선복,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 : 010-6332-4096
■ 교통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 모든 초록버스 이용. 하림각앞 하차.
5호선 광화문역 2,3번 출구 교보빌딩 앞 초록버스 탑승. 하림각앞 하차.
(초록버스 : 0212, 1020, 1711, 7016, 7018, 7022)
*하림각 오른쪽 담을 따라 100m 올라와서 중앙하이츠에서 우회전 지장암 근처

보림선원 서울지부 청봉 합장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0. 12.18(토) 오후 1시 부터 ~ 12.19(일) 오후 6시 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

지리산 연암토굴 **도현 스님**

위빠사나는 '조용히 노는 방법'



도현 스님은 … 범어사에서 덕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 출가 후 송광사, 쌍계사, 범어사, 태안사 등 전국의 선방을 돌면서 수행. 한때 쌍계사 금당선원의 선덕을 지냈다. 5년간 태국에서 위빠사나 수행공부를 했다. 지금은 16년째 지리산 연암토굴에서 홀로 수행정진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조용한 행복〉이 있다.

마당에 내려앉은 햇살, 석란 한분, 휘파람새 울음소리, 달빛이 어린 뜰, 파초 잎에 떨어지는 빗소리, 돌수각에 떨어지는 물소리, 연못의 하얀 연꽃 두어 송이, 시식돌 위에 내려앉는 산새들, 눈 내리는 소리, 찻물 끓이는 소리,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시간, 검은 밤하늘의 빛나는 별빛, 3평짜리 오두막집, 차곡차곡 쌓아둔 땔나무. 이러한 것들은 도현 스님이 좋아하고 귀히 여기는 것들이다.

지리산자락에 터를 잡고 있는 연암토굴에 들어서면 '작은 것들이 내뿜는 아름다움'에 압도당한다. 작은 것들이 와락 가슴에 담기어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된다. 3평짜리 작은 집에 작은 연못, 손바닥만한 수각, 그리고 검은 고무신 한 켤레가 놓인 작은 섬돌이 눈에 들어온다. 누워서 만세 부르기도 어려운 가로 다섯 자 세로 여섯 자짜리 방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다. 작은 불단이 방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은 법당이자 스님의 거처이다. 연암토굴에 머문 세월이 16년째이니 등잔불 하나에도 스님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하게 윤이 난다.

도현 스님은 한국불교의 전통적 수행법인 간화선과 남방불교의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모두 섭렵한 수행자다. 출가 후 수십 년간 '이뭣고'를 화두로 잡아 수행했다. 안거기간은 말할 것도 없고 산철에도 좌복 위에서 화두를 타파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마음에 '부처님도 이 뭣고를 염(念)했었을까?'라는 의문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어떤 수행을 하셨는지 궁금했다. 초기불교의 원형이 남아있는 남방불교 국가중 하나인 태국으로 건너갔다. 그때가 1986년이었다.

넓은 숲속에 자리 잡은 사원에는 스님들의 거처인 작고 소박한 구띠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구띠란 원두막 같은 집으로 작은 방 하나에 샤워가 가능한 조그만 화장실이 딸려있으며 태국에서는 스님들에게 한 채씩 배정된다. 부처님 재세 시 숲속 수행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도현 스님은 태국에서 다섯 해 동안 위빠사나 수행공부를 했다. 그때 머물렀던 구띠를 뼘으로 재어 와서 그대로 지은 것이 연암토굴이다.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궁금증이 더해간다. 먼저 큰 집에 사는 것을 욕심내어 본 적은 없었는지 여쭈었다. 그러자 스님은 "이 집이 작게 느껴집니까?"하고 되물었다. 스님은 3평짜리 오두막이 자리 잡고 있는 지리산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큰집을 동경하지 않는다고 했다. 말없이 앉아서도 남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향적여래를 모시고 산다는 스님은 '자연을 의인화한 것이 바로 향적여래'라고 생각한다. 부처님께서 수행자 시절에 이보다 더 좁은 동굴에서 더 열악한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인도여행을 하면서 확인했기에 오히려 넉넉하게 느껴진단다.

"어떻게 하면 집을 작게 짓느냐를 고민했지요. 전 이렇게 조용하고 조촐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꿈을 가지고 있으면 꿈에 상반되는 장애물이 생겨나요. 하지만 꿈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좋은 조건을 버려야만 내 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은사스님은 병석에서 유언처럼 열 명의 상좌 중 맏상좌인 도현 스님에게 주지직을 맡기고 싶어 했다. 도현 스님은 절대로 주지직을 맡지 않겠다고 결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은사스님이 서운해 했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웠다. 큰 집에 살 인연이 생겨나도 조촐하고 조용하게 사는 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에 '세상의 뜻과는 거꾸로 사는 것이 수행자'라는 성철 스님의 말씀이 스쳐지나갔다.

스님은 '그 무엇도 하지 않고 그 무엇도 되지 않는 삶,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어렴풋이 느끼면서 아직 한 가지도 놓아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무위의 삶에 대해

좋다 싫다 즐겁다 값 매기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구나
지켜보는 것이 사띠이고 위빠사나 수행

한국불교는 통불교 지향하는 위대함
수행방법의 우열을 다지는 것은 무의미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쓰는가 더 중요

"장미는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한다. 장미는 피어있기 때문에 피어있는 것이다. 장미는 자기 자신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장미는 누가 자기를 보는지를 묻지 않는다"라고 어느 현자가 노래했듯이 도현 스님 또한 그러한 삶을 누리고 싶은 것이다.

스님의 출가동기가 궁금하여 여쭈었더니 "큰 뜻이 있어 출가한 것이 아니고 배고픔을 면하려고 출가했다"면서 웃었다. 부산 청학동에서 꽤 큰 부자로 살았었는데 할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전답과 집이 모두 은행으로 넘어가버렸다.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으니 그 고통이야 오죽했겠나 싶다. 한창 먹을 열여섯 나이에 사흘을 내리 굶어보기도 했단다. 그때는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소원이었다.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던 인연이 있기도 했지만, 절에 가면 굶지 않는다는 말에 두말하지 않고 따라 나선 길이었다. 그때는 절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밥을 굶는 일은 없었다. 스님은 "출가할 때 하루 밥 세끼 먹는 것이 소원이었으니 그 외의 것은 전부 덤"이라고 한다.

도현 스님은 지금도 안거 때에는 큰 절 선방에서 대중들과 함께 좌복 위에 앉는다. 안거가 끝나면 다시 연암토굴로 돌아온다. 출가하여 수행자로서 살아 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 25년은 간화선을 했고, 20년 넘게 위빠사나를 하고 있다. 간화선이 주종을 이루는 한국에서 위빠사나 수행자에 대한 홀대는 없는지 여쭈었다.

"위빠사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고, 세월이 흐른 만큼 위빠사나 수행자도 많아졌어요. 한국불교는 통불교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떤 수행법도 다 수용하는 것이 한국불교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성불하자는 궁극은 같아요. 수행방법의 우열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마음씀씀이를 어떻게 쓰는 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띠는 알아차림 늘 깨어있는 마음인데, 사띠만 있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위빠사나이다. 간화선이 화두로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고, 위빠사나는 사띠로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한 편의 예술행위요,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의 행위는 연출에 해당한다. 사띠는 연출하는 나를 지켜보는 감독관인 것이다. 즉 여기저기에서 자기 마음을 편드는 심판관이 아니라 관찰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지나치게 해야 합니다. 한 번 떠오르는 상념들은 되돌려 보낼 수도 붙잡아 둘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상념들이 떠오르지 않도록 막을 수는 도저히 없어요.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켜 볼 뿐이지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대해 '좋다 싫다, 즐겁다 괴롭다'라고 값을 매기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구나 하고 지켜보는 것이 사띠이고 이것이 위빠사나 수행입니다."

나를 객관화해서 보는 것이 위빠사나이다. 일상에서 호흡을 가지고 잘 익혀놓으면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알아도 저절로 알아차리게 된다. 사띠만 된다면 지금 차 마시는 것도 일상생활 그 자체가 위빠사나 수행이란다.

일반적으로 수행이란 엄격하고 힘든 일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조금만 힘을 얻으면 현재의 순간을 즐거운 마음으로 누릴 수 있단다. 스님은 참선 혹은 위빠사나를 두고 '조용히 노는 방법'이라고 하며 이러한 수행은 '스스로 만드는 행복'이라고 한다. 아무리 바빠도 숨 쉴 시간은 있으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지켜보란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권의 저서가 출간된 '아잔 차' 스님을 친견하였는지 여쭈었다.

그 당시 아잔 차 스님은 몸이 안좋아서 쓰러졌는데 식물인간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태국의 불자들은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스님을 친견하기 위하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누룽지 냄새에 내 삶이 고맙다



도현 스님이 16년째 주석하고 있는 연암토굴. 누워서 만세부르기도 좁은 다섯 자, 여섯자 의 오두막이다. 도현 스님은 이곳에서 예불 올리고 수행하고 차를 마신다.

여 길게 줄을 서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단다. 우리나라에서는 큰스님이 병으로 누우면 '도인이 왜 저러는가' 하는 시선으로 보는데, 태국인들은 '정신이 또렷할 때 어떤 일로 세상에 기여했는가' 로 평가하기 때문에 아잔차 스님이 식물인간처럼 되었어도 여전히 불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 부러웠다고 한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인이라 하더라도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육신은 아프고 늙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때문'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잔 차 스님은 '깨달음을 빨리 달성하도록 하는 특별한 방법보다는 일상에서 정기적으로 좌선을 하기를 그리고 좌선을 할 때는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수행' 을 하게 했단다.

도현 스님은 "인생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것이며 소유의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 존재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미 지나가버린 장애들을 생각하지 말 것이며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것 없이 현재에 머물러 살면 되지요. 우리가 사는 것은 언제나 바로 이 순간이며 순간을 통해서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이 순간을 살아야 함' 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였다.

"불가에서는 부처와 보살은 원력(願力)으로 태어나고 중생은 업력(業力)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력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업력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원력이 굳건하고 선행을 부지런히 닦는 사람은 금생에 자기 의지대로 자신의 삶을 개선해나갈 수 있어요."

>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 여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
> 간다면 마지막 숨을 거두는
> 순간까지도 행복한 삶을
>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현재의 처지에 대해 전생을 탓하지도 말고 다음 생에 하겠다면서 미루지도 말고 사람 몸 받았을 때 현생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나가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다.

도현 스님이 애착을 가지는 '선재회' 회원들과 인연을 맺어온 지도20년이 넘는다. 가난한 양로원과 고아원을 돌면서 무료봉사를 하는 것에서 출발한 선재회는 지금은 자신의 내면을 관조하는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암토굴이 있는 의신골에 '선재난야' 를 마련한 선재회원들은 1년에 서너 차례 도현 스님의 지도 아래 위빠사나 수행에 들어간다. 도현 스님은 새벽예불 때 〈자비경〉을 독송하면서 이 세상이 좀더 따뜻해지기를, 사람들이 좀더 행복해지기를 발원한다.

스님의 하루 일과가 궁금하여 여쭈었다. 대중살이와 달리 독살이는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그동안 대중처소에서 익힌 습이 있어 새벽 4시면 일어나 다기 물 올리고 참선에 들어간단다. 그리고 한가한 시간엔 독서도 하고, 음악도 듣고, 날씨가 좋은 날은 다구를 챙겨 계곡에서 혼자 차를 다려 마시기도 하고, 몸이 무거우면 낙엽을 밟으며 산길을 걷기도 하고, 밤이면 누더기를 걸치고 하늘의 별들을 본다는 스님의 일상은 한 편의 시처럼 아름답다.

버너 위에 올려놓은 누룽지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고소한 냄새를 맡다보면 자신의 삶이 고맙게만 느껴진다는 도현 스님은 "욕심이 없을수록 살아지는 게 중의 살림살이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지게 중의 공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유로워지는 게 중의 멋"이라면서 환하게 웃는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 속에는 '생은 덧없으니 부지런히 살펴라' 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행복한 순간들을 잘 수용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여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크고 화려한 것을 좇아가는 세상과는 반대로 작고 소박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 아름다움을 귀히 여기는 스님의 향기는 지리산을 채우고도 남는다.

글 · 사진=문윤정(본지 객원기자) blueyun6@hanafos.com



석길암의
한국불교 승려열전

일엽 선사(1896~1984)②

일엽 스님은 30년 동안 한 번도 산문을 나서지 않고 입승을 자처했다. 스님의 원력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발견한다. 30년 산문을 지키게 했던 스님의 힘은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

세상을 벗어났다 하여 세상을 버렸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착각이 없을 것이다. 세상을 벗어나는 것은, 실은 세상에 대한 간절한 읊조림일 수밖에 없다. 스님께서 언제 세상을 버린 적이 있던가. 오히려 세상을 향한 간절한 사랑에 세상을 벗었던 것이 아닌가. 세상을 벗어난 스님의 행로가 결국은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연유라 할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세상을 버리는 법은 없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미워하는 자 중에 세상을 버리지 않는 자 또한 드문 것이 진실이다.



알엽 스님이 삭발하고 수행한 수덕사 환희대의 원통전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벗어난 자유여성, 아니 자유의 인간. 그것이 일엽 스님이다. 그래서 스님은 세상을 향해 말한다.

세상을 벗어났으되 세상을 버린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 세상을 벗어나 세상으로 들어간 님, 그를 우리는 일엽이라 칭한다. 그에게는 한낱 이론적인 해명은 삶의 나침반이 되어 줄 수 없었다. 현실의, 지금 딛고 선 절박한 한 끼의 먹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삶으로 되새겨졌다. 그래서 세상을 벗어났던, 지금 세상을 벗어나 살고 있는 자가 힘 모아 "아무튼 지금 끝장을 보라. 이 법밖에는 도리가 없다. 내가 우주 전체요, 이 현실 외에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철저한 인식을 가져질 정신력이면 시종 없는 생활의 밑천이 장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이에게 세상을 벗어난 삶이 또 어디에 있었을까. 우주 전체에, 목숨을 건 끝장을 보는 마당에, 그가 말하는 것은 '생활의 밑천' 이다. 그에게 거창한 우주나 창조주나, 조화옹은 한낱의 망상이었을 뿐이다. 언제 그가 우주를 뒤덮는 개벽을 바랬던가. 삶의 곡절을 용납하는 초월을 바랬던가. 그가 마주친 것은 그저 생활의 밑천, "오늘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오늘 오전 나절에는 깜박 잊었던 '문화인' 의 사명에 화들짝 놀라는 것" 뿐이었다.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 자는 세상을 모른다. 스님은 그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여 세상을 알지 못하는 자를 '문화인' 이 되지 못한 자라 칭한다. 스님을 '흘러간 여인' 이라 칭한 못난 이에게 스님은 '할(喝)' 을 외친다.

30년 산문을 나서지 않고 입승을 섰던 이가 세상을 향해 변명을 쏟아놓는다. 변명일까. 천만에. 세상에 대한 사랑을 쏟아놓은 것이다. 굳이 그에게는 세상을 향해 변명을 쏟아야만 할 절박함이 있었다. 제발 당신이 딛고 선 땅바닥에 발을 굴러 보란 것이다. 그 땅바닥을 떠나 당신이 어디에 서 있을 수 있는지. 일엽 스님은 말한다.

> "사랑을 못잊어서가 아니라
> 진짜 사랑하려고 출가했다"

"나는 무량겁적(無量劫的)이고 전 · 후생적 대가로 더불어 일체 중생의 생적 대가까지 다 지불할 만한 그런 큰 벌이를 하기 위한 공부가 중의 공부, 곧 참선인 것을 알았다. 때문에 지금 나는 참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흘러흘러 흐름에 헤매는 일체 존재가 모두 내게 매달려 건져질 것이다. 또한 '사랑에 지쳐서 중이 되었다' 니.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인생을 버렸다는 말이다. 나는 사랑의 근본을 알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중이 되었다."

맞다, 그렇다. 실은 스님은 사랑을 못 잊어서 '중' 이 됐다. 아무도 사랑을 말하지 않기에 진짜 사랑을 하려고 '중' 이 된 것이다.

세상은 벗어났다고 벗어난 것이 아니다. 세상은 벗어남으로써 들어가는 것이다. 세상을 벗어날수록 한 낱 한 낱의 일상은 더욱 사랑스러운 까닭이다.

석길암(금강대 HK연구센터 교수)



박창범 고등과학원(KIAS) 물리학부 교수 '천문기록에 담긴 한국사의 수수께끼'



우리나라는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천문 현상들을 꾸준히 관측해 기록해 온 특별한 나라다. 기원전 30세기 석기 · 청동기 · 철기 시대의 고인돌에 새겨진 북두칠성자리를 비롯해, 기원전 18~19세기 계연수가 편집한 〈환단고기〉 '단군세기'에 언급된 오성취루(五星聚婁: 화수목금토의 행성 다섯 개가 일렬로 늘어서는 현상)가 그렇다. 또한 경주에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가 있다.

고등과학원(KIAS) 물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박창범 교수(사진)는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천테물리, 우주론, 고천문학 분야를 연구한 학자다. 우리의 선조가 남겨 놓은 수많은 천문 기록들에 매료돼 천착을 시도한 그는 한국 천문학의 역사의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고대 천문학 기록들이 체계적이고 정확하다는 사실, 관측된 천문 현상들이 다양하고 방대하다는 사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 기록들을 연구한 적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2월 7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참여불교 리더스포럼에 박창범 교수를 초청해 '천문 기록에 담긴 한국사의 수수께끼'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전북 고창 고인돌군 세계 고인돌의 절반이 우리나라에 모여있다. 특히 바위를 늘어놓아 별자리를 나타내는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에는 '칠성바우'가 있는 마을이 많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바위들을 살펴보면 고인돌군인 경우가 많으며 동네 이름이 '칠성마을' 또는 '칠성부락'인 곳도 많다.

고인돌에 새긴 별자리 아십니까?… 2천년 전 이미 천체운동 알았다

선대 과학활동 덕분에 천문학 급속 발전
〈삼국사기〉 천문기록 중국 것 표절 아니다

한국의 고대 천문자산

서양에서 천체를 체계적으로 관측하기 시작한 기간은 불과 300~400년에 불과하다. 태양활동의 장주기 변화, 지구 기온의 변화, 장주기 혜성, 장주기 변광성, 초신성 등과 같이 장기간의 꾸준한 관측이 필요한 연구에서는 고대의 육안 관측 자료가 유일하고, 여기에 중국과 한국, 일본의 기록이 중심이 된다.

중국은 과거 약 28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약 2100년, 일본은 약 1400년에 걸쳐 다양한 자연 현상을 관찰해 수많은 기록을 남겼다.

우리에게는 11세기 이전의 역사 기록이 빈약한 실정이다. 당대의 국가가 직접 남긴 1차 사서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삼국사기〉나 〈고려사〉 또는 중국과 일본사서의 파편적 기록 같은 2 · 3차 사료가 전부다. 서기 500년경 이전에는 그나마 남아 있는 유물 · 유적마저도 별로 없어 매장유물의 출토나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이렇게 기초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우리나라 초기의 역사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1차 사료와 유물 · 유적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중국 · 일본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그나마 우리에게 남겨진 이 부족한 사료들 중 상당부분이 역사 구성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3 · 4세기 이전의 기록에 대해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는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에는 혁거세거서간에서 벌휴이사금(기원전 57년~서기 196년)까지 264개 기사 중 약 40%를 차지하는 101개 기록이 자연 현상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서 34개가 천문 현상 기록이다. 이 자연 현상 기록은 역사 구성에 활용되고 있지 않다.

우리 역사의 징검다리 고인돌

우리나라는 거대한 고인돌 제국이다.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바로 우리나라에 모여 있다. 전북 고창 고인돌군과 같이 좁은 한반도 안에 많은 고인돌이 밀집돼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채로운 일이다. 남한에서 고인돌이 세워진 때는 대략 기원전 10세기~서기 2세기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는 기원전 30세기까지 보고하기도 한다. 유럽 전역에도 고인돌이 퍼져 있다. 이것들의 축조시기는 대개 기원전 48세기~기원전 23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발견된 일부 고인돌들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평남 증산군 용덕리 고인돌(기원전 30세기경), 평남 평원군 원화리 고인돌(기원전 25세기경), 함남 함주군 지석리 고인돌(기원전 15세기경), 평남 상원군 용곡리 고인돌(기원전 30세기~기원전 1세기) 등이다. 이들의 덮개돌에는 인위적으로 파낸 작은 홈들이 있는데, 이 홈들이 북두칠성과 같은 대표적 별자리들이라는 보고가 나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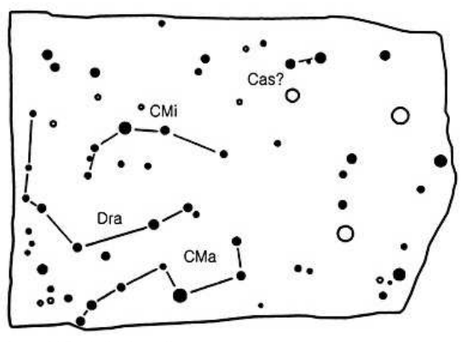
하늘의 별자리를 새긴 일종의 천문 기록임이 밝혀진 것이다. 고인돌에 왜 별자리 문양을 새겼을까. 별자리 문양은 고대인들의 죽음과 탄생에 대한 관념을 반영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또한 무덤 주인의 사회적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고인돌과 같은 거대한 바위를 이용해 별자리를 기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바위에 직접 별자리를 새겨 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위 자체를 하나의 별로 간주해 바위들을 별자리 모양으로 배치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천문 자산〉

시 대	왕 조	천문 자산
약 B.C. 30C~A.D. 2C	석기 · 청동기 · 철기	암각화 그림, 고인돌과 부장품, 선돌 등의 방위와 별자리 그림
약 B.C. 24C~B.C. 2C	단군 · 기자 · 위만조선	천문 현상 기록 12개,천문대-강화도 마니산 참성단
B.C. 57~A.D. 935	신라	천문 현상 기록 240여 개 〈삼국사기〉 〈삼국유사〉
B.C. 37~A.D. 668	고구려	천문도가 그려진 고구려 고분 24기
B.C. 18~A.D. 660	백제	천문대-경주 첨성대, 해시계, 사신상, 십이지신상 등의 유물
918~1392	고려	천문 현상 기록 5000여 개 〈고려사〉 천문대-개성 첨성당 천문도가 그려진 고분 9기
1392~1910	조선	천문 현상 기록 약 2만개 -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여러 천문대와 혼천의, 혼상 등의 천문 유물 각종 천문서, 천문도, 해시계, 물시계, 천문시계 등의 시계 유물, 무형의 천문 요소-신화, 민속





충북 청원군 아득이 마을 고인돌에서 출토된 별자리가 새겨진 돌판(충북대 박물관).

단군조선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들 중에 학계에서 인정하는 것은 현재 없다. 비록 정사서(正史書)는 아니지만 단군조선에 대한 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는 사서인 〈단기고사(檀奇古史)〉와 〈환단고기(桓檀古記)〉의 '단군세기(檀君世紀)' 편 등이 있다. 이 두 사서에는 약 60개의 천문에 관련된 기록이 실려 있다. 일식이 10회, 오행성 결집이 1회, 강한 썰물이 1회, 두 해가 뜸[兩日竝出]이 3회, 지진이 4회, 태풍, 가뭄, 홍수 등에 관한 기록이었다. 단군조선 시대 안에서도 후대로 갈수록 관측 기록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일식 67개, 행성의 움직임 40개, 혜성 출현 65개, 유성과 운석의 떨어짐 42개, 오로라 출현 12개 등 240개가 넘는 많은 천문 현상 기록들이 있다. 이 중에는 중국이나 일본의 사서에 동시에 관측돼 기록된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록도 있다.

1000~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이런 기록들을 볼 때 인간의 시간 척도로 보면 2000년이란 아주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긴 시간이다. 그 아득한 옛날에 살았던 무지한 사람들이 제대로 천체의 운동과 변화를 읽어 낼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그릇된 선입관이다. 천체 역학적 계산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이 시기의 천체 관측 기록들은 대부분 사실이었다. 또한 해와 달과 행성과 별자리들에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실제로 일어난 현상과 전체적으로 맞춰봤을 때 천체 현상들이 일어난 연대와 날짜, 그리고 상황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로써 기존의 서지학적 · 금석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 놓은 삼국시대의 연대기가 상당히 정확하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서양의 과학사 논문, 국내의 과학사 등 현재 학계에서는 〈삼국사기〉의 천문 기록, 그중에서도 6세기 이전의 기록은 모두 중국 기록을 베꼈거나 지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서양학자들은 〈삼국사기〉의 천문 기록을 완전히 무시한 채 〈고려사〉의 기록부터 비로소 인정하는 추세다. 영국학자 스티븐슨이 펴낸 세계 일식기록에 관한 책에서는 한국의 역사를 고려 시대부터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삼국사기〉에 많은 일식기록이 발견됐다. 그 시기(935년)의 기록이 중국에서부터 가져온 것이어서 신뢰하기 힘들다"고 서술하고 있다.

〈삼국사기〉 등에 천문기록 240개

국내 역사학계에서도 3세기경 이전의 기록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분위기다. 1920년대부터 〈삼국사기〉의 일식을 비롯한 여러 천문 현상 기록들을 꾸준히 연구해 많은 결과를 내놓은 일본학자들은 〈삼국사기〉의 천문 현상 기록, 특히 삼국 시대 초기 부분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사서로서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렸다.

〈삼국사기〉에는 있지만 중국의 사서에는 없으면서,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중 주목할 만한 것은 행성과 달의 접근 기사다. 예를 들면 〈삼국사기〉에는 달이 금성에 접근했다는 태백범월(太白犯月) 기록이 5개가 있다. 모두 중국 사서에 없는 독자 기록이다. 그 중 〈신라본기〉(내해 10년)와 〈백제본기〉(초고40년)에 동시에 나오는 서기 205년 7월의 태백범월의 기록을 보자. 달과 금성의 운동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계산하면, 이 기록에 대응하는 실제 현상을 이 시기에 찾을 수 있다.

이 뜻은 백제와 신라가 적어도 서기 205년부터는 행성과 달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었으며, 그 관측 결과를 기록해 남기거나 구전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삼국시대에서 역사를 신뢰할 수 있는 때가 〈삼국사기〉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 주변국 사서에 등장하는 시점으로 정해지기도 한다. 중국 · 일본의 문헌에 신라와 백제왕의 이름이 나오는 해는 346년과 356년인데 서기 205년의 독자 관측 사실 하나만으로도 삼국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는 시점이 약 150년이나 앞서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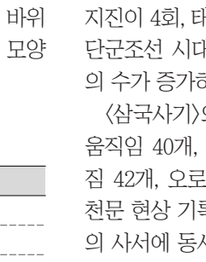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천문과학의 역사는 상고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구하며, 주목할 만한 천문 유물과 풍부한 천문 현상의 관측 기록이 전해온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대 천문학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선대에서의 과학적 활동이 수천 년에 걸쳐 활발하게 이뤄져 온 전통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선조가 남긴 귀중한 고대 천문과학 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올바로 활용하는 것이 전통과학과 현대과학 사이에 연속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정리=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문화원장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매매가 마음대로 않되는 분.
- 어떤 병이든지, 어떤 사업이건 전화상담 만으로 속 시원히 알수 있음.



※ 2009년 3월 3일 〈MBC-TV 특종 놀라운세상〉 「귀신씌인 나무의 실체」편 출연

검증된 기술, 오랜 경력, 성직자의 양심으로 교육, 퇴마하는 도량 "성봉사" 모든 검색창에서 "현오스님"이나 "성봉사"를 클릭하세요.

퇴마사 최면사 교육

정규교육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성 봉 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 대표전화 051)362-0666 / 상담 및 예약 010-5656-3915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海月 金文華의 魂이 담긴 스피커의, 힘 있고 우렁찬 소리는 스님의 건강과 절 전체에 氣를 불어넣어 줍니다.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 高音質 무선마이크



◇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요절복통 여래네 집

#37. 홍합과 장래희망

스튜디오 돌



모처럼 식구가 모여있는 저녁, 엄마가 홍합을 한 바가지 삶아 내놨습니다.



여래네 식구들은 막내인 보리까지 누구하나 해산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아빠는 늘 엄마가 정색을 하고 얘기하면 당황을 한답니다.(마초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남자는 다 그렇다고 봅니다-작가 주)





이주일의 화두

인간의 모든 욕망은 덧없고
허무하며 물거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물 속에 비친 달과 같고
뜬 구름과 같은 것이다

- 화엄경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 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2011년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시작 조심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공급가격 별도상담)
문 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자족, 뒷걸음질인가 행복의 원리인가

김옥암 "신자유주의 한계 봉착… 소욕지족의 불교경제학 요청된다"


김옥암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불교와 사회' 란 용어에는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화한다는 명제를 담고 있다. 1980~90년대 불교의 사회참여가 이웃종교에 비해 미미했다는 반성과 함께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론적 기반은 취약했다. 나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다.

불교와 경제는 더욱 그렇다. 독일 태생의 경제사상가이며 실천가였던 슈마허(E. F. Schumacher)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가 1988년



번역되어 나온 이후 불교경제학이라고 이름붙일 만한 저작이 없을뿐더러 관련 논문도 가뭄에 콩 나듯 드물다. 최근 나온 〈자족의 경제학〉은 그래서 반갑다. 저자는 안동대 경제학과의 김옥암 교수. 전환시대인 지금 새로운 경제사조가 요청되며,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소욕지족(小慾知足)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신자유주의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도 1960년대 이후 미국 시장을 배경으로 하여 수출주도 경제성장주의 노선만으로 오로지 달려왔다.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 속에서 세계 구석구석을 돈을 좇아 필사적이 되어 배금주의를 향해 달려왔다. 우리의 이러한 삶의 종착점이 바로 오늘의 우리 사회와 가정의 모럴, 도의의 구조적 붕괴라는 결과로 귀착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대처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는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는 지구환경의 재생과 소득과 부의 격차 축소 등을 통하여 삶의 올바른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할 때이며, 그 중추에 두어야 할 것이 소욕지족 사상이다." [본문 111~112p.]

이런 까닭에 이 책은 현실경제를 지배하는 신자유의주의 정책을 비판하는데 상당 부분 할애했다. 계급투쟁을 기조로 하는 마르크스주의도 비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배려의 미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되새긴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삼독(三毒)이라 불리는 탐진치(貪瞋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탐욕 같은 불은 없고, 성냄 같은 악은 없고, 오취온(五取蘊) 같은 괴로움은 없고, 적정(寂靜) 같은 행복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자족할 줄 모른다. 무한경쟁 시대에 자족은 주저앉음 같은 것으로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자족(自足)을 얻지 못하면 천국에 살더라도 만족함을 모르고 항상 물욕에 끌려서 희락을 모르는 법이다"고 설파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자족은 뒷걸음질이 아니라 행복의 원리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불교경제학 논의를 촉발시킬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제시된 불교사상과 경제학의 관련성, 불교경제학의 이론적 토대, 불교행복론 등은 충분한 논란거리다.

어렵다싶은 경제용어는 책 아래에 설명을 붙여 경제학에 아예 담을 쌓지 않았다면 일독하기에 어렵지 않다. **자족의 경제학 | 김옥암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1만1000원**

정성운 기자 woon1653@hanmail.net

6년에 걸친 대화 통해 서로를 이해하다

종교간 소통을 위한 종교인 모임 대화 기록



한국 사회는 여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종교 다원 문화를 형성해 평화적 관계를 이루어 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불협화음이 최고조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신교 측의 사찰 땅 밟기, KTX 울산역 통도사 명칭 삭제,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의 동화사 폄훼와 불교관련 정부지원 및 협력 사업에 대한 도발 등 종교 갈등과 충돌의 뚜렷한 징조라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점점 누적돼 가고 있다.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다종교, 다문화, 세계화 시대에 성숙한 종교적 인식을 갖는 그 첫걸음은 자기 종교와 타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것을 토대로 한 상호 신뢰와 존중일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는 한국의 대표 종교(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에 속한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낸 진심어린 대화를 담았다.

이 책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6년 동안 20차례에 걸쳐 열렸던 씨튼연구원 '종교인 대화 모임' 의 발제문과 토론을 정리한 것으로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전 총장), 해주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길희성 교수(서강대 종교학과), 김승혜 수녀(서강대 종교학과), 양은용 교무(원광대 불교학과), 이정배 목사(감리교신학대), 이제민 신부(광주신학대), 최근덕 성균관장(성균관대 유학대), 최일범 유학자(성균관대 유학대), 한순희 수녀(성심여자대학)가 대화에 참여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 | 종교 대화 모임 지음 | 운주사 펴냄 | 2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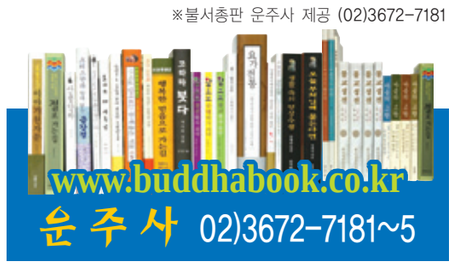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4~11.30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허공법문	법륜	고려원북스
4	선방일기	김기추	불광출판사
5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	지허	한마음선원
6	사벽의 대화	대행	도피안사
7	번뇌 리셋	지허	불광출판사
8	생각 버리기 연습	코이케 류노스케	21세기북스
9	다음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코이케 류노스케	운주사
10	법정 스님 선묵	법정	다래헌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윤남진 REVIEW

용기있는 자 변화를 두려워 않는다


에릭 갈랜드 지음

자, 이런 질문을 해 보자.

미래에 종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종교의 정당성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요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이 종교의 가장 경쟁력 있는 대체재일까? 중국과 이슬람세계에서 종교는 어떻게 진화할까? 그리고 그것이 세계 종교지형을 어떻게 변화 시킬까? 그 결정적 변화는 대체로 몇 년 후에 나타날까? 인터넷은 종교 · 문화적 관용과 다양성에 기여할까?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개신교의 배타성(불관용)의 심화는 역포물선의 변곡점(기하급수적 하락지점)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포물선의 변곡점(기하급수적 상승)을 의미하는 것일까? 종교는 미래에 사회통합적으로 작용할까 아니면 사회갈등적으로 작용할까? 다음 세대로의 종교 전승은 안녕할 것인가? 디지털네이티브 제1세대(현재 10~15세)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로 존재하고 취급될까? 이들 세대가 사회활동에 본격 진입하는 10~15년 후 종교는 이들에게 얼마만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생명의 탄생과 결혼, 죽음과 같은 통과의례는 여전히 중요한 상징으로 기념될까? 죽음의 의미는 여전히 종교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만 해석될까? 그리고 그 해석적 의미 또한 몇 가지 전형적 해석 패턴에서 그다지 변하지 않을까? 출가수행자는 충분히 확보되고 유지될까? 독신으로서의 출가생활은 독신으로서의 사회공헌생활보다 매력적이고 고귀한 것으로 평가될까? (기존의 교단에서 고령 출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고령자 위주의 새로운 출가공동체가 생겨나지는 않을까? 비(非)디지털 공간이 디지털사회의 자연휴양림처럼 사랑받진 않을까? 그렇다면 오히려 한문과 서예 같은 전통강원의 수습방식을 출가자의 스킬로서 충분히 이어가도록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밖에도 다양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상상력의 한계,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면 질문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이제 좀 색다른 질문을 해보자. 수련 연못의 수련이 매일 2배씩 연못을 덮어가서 30일째 되는 날 연못이 수련으로 가득 찬다고 해보자. 그럼 29일째 되는 날 수련 연못은? 단지 절반만이 수련으로 차있을 것이다(〈통섭〉에서 인용).

또 하나 생각해보자. 얇은 종이를 접고 또 접고 또다시 접어서 50번을 접었을 때, 마지막 접은 종이의 두께는 얼마나 될까? 태양에 이르는 두께가 된다(〈티핑 포인트〉에서 인용). 이것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 둔감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변화의 양상과 폭발적인 변화의 요인들을 추적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아직도 연못에 수련이 절반 밖에 차지 않았군'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꼴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연못에 가득 찬 수련을 보고 감탄사나 연발하는 그런 신세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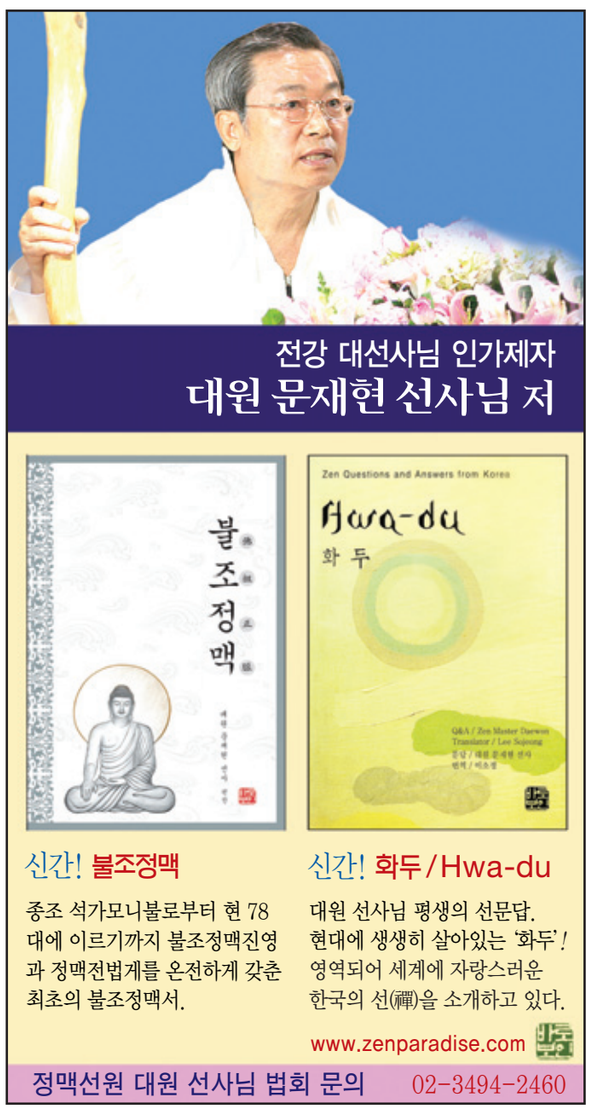
우리가 이런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읽는 과학적 접근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교단차원에서 미래연구기관(오직 미래를 주제로 탐구하는)이 있다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기대할 수 없다면 독자들 스스로 미래탐구적인 마인드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필자가 열거한 여러 질문들은 필자가 평소 관심을 두고 살피고 있는 사회현상들이다. 정치와 시민(사회)과 종교관계, 아시아의 종교지형 변화, 저출산 고령사회와 종교, 디지털 혁명과 종교, 생명공학(뇌과학)과 종교, 교육(사회적 학습)과 종교. 이런 영역들을 주제로 사회현상을 참구하다보면 일정한 경향성과 흐름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일정한 기법에 따라 시스템화하면 유용한 예측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래를 읽는 기술〉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 트렌드를 읽는 도구와 테크닉을 친절하게 분석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고령화를 비롯한 8개 영역별로 미래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핫트렌드2011〉은 2010년을 풍미했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해 분석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진화한다' 는 뜻의 공진화(共進化)를 2011년의 트렌드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디지털 1기시대의 화두가 '속도' 였다면, 이제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는 간디의 말을 언급하며, 디지털 2기는 '개방과 공유' 가 화두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스피릿, 일과 교육, 놀이, 네트워크, 성과 세대, 공간, 감각' 과 같이 7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다. 이런 분류 자체가 신선한 발상으로 느껴진다.

〈2020미래교육보고서〉는 UN의 미래연구를 바탕으로 교육분야의 변화를 특화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교육 분야는 종교조직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세를 살펴야 하는 분야이다. 왜냐하면 종교적 메시지는 지식정보의 바다에서 더욱 설득력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송출되고 학습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미래의 학습은 아이들에서 어른으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필자는 성인교육시장의 팽창이 종교(시장)의 변화에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변화를 아는 것은 두렵기도 한 것이지만 역사의 매듭마다 늘 용기 있는 프로메테우스가 있어 왔음을 믿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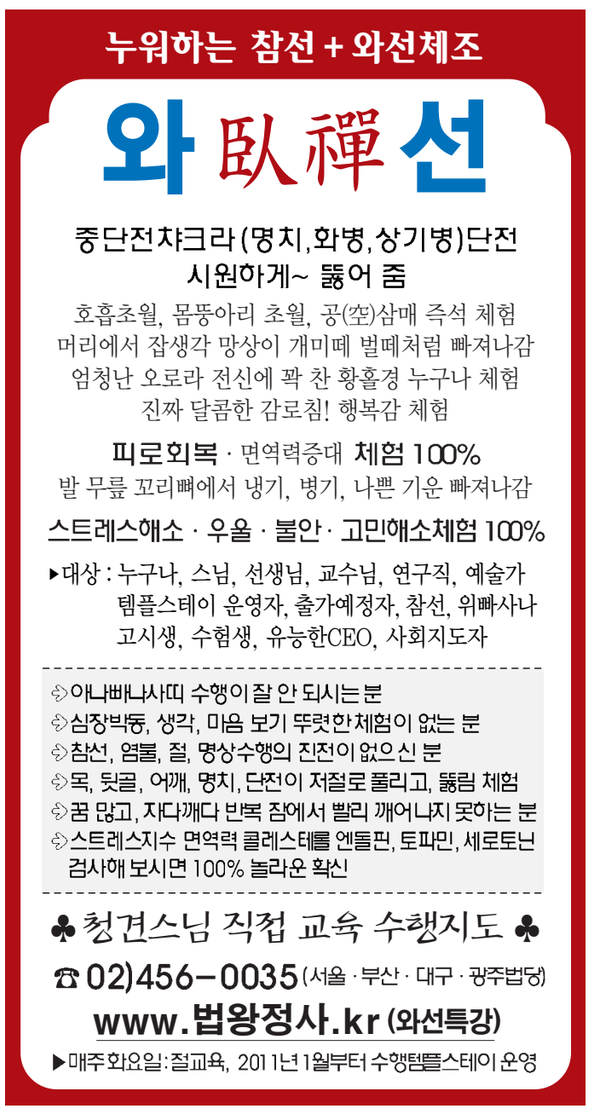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바른 안목이 중요할 뿐이니 처신을 묻지 않겠다”

☞1면에서 계속

순례자 일행은 법당으로 가 참배를 한다. 만불전이라고 하는데, 배휴가 지원하여 지은 법당으로 후대에 여러 차례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삼존불 후면과 측면 벽에 봉안된 만불의 실제는 1만 2218존(尊)이고 그중 1존은 개금이 아닌 순금 불상이라고 하여 발견하는 사람은 수승한 인연을 짓는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금의 만불전 편액 글씨는 장개석이 1945년에 태허대사(太虛大師)를 만나 써주었다고 한다. 밀인사 지객스님이 순례자 일행을 위산영우 선사의 진영이 걸린 객당으로 초대하더니 환영의 인사말을 한다.

중국의 역대 황제들이 밀인사를 존숭하였다고 한다. 당 헌종과 선종, 송 신종과 휘종, 청 순치, 옹정, 건륭, 도광 등의 황제가 칙서를 내렸다 하고, 근대에는 모택동 주석이 밀인사를 찾아와 밀인사 주지와 3일 밤낮을 토론한 끝에 ‘구국구민(救國救民)은 대본대원(大本大源; 농민)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위산 명차는 천년 전 농선병행(農禪竝行)의 흔적

수불 스님이 위산 스님의 가풍을 잇고자 노력하는 밀인사 대중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는 답사를 한다. 그 사이 위산촌에서 생산하는 ‘위산영광(溈山靈光)’이라는 명차가 객당 안에 싱그러운 향기를 풍긴다. 위산에 차가 있다는 사실은 천년 전 위산의 대중들이 농선(農禪)을 했다는 흔적이리라. 〈위산록〉을 보면 체용일여(體用一如)를 보여주는 차(茶) 공안이 나온다.

위산이 차밭에서 찻잎을 따다가 앙산에게 말했다.

“종일토록 찻잎을 따도 너의 소리만 들릴 뿐 너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구나!”

이에 앙산이 차나무를 흔들자 위산이 말했다.

“너는 작용만 얻었을 뿐 본체는 얻지 못했어.”

“스님께서는 어찌 하시겠습니까.”

위산이 잠자코 있기만 하자 앙산이 말했다.

“스님께서는 본체만 얻었지 작용은 얻지 못했습니다.”

“네놈에게 방망이 30대를 때려야겠구나.”

“스님의 방망이는 제가 맞겠습니다만 저의 방망이는 누가 맞습니까.”

“네놈에게 방망이 30대를 때려야겠어.”

지객스님은 밀인사의 역사를 전시한 관람실로 안내한다. 밀인사를 소개하는 글에 밀인사 창건 내력이 짧게 나와 있다. 당나라 헌종 원화(元和) 2년(807)에 위산영우가 백장의 유지를 받들어 위산으로 들어와 있다가 훗날 배휴가 당 선종의 칙서를 받아서 절을 건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사찰에서 인쇄한 또 다른 글은 위산의 입산 연도를 특정하지 않고 당 헌종 원화연간(806~820)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원화연간은 위산의 나이로 치자면 36세에서 50세에 해당한다. 편차가 너무 심하다. 나는 국내에서 이은윤의 〈중국 선불교 답사기〉를 읽은 적이 있어 49세로 기억했는데 수불 스님은 밀인사로 오던 중 버스 안에서 순례자들에게 37세(807년)라고 법문하신 바 있다.

“고향인 복건성 사투리를 쓰셨던 위산 스님은 15세에 출가하여 대매 스님에게 머리를 깎았고 백장 스님을 만나 20대 후반에 깨닫고 37세에 위산으로 들어가 5, 6년 정도 은거한 뒤 40년 넘게 행화를 펴시다가 83세에 입적하신 분이지요. 회창법난 전후에 위산에는 많은 대중이 살았어요. 선객들의 사투리는 다 달랐을 겁니다. 교육자적인 면모를 지닌 데다 근면하고 참고 견디는 힘이 컸던 위산 스님이었으니까 큰 회상을 이루었을 것이고, 스님은 법난 전후의 선종을 장악했을 겁니다. 그래서 위산 앞에 큰 대(大)가 붙어 대위산 스님이라고 부르지요. 훗날 설봉 스님도 ‘천하에 고불(古佛)이 두 분 있는데 조주와 위산’이라고 했어요. 조주 스님은 위산 스님보다 7살 아래였지요. 두 분 다 마조 스님 2세 법손이고요.”

40년 행화라면 수불 스님의 말씀이 정확하다. 산술적으로 위산 스님 일생의 행장에 있어서 앞뒤가 맞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위산영우를 신뢰한 백장의 강한 의지다. 백장은 5, 6년 동안 위산을 지켜 본 뒤 상좌 나안을 보내 스님을 돕고 지지케 했던 것이다. 나안 역시도 22살 많은 사형 위산을 존경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위산영우가 위산의 주인으로 가게 됐을 때 격렬하게 반발한 사람은 수좌 화림선각이었다.

‘사제인 영우가 나를 제치고 장차 1500대중이 살게 될 도량의 주인으로 가다니!’

화림은 수모를 당한 것 같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분을 삭이지 못하고 밤새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아침 일찍 선원으로 갔다. 선원에는 대중들이 모여 백장의 법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화림은 백장을 보자마자 하소연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제 1좌입니다. 어찌 영우 스님이 위산의 주지가 될 수 있습니까.”

백장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말했다.

“만약 그대가 대중 앞에서 격외의 말을 한 마디만 한다면 그대에게 주지를 주리라.”

백장이 바닥에 놓인 정병(淨甁)을 가리키며 말했다.

“정병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대는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정병이란 찻물을 담는 물병이었다. 대중이 산자락에 차밭을 일구어 차를 자급했던 것이다.

“말뚝이라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백장은 화림의 대답에 수긍치 않고 위산에게도 똑같이 물었다. 그러자 위산은 정병을 발로 차서 거꾸러뜨리고는 선원을 나가버렸다. 그러자 백장이 웃으면서 말했다.

“제 1좌인 선각이 영우에게 졌구나!”

‘정병의 이름(淨甁之名)’이란 공안이 탄생되는 순간이었다. 나안은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백장의 지시를 받아 수십 명의 대중을 이끌고 가 위산영우를 보좌했던 것이다.



재상 배휴가 지원하여 건립한 만불전. 1만2218존(尊)의 불상 중에 한 분은 순금 불상이라고 한다.



위산영우 선사 초상

위산은 법난 후에도 중국선종 중심이 되다

나안이 데리고 온 수십 명의 대중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라는 백장의 농선 가풍을 이어 절 부근의 산자락을 논밭으로 일궈나갔다. 농선병행하여 산자락들이 논밭으로 변하자 대중은 500명으로 불어났다.

그런데 위산이 72세 때(842년) 회창법난이 일어나고 만다. 대중은 강제 환속을 당해야 했다. 중국 불교의 법난(法難)을 ‘3무 1종’이라고 하는데 북위 무제, 북주 무제, 당 무종, 후주 세종의 박해를 말했다. 그중에서 도술에 심취했던 당 무종이 일으킨 회창법난(842~845)이 가장 참혹했다. 도사 조귀진의 망언을 듣고 불교를 배척하게 된 무종은 비구스님과 비구니스님을 강제로 환속시키는 법령을 내린바 환속한 스님이 26만, 파괴된 절이 4600 곳이나 되었다. 법령을 어기면 즉시 처형됐다. 순교자는 풀잎의 이슬처럼 사라졌다. 철로 된 불상은 농기구로, 금은으로 된 불상은 돈으로 만들었는데 이때의 돈을 회창개원전(會昌開元錢)이라고 불렀다. 고작 장안과 낙양의 사찰 4곳에 스님 30명, 각 주마다 사찰 1곳에 스님 5명에서 20명만 두도록 하였으니 불교는 중국 땅에서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위산의 대중들도 환속하여 변복하고 각자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법난을 피해 숨어 살았다. 위산도 나안도 앙산도 마찬가지였다. 위산의 법을 받은 41명의 법제자가 모두 그랬다. 마침내 무종이 과보를 받아 일찍 죽고 선종이 즉위한 뒤에야 불법을 허락하는 복불령(復佛令)이 내렸으나 중국불교는 바로 일어서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위산 밀인사는 달랐다. 바로 선불교의 중심이 됐다. 법난 전에도 500여 대중이 살았고, 법난 후에도 배휴가 당 선종 대중 3년(849)에 황제에게 상주하여 밀인사 불사를 승인하는 칙서를 받고 그가 쓴 밀인사 편액과 승전(僧田) 1000무(畝; 1무는 약 100평)를 기증하려고 밀인사로 출발하였던바, 이에 위산은 대중을 이끌고 칙서를 받으러 영접을 나갔다. 지금도 칙서를 주고받았던 내지요(來旨拗)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배휴의 지원을 받은 밀인사는 사마두타의 예언대로 1500여 대중이 운집했다. 당대 선종의 진면목이 됐다. 회창법난으로 위기를 맞은 선종이 오히려 위산에서는 크게 융성했다.

위산은 법난으로 의기소침해지고 상처받은 선객들을 밀인사로 불러 모았고 법으로 치유했다. 제자는 앙산혜적(仰山慧寂,807~883)도 있었다. 어느 날 위산이 앙산에게 물었다.

“〈열반경〉 40권에서 어느 정도가 부처님 말씀이며 어느 정도가 마군의 말이겠느냐.”

“모조리 마군의 말입니다.”

“앞으로는 너를 어찌해 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앙산이 두 손을 모으고 나직하게 물었다.

“저의 지난 한때의 처신(行履)은 어찌 됩니까.”

“너의 바른 안목이 중요할 뿐이니 그때의 네 처신을 묻지 않겠다.”

혜적이 변복한 채 숨어 산 것에 대해서 자책하자 위산은 바른 안목으로 위의를 잃지 않고 살았으면 그만이라고 36살 아래의 아들 같은 제자를 위로했던 것이다.

위산은 나안, 즉 훗날 복건성의 장경사 주지를 지내게 되는 장경대안(長慶大安, 793~883)에게 밀인사 2대 주지를 물려주고 자신은 20리 떨어진 동경사로 가 은거한다. 이후 위산의 법제자인 앙산혜적이 3대 주지, 향엄지한(香嚴智閑)이 4대 주지를 맡았다. 이어서 위앙종 법맥의 문도들이 주지가 되었으나 북송(北宋) 초년에서 청대(清代) 초년에 이르러 위앙종은 임제종으로 합류된다. 밀인사 23대 주지는 석상초원(石霜楚圓)의 법사인 운익덕건(云益德乾)으로 임제종 법사가 밀인사의 첫 주지가 된 것이다.

밀인사에 상주하는 스님이 가장 많았을 때는 3700명에 달했다고 하지만 임제종으로 흡수된 까닭은 무엇일까. 겉으로 보이는 거대한 가람들과 대중의 숫자는 허장성세일 뿐이고, 부드러운 종풍과 화로 속에서 불씨 하나를 찾는 반조의 수행이 이어지지 못했기에 임제종 종사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만 것이 아닐까. 두 말하면 사족일 것 같다. 〈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위산 밀인사 법난 위기에도 크게 융성

위앙종, 북송초~청대초 임제종 합류





하회마을 임수 소나무 숲. 명당마을 중에서도 으뜸인 하회마을은 강물을 끼고 있다,

최연의 산 이야기<36> 소백산 4

하회마을이 서애를 길렀구나

〈西厓 〉

〈정감록(鄭鑑錄)〉의 '삼한 산림비기(三韓山林秘記)'에는 "영남(嶺南) 70개 고을은 땅이 후(厚)하고 산이 수려(秀麗)하여 인재(人才)의 부고(府庫)다"라고 적고 있다. 그중에서도 '하회(河回) 양동(良洞) 삼개평(介坪)'이라는 속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문벌과 지체 높은 각 가문의 세거지(世居地) 가운데 으뜸이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의 풍산(豊山) 유(柳)씨 세거지인 안동 '하회(河回)마을'이다. 둘째가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여주(麗州) 이(李)씨 세거지인 경주 '양동(良洞) 마을'이고, 셋째가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의 하동(河東) 정(鄭)씨 세거지인 경남 함양의 '개평(介坪)마을'이다.

명당마을 중에서도 으뜸인 하회마을은 소백산 남쪽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데, 강물을 끼고 있는 계거지(溪居地)이다.

〈택리지(擇里志)〉에 보면 "무릇 시냇가에 살(溪居) 때에는 반드시 영(嶺)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야 한다. 그래야만 평시(平時)에나 난세(亂世)에나 오랫동안 살기에 알맞다. 이러한 계거지(溪居地)는 영남 예안(禮安)의 도산(陶山)과 안동의 하회를 으뜸으로 삼는다. …(중략)… 하회는 하나의 평평한 언덕이 황강 남쪽에서 서북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서애(西厓)의 옛 고택이 있다. 황강물이 휘돌아 출렁이며 마을 앞에 모여들어 깊어진다. 수북산(水北山)은 학가산(鶴駕山)에서 갈라져 나와 강가에 둘러 있다. 모두 석벽(石壁)이고 돌 빛이 차분하면서 수려해 험악한 모양이 전혀 없다. 그 위에 옥연정(玉淵亭)과 작은 암자가 바위 사이에 점점이 잇달았고 소나무와 전나무가 우거져 참으로 절경(絶景)이다"라고 적고 있다.

명당하회마을은 풍수 지리적으로 강기슭 가까운 곳은 행주형(行舟形)이고, 중앙지대는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이다.

행주형 지세(地勢)에는 돛, 키, 닻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길지(吉地)라 한다. 풍수서에는 그중 하나라도 부족했을 때 마을이나 집안에 우물을 파면 끝내 표류하거나 복멸(覆滅)한다고 전한다.

연화부수형에서는 꽃과 열매를 함께 갖추고 있으며 그 향기 또한 그윽해 걸출한 자손을 배출하고, 오래 번성한다. 다만 마을 집터가 수면보다 낮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높아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하회마을에 풍산 유 씨가 터를 잡기 전에 김해(金海) 허(許)씨와 광주 안 씨가 살았다. 두 가문은 행주형의 지대에 마을 터를 닦으면서 돛, 키, 닻 세 가지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오래가지 못하고 쇠망했다.

반면 연화부수형의 중앙지대에 터를 잡은 풍산 유 씨는 하회마을 감돌아 흐르는 낙동강의 수면과 거의 비슷한 높이로 주춧돌을 놓아 명당의 효험으로 말미암아 6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회마을에서 건너편 부용대(芙蓉臺)를 바라보는 백사장 주변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넓게 자리 잡고 있다. 이 소나무 숲은 단순히 경치를 즐기기 위해서 조성된 것이 아니다. 물과 바람의 위험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림(保護林)으로 이를 '임수(林藪)'라고 한다.

임수란, 산기슭부터 물가에 이르는 평지대의 나무숲을 말한다. 이러한 임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한다. 가장 큰 역할은 보안 기능이었고, 다음으로 군사적(軍事的)·풍치적 기능의 순 이었다. 임수의 기능은 한가지로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담당했던 곳이 많았다.

물가가 있는 마을에서 가장 큰 걱정은 물과 바람의 피해(風水害)다. 그래서 물 가까이에 인공의 숲을 조성해 물이 넘쳐날 때 숲이 물을 흡수하고, 물이 모자랄 때 숲이 물을 뿜어내는 순리적(順理的)인 치수(治水)를 했다. 치수를 한답시고 물가의 숲을 파헤치고 콘크리트 벽을 세우는 무식한 짓은 우리의 옛 조상들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수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에 마을의 대소사를 치루는 만남과 소통의 광장이었다. '마을 숲'이라고도 불리는 임수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정월에 윷놀이 하고 오월에 그네 뛰고 팔월에 씨름대회하고 시월에 강강술래 놀이하던 곳이요, 마을의 길흉사(吉凶事)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던 곳이기도 했다.

조선총독부에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총 201곳의 임수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되고 현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존해나가야 한다.

4대강 개발이라는 미명(美名)아래 대부분의 마을 공동체가 철저히 파괴됐다. 지금도 속도전으로 진행 중이다. 이를 막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 후손들로부터 엄중하게 제기될 것이다.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겨울, 보름달빛, 훤하다

푸르름이 떨어진 나무와 풀과 넝쿨들 사이로 수많은 길들이 열렸다. 그 위로 보름달이 떴다. 하늘을 보니 잎을 떨군 나뭇가지 사이에도 달빛이 꽉꽉 찼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갈비뼈 사이사이로 파고들어 오장육부까지 다 드러낸 빛이 온몸을 휘감는다. 야행성 동물들도 오늘은 나무 아래에 앉아 잠을 잘 것만 같다.

이렇게 넓었구나! 나뭇잎이 차지한 채 앞을 가렸던 공간이 넓다. 가려졌던 공간이 트이니 세상이 배는 넓어졌다. 훤하다. 가지와 가지 사이로 내려온 달빛이 나를 꼼짝 못하게 붙든다. 집에서 숲으로 통하는 길도 열렸다. 나무를 타고 오른 덩굴에 가려 보이지 않던 앞산도 등성이를 드러냈다. 집도 환해졌다. 마루에 늘어놨던 물건들이 지저분하게 보인다. 콩과 호두, 산초열매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것을 치우고, 신문이며 학습지 같은 것들을 담아 귀퉁이에 두었던 종이상자도 치웠다.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톱과 망치와 막대기 등도 치웠다. 지난 봄 비닐봉지에 넣어 마루 밑에 두었던 털신과 등산화를 꺼내고, 대신 마루 앞에 뒹구는 고무신과 여름용 신발을 넣어두었다. 비로소 마루도 훤해졌다.

지난봄부터 겨울이 오기까지, 나무들의 잎에 둘러싸여 지내며 나는 편안했던가? 달빛 아래에 서니 세상과 다투며 불화했던 날들이 뚜렷이 보인다.

어둠이 내리기 전엔 집 앞 묵밭에 떼로 날아온 새들이 시끄럽게 울었다. 작은 새들이었다. 나뭇잎 속에 들면 보이지 않던 새. 나뭇잎 하나로 몸을 가렸던 새들도 하늘 아래 제 모습 하나 숨길 곳이 만만찮은 시절이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새들은 떠들었다. 떠들어 자신을 드러냈다. 감추기 힘들 때 숨으려 함은 오히려 드러냄만 못하다는 걸 내게 알려 주려는 듯 소란스러웠다.

혹시라도 뛰지 마라.
보름달 아래서는 조용히
달빛을 받아먹으며 걸어야 한다.

하늘을 다시 보니 키 큰 나무의 가지 몇 개 가로지른 공간이 조금 전보다 넓고 높다. 잎이 푸르던 계절엔 하늘도 뭉텅뭉텅 가려진 곳에서 살았던 나날이었다. 그래서 편안했던가?

벌거숭이로 드러나는 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겨울이다. 무엇인가에 싸여서 편안한 상태가 이어진다면 그대로 한 세상 보낸다 해도 좋겠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편안한 상태로 놓아두질 않는다. 어떻게든 나와 내 주위를 흔든다. 내 스스로도 나와 나를 둘러싼 것들을 변화시킨다.

앞을 막았던 푸르름이 사라지니 달빛도 넓어진 세상만큼 밝아졌다. 푸르름이 나를 둘러쌌던 시절의 달빛은 그만큼 어두웠다. 그러고 보니 해는 푸르름 위에서 더욱 환하고 달은 텅 빈 세상에서 더욱 환하다.

어젠 소금에 절인 푸른 배추를 붉은 고춧가루 옷을 입혀 땅 속에 넣었다. 처마 밑에 줄을 매고 걸어놓은 무청을 살피니 이미 푸른 빛깔을 유지한 채 바삭바삭 말랐다.

집 주위를 둘러보니 소나무의 푸른빛이 하늘 한 귀퉁이를 여전히 물들이고 있고 땅에도 얼어 죽지 않은 푸른 풀들이 키를 낮춘 자세로 드문드문 깔려 있다. 다가서는 겨울을 보지 못하고 대를 키운 놈은 몸을 뿌리 쪽으로 끌어당기며 둥글게 만들어 주저앉혀 땅에 붙였다.

오후 6시 30분이 막 지났다. 학교에 갔던 아들이 버스에서 내려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길 때다. 달이 뜨지 않은 날엔, 자가발전기가 내장된 손전등을 들고서 '짜그락 짜그락'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발전기를 돌려 얻은 전기로 길을 밝히면서도, 아들은 어둠이 무서워 달리듯 걸어서 집으로 온다. 잎이 지고 풀이 누워서 사방이 훤하게 트였다고는 해도 정류장과 집 사이에 가로놓인 골짜기가 어둠 속에 잠기면 소용이 없다.



오늘은 해보다 밝은 보름달이 길을 비추고 있으니 달빛을 온몸으로 받아 환해진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걸 볼 수 있겠다. 혹시라도 뛰지 마라. 보름달 아래서는 조용히 달빛을 받아먹으며 걸어야 한다.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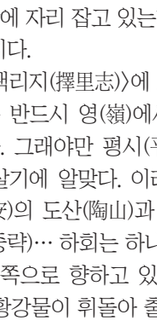
불교달력·불교용품·불교서적 최저할인가격으로 보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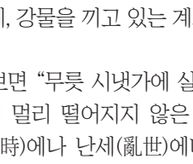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 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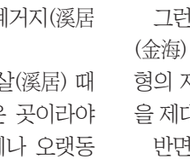

가 금지경전 세트 (3권+ 주머니) @25,000원(10세트이상)


가 경면주사금지 능엄신주 @7,000원(10권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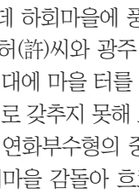

가 금강반야바라밀경 @1,500원(100권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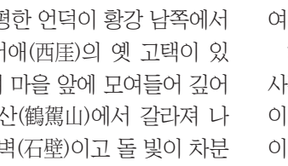

가 반야심경 한문 탑사경 @150원(500장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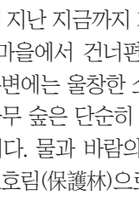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경전사경 제26호

가 한지 108사경 (4종) @14,000원(10권이상)


가 금강경 한문사경 @3,500원(50권이상)


가 자비도량참법 @9,000원(20권이상)


가 금강경 독송용 @2,400원(50권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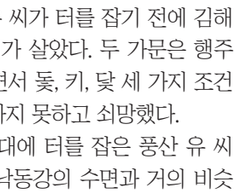
※ 불교서적 법보시 기본 100권 인쇄시 20,000원이며 추가인쇄시 100권당 +10,000원 추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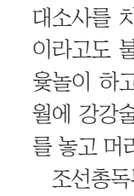

가 공단등(8cm) @3,000원(96개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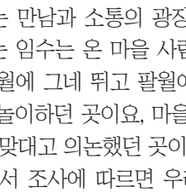

가 비림등(8cm) @3,000원(96개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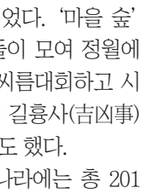

PVC 집게등표(100매)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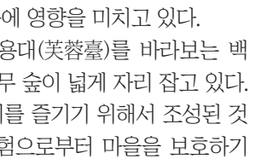

칼라등표(100매)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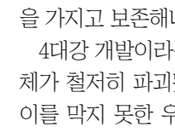

가 무연무취향(1케이스) @12,000원(10케이스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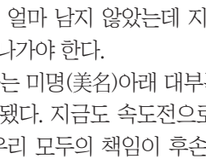

일반밀대(1Box 70개) @10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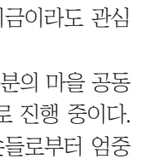

파라핀양초(1.8ℓ 12병) @53,000원


가 주목 백팔주 @8,000원(20개이상)


가 불자수지독송(칼라) @500원(200부이상)


가 생일카드 @300원(1,000장이상)


가 금강경탑다라니 @150원(600장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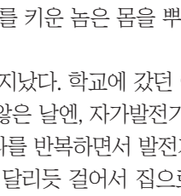

가 심베심재풀이 @600원(200개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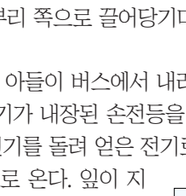
불교용품
- 침향, 주목, 염주, 염주주머니
- 양초, 향, 다포, 악세사리
- 4·8용품, 등표, 전선·전구
- 공단등, 바림등, 만월등, 청사초롱
- 봉축카드, 생일카드, 프린트지
- 예수재용품, 영가옷, 탑다라니
- 축원카드, 용선, 위패, 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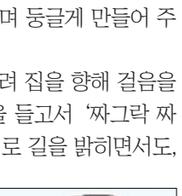
불교서적
- 사경책, 사경지, 한지백팔사경
- 우리말사경책, 제브라붓펜
- 금지경전세트, 불자수첩, 병풍
- 금강경, 법화경, 지장보살본원경
- 예불천수경, 천지팔양경, 보문품
- 백팔대참회문, 불설아미타경
- 한지공책, 사경공책, 권선문
- 자비도량참법, 성불합시다

불교달력
- 국6절(大) (30.5×31.0cm)
- 12절 (25.8×26.5cm)
- 차걸이 (9.0×15.5cm)
- 미니 (8.9× 9.5cm)
- 다이어리 (9.5×13.4cm)
- 탁상 (26.2×19.0cm)
- 한지 (30.0×45.5cm)
- 행복으로 가는 길(18.1×20.0cm)

12절 1,000원 (1,000부 이상)


8호 관음도


16호 부처님의 꽃


14호 반야동자

동진기획·붓다쇼핑 대량구입시 전화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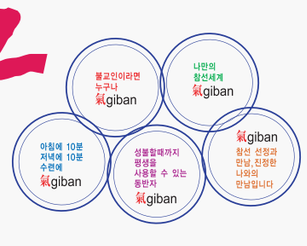
☎(051)515-8888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이메일: dongjin8888@naver.co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삽!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도와 주십시오

36세 비구니 스님으로 조계종 청암사에 출가하여 승가대학 사직과 재학중 몸이 아파 지금까지 15년간 당뇨, 신장염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투석을 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도움손길 기다립니다. 해진 합장
연락처 : 010-9045-521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 범패 염불 교육도량
학인모집 개인지도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 범음범패
사찰 각종 행사대행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 점안식
011-243-3587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범 음 범 패
실제위주 교육도량
천도재, 49재, 점안식, 수륙재,
영산재, 화청, 바라, 나비무, 명리풍수
각종 불공 행사전문
1학년 무료강의, 학인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예술원)

태극기를 알면 삶이 행복하다
국민건강의 지혜가 담긴
한의학, 명리학, 풍수학을
무료 강의합니다. (스님환영)
"스님과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
(돈오견성 체험)으로의
여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열린시민선방
010-3045-0085

수강생 모집
철학반 • 무속반
승도반 • 치유반
도건명리학당(불당사)
042)526-1123
010-3452-1123

입 종 안 내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전통종단이며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도첩, 법계증, 사찰등록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있으신 분
입종을 환영합니다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567-2(성불사)
총무원 051)204-8494

신기하고 묘한 인연
병원에 가도 치료는 안되
고 본인도이해가 안되며
고통의 시간만 보내는 분.
무료체험 : 스님 봉사
송파구 귀 보광사
010-2065-7304

스님 초빙
부산, 대구에서
열심히 할동하실 분
가정과 회사방문
기도 및 상담
대불정능엄신주 기도함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대덕 작명 아카데미
국제작명사 등록번호 : 45832
작명수강생 모집
• 1개월 속성반
• 2개월 전문인반
053)768-4523
010-8574-33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1-527-063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북한산성 용암사
011-9350-321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010-9318-3230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대한불교 구화조계종 총본산 구화사
함께하실 종도스님,
학인스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
불교 모든 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의식,49재,영산대재, 천도재등
054)977-9733
010-9421-9364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7232-0384

佛敎儀式 (범음, 범패) 學 人 모 집
효타암에서 불교의식 전문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천수경, 행선축원,
상단예불 및 각단예불 등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천수바라, 시식 등

• 모집인원 : 약간 명
• 원서접수 : 수시접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의식 교육원 효 타 암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경북 군위군 부계면 금륜사
051)524-9406 / 010-6569-1010 (법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51)467-3316
010-8526-335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당 노원구 중계동
▷60세 이하, 출퇴근 가능 하신 분.
02)3391-8523
011-9002-8523

부전스님 모십니다
사찰운영 함께 하실 분.
공양간, 법당 도와 주실 분.
가정적인 사찰입니다
▷부산
051)242-1684

천지 약불사
신통한 스님
한번에 두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드립니다.
모든 병과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드립니다.
주지 성훈스님 합장
010-8955-9562

영가를 쉽게 찾는 방법
띠와 생일만 알면 됩니다
보시금 10만원
농협 356-0394-311943 이정화
010-6662-8853

청소년 빙의
100% 치유
학업성적향상
부처골 지장선원
www. jijangsw.com
054)383-8553
* 퇴마의식 비법전수 *

대 방 등 신 통 기 도
●큰 서원이 있는 스님은 전화를 하십시요.
☎ 032)664-0048 / 011-741-0867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전 통 침 술 개 인 지 도
개인지도 내용 . 침구학 기초이론
전통침술 및 사암침술 . 경혈취혈요령과 자침실기
교육기간 : 1주 1회 4시간씩 2개월간 또는 1주 2회 4시간씩 1개월간
교육방법 : 실습을 겸한 개인지도 형식이며, 방문지도 함(전국)
전화 : 010-4054-7110
2개월의 개인지도로 자신있게 침을 놓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blog.naver.com/kppass7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침술의학연구소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뉴욕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저자 우학스님 직강
화, 금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문의 : 전화 053)474-8228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전화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수 행 자 모 집
물질 문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심신의 조화와
안정을 위한 선무도와 무극 봉술,
전통예술 (대금,단소,호적, 학춤 등..)을 연마하고
전통의식 (범패,바라무)을 배우면서
종합심신 수도도량을 같이 가꾸어 나갈 수행자를 모십니다.
동선사 주지 합장
010-9314-0950

승복·전통복식 30년
www.kyksb.co.kr
김윤경승복 · 우리 옷
- 30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기획상품
(이중직)적삼 바지 ~~150,000원~~ → 80,000원
— 겨울신상품 —
(목화솜누비)적삼 바지 ~~300,000원~~ →180,000원
(목화솜누비)동방 바지 ~~350,000원~~ →220,000원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서울점 점주 1명 / 영업사원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농협 178424-56-036570(예금주 : 김윤경)

2011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3기 수강생 모집안내문
스님!!!
사주명리학을 배우십시오.
명리학은 점술류가 아니며 학문입니다. 사찰을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께만 무료로 6개월간에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주명리학을 완전히 터득하실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1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0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기 수강생은 전국에서 160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장소 : 제1장소 : 성지관음회 법당(매주 화요일 오후1시~5시까지)
제2장소 : 부산강의실(경상도 지역 스님들을 위한 교육장소)
(매주 토요일 오후1시~5시까지)
◎일시 및 기간 : 2011년 3월초 부터 6개월간
◎수 강 료 : 6개월간 무료
◎신 청 :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읽어 보시고, 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신 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3리 704-1 성지빌딩
전화:031)768-8414~6 팩스768-8413

공 념 학 당 육임수강생 모집
1. 지금까지 육임을 배우고도 자신이 없어서 육임을 못하시는 분
2. 육임과체가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
3. 육임이 잘 맞는지 알지만 어렵워서 육임을 시작못하시는 분
4. 명리나 타학문을 배우고 명확히 점사를 볼 수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분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육임에
엑기스를 추려서 비법강의를 합니다.
엑기스 강의이므로 더 이상 육임 공부가
필요 없도록 지도 합니다.
기간은 3개월 완성이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육임이 보이게 될것입니다.
육임은 확실히 공부만 되면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점사를 알수 있습니다.
■ 초급반 : 수요일 3시 / 수강료 150만원
■ 완성반 : 토요일 (11시반, 오후 5시반)
수강료 100만원
■ 동영상강의 : 80 강 150만원
720 국수 cd 100 만원
공 념 학 당
02)793-7333 / 018-471-6410 용산구 보광동
saju79.com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불자정보

▷ 문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중앙 돌출 500,000 / 하단 먹 7cm 100,000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평택시 소재
- 아파트 및 상가지역 6층건물
- 평수 4층 70평(법당)
- 6층 70평(요사채) 각층 전체
- 삼존불 (동불) 및 후불탱화, 지장, 신중탱화, 관음지장 , 호신불 108위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상담

031)672-3353 / 031)677-9950~1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동해안)
- 법당 : 25평(목조)
- 요사 : 50평(목조)
- 부지 : 270평
- 가액 : 4억 5천

- 위치 : 경남
- 법당 : 60평
- 요사 : 120평
- 부지 : 20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경북
- 법당 : 60평
- 요사 : 110평
- 부지 : 1,200평
- 가액 : 2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한 국 불 사

- 서울근교 (APT밀집지역, 재래시장근접) 교통주차 편하고 산세수려함
- 대지 약 160평, 2층 목조법당
- 가액: 10억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 부개역사거리 대로변
- 3층건물 중 2층 실평수 35평
- 아미타불,관음세지협시불,지장보살
- 산신탱화, 용왕탱화, 후불흑탱화
- 방2, 도시가스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780만원

011-729-6011
032)614-6011

바닷가기도처안내

- 위치 : 포항 북구
- 전망좋은 바다와 도로 접한 기도처 자리
- 대지 65평, 건평 22평
- 텃밭, 마당있음
- 급양도가 7500만원

010-6474-5903

절(사찰)요양시설

복 지 시 설

- 경남 산청
- 농장, 약초재배단지 다용도
- 3만 5천평
- 가액:17억 5천만원

02)739-500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시내인접)
- 대지 약 265평
- 건물 2동, 공양실 별도
- 법당 30평, 요사 30평
- 방 3, 주방, 거실, 화장실 3
- 가액: 4억 5천만원

010-8643-6676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강서 아름다운 절

- 총대지 : 348평
- 법당(신축) 약 40평, 요사, 방3칸 지장전, 산신각
- 주차장 300대, 사찰 뒤편 산
- 가액: 5억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 310평
- 법당 30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25평
- 용왕당
- 금정산 솔밭 자락(온천동)
- 가액: 7억 3천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포 교 원 안 내

- 부산 동래구 온천시장정문 앞
- 3층상가 건물에 2층 법당
- 평수 50평. 방2,주방1,화장실,욕실
- 최고시설, 도심속에 최고위치좋음
- 가액 :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247-0180

토 굴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 우포늪속
- 대지: 정남향 360평
- 법당, 조립식 24평,
- 다용도실 24평, 단청필
- 요사, 적벽돌기와 27평
- 황토방 4평, 석탑
- 진입로 좁은점이 흠
- 가액: 2억. 대출 약간

010-6582-2848

포교원(급)안내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822-8 부산지방 병무청 건너편
- 법당 30평(삼존불개금불사)
- 4층건물 2층(30평) 법당, 공양간, 방1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는 답사 후 절충가능

010-6654-8590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광양시
- 총 500평중 대지 300평
- 건물 약 65평
- 가액 : 3억 (조절가능)
- 경관이 좋고 마당 밑 계곡이 있음

055)855-5950
010-3018-7005
010-4876-89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1200만원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합천호 주변
- 경관수려하고,건축허가 가능
- 진입로 포장되어있음
- 임야 . 논 총 954평
- 가액 : 7천 5백만원

011-848-245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 평수 : 40평
- 시설 완벽한 법당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 전세 1000만원 월 35만원

010-6589-4550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무안군 삼향면 소재
- 대지: 230평
- 건물: 대웅전 30평, 공양간, 요사채(방2개)
- 가액: 1억 3천만원

010-7607-7488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온천동
- 평수 약 5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위치, 시설 A급
- 시설비 1천만원

051)502-7721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 40평
- 요사채(1, 2층) :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4억 3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즉시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강서구 화곡동
- 위치 상급,법당 총 7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는 상담 후 결정
- 부처님 5불, 시설완벽
- 살림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6272-7842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가액 : 1억 2천만원 (대출 4,500만원)

011-9393-4965

사 찰 안 내

- 충북 오창에서 천안시 중간
- 부지 : 2000여평
- 법당 : 목조 30평, 관음전 목조 25평
- 요사채 2층건물 1동, 1층건물 3동(방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 13억
- 꼭 사실분만 전화 주세요

011-412-2464

터키산 최고급 카페트 글로리아

2010년 신상품으로 정통유럽황실의 화려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불자님의 가정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 고밀도 카페트를 만들기 위해 현대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파일 원사의 두께를 가늘게 제작하여 터치감이 부드럽고, 초고밀도의 카페트로 이물질이나 미세먼지가 끼지 않아 청소가 용이합니다.

· 최고밀도의 제품이기 때문에 탄력성과 원사 복원력이 뛰어나면 섬유와 섬유사이에 많은 공기를 함유하고 있어 보온의 효과가 크고 열전도율이 낮아 에너지의 절약과 실내 습도조절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 소재 : 파일 Heatset P.P100%, 뒷면 – 마 100%
· 파일높이 (두께) : 약 9mm · 원산지 : 터키
· 규격 및 가격 : 200 x 290cm / 430,000원
240 X 330cm / 560,000원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교원안내

- 위치: 대전 중구 대흥동
- 평수 90평, 3층
- 요사 30평, 4층
- 시설 A급, 모든시설완비
- 법회 중, 몸만 오시면 됨
- 삼존불, 후불, 인등 300등, 관음원불 80불, 삼성각
-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42)257-673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포교활동 적지
- 대지 : 149평
- 법당 : 20평 단층기와
- 요사채 기와(2동)
- 가액: 4억 7천만원 (개인사정으로 양도)

011-811-5466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읍 아파트 주택밀집지역,시장3분거리
- 4층건물 중 2층
- 상단후불탱화,신중탱화,삼존불외지장단
-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집기일체
- 주차장완비, 전체평수 약 4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1-544-9777

토굴터안내

- 위치: 거창군 가북면 중감마을에서 500M
- 현재 묵은 논, 2필지, 1017평
- 남향, 해인사 뒷산
- 깊은 산속 시원한 계곡물
- 가액: 2천 5백만원

011-9393-4965

대 사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웅전 108평, 무량수전 50평 외 강당, 요사
- 부대시설 현대식 완비
- 부지 3800평, 주차 동시 80대
- 가액 : 37억
- 가능자 면담

010-9580-3712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보은IC 10분 거리
- 대지 200평, 조립식 법당 25평, 전답 1,6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평당 1만 4천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9967-983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 620-66
- 대지 131평 • 건평 1,2,3(120평)
- 1층 공실, 2층 요사채, 3층 법당
- 심야보일러, 생활하기 편리함
- 가액: 4억 5천만원

055)221-3623
010-3578-5311

요양 토굴안내

- 위치: 대구시내 두류동 주택2층 독채 (6차선 도로접,주차가능)
- 법당,황토 흙침대방,기타...
- 보증금 2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500만원
- 항암 치료나 당료 합병증으로 병원치료중 면역이 떨어져 힘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스님, 불자께서 요양 하시면 나을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010-8524-2460
010-4191-0455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동구 불로동
- 2층 전체 45평
- 법당,방2개,주방, 거실,배란다
- 약사관음,산신, 신중후불탱화 108호신 원불,영가당
- 보증금 3천만원 월40만원

010-7766-62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 명당
- 가액: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010-4876-5535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중구 남성로 약전골목 32번지
- 2층, 3층 합 60평
- 3층 법당, 2층 요사, 방3개, 식당 거실
- 인테리어-황토방 시설A급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는 상담 후 결정

010-2461-1626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영월
- 대지 450평, 법당15평(단청), 객실 현대식: 32평, 객실: 10평 산신각:4평 창고: 7평 화장실: 2개
- 특징: 물수질과 맞은 한국에서최고. 경내까지포장, 주차장에승용차20대주차가능
- 심야전기나무보일러및기름겸용
- 유실수및벚꽃나무,연산홍및여러가지꽃나무300주이상
- 텃밭 • 60년전통사찰
- 가액: 2억5천육백(가격절충가능)

010-2263-9750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시내 중앙 산밑
- 최고요지 남향
- 대지 186평
- 법당, 목조, 신축 25평
- 요사 2동 26평
- 주차 10대 가능, 지하수 사용
- 가액: 4억 5천만원

018-554-6198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동구 신암동
- 상가2층 30평
- 법당,방2개,주방
- 삼존불,신중단, 후불탱화, 산신,영가단,원불60불 모심
- LED간판 설치되어있음
- 보증금500만원 월2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1-549-382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6000평, 실등기 5000평)
- 대지(종교용지)약 700평 어떤행위던 허가 나는 준보전 임야 43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5평), 요사채(약40평) 2동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4억

011-816-9104
010-3815-9104

포 교 원 안 내

- 위치:부산 온천사거리 부산은행 맞은편
- 평수 58평, 방2, 주방, 화장실2
- 삼존불,아미타불,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모셔져있음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010-8566-9799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죽전동
- 3층건물 2층, 45평
-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 방2개, 주방겸 넓은 거실 살림가능
- 도심속 위치 좋음
- 시설비 상담후 절충

010-6616-80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내방 절충

010-3302-1821
055)638-18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재송동 재송시장 부근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완비, 80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9773-8532

포교원안내

- 위치: 경북 구미시 지산동
- 뒤에 산이 있고 조용하고 깨끗함
- 단독주택 2층, 방2, 거실, 주방, 화장실
- 기도, 상담, 의식하기 아주 편리함
- 가액: 보증금 없음
- 삭월세 12달 250만원
- 시설비 350만원 (약간절충)
- 개인사정상 급
- 누구라도 만족할 장소

017-217-1919
010-8860-0828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 597번지
- 총 245평
- 건물: 반지하 및 1층, 96평

010-2031-6031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6000평, 실등기 5000평)
- 대지(종교용지)약 700평 어떤행위던 허가 나는 준보전 임야 43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5평), 요사채(약40평) 2동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4억

011-816-9104
010-3815-9104

사찰안내

- 위치 : 경주
- 한옥 부속건물 2동
- 교통편리
- 평수 152평
- 가액: 8천만원
-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010-4586-8763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 평수 46평. 교통편리
- 보증금 4천만원, 월 14만원
- 시설비 2800만원
- 시설일체 완비
- 현재 법회중

010-8631-6333

암 자 안 내

문화재가 있는 암자

- 신라천년미륵불 있는 사찰 종교용지
- 위치: 경북
- 미륵불 기도실
- 삼존불, 법당, 요사채 방4칸
- 평수 약 300평

010-6474-5903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죽전동
- 3층건물 2층, 45평
-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 방2개, 주방겸 넓은 거실 살림가능
- 도심속 위치 좋음
- 시설비 상담후 절충

010-6616-8025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 4층건물 중 3층 75평
- 1000/75 시3000 =합 4천만원 버스정류소앞 재래시장30M
- 대명5동 지하철역 30M
- 서울 포교원과도 맞교환원함

053)657-0151
010-2273-763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가곡면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2억 2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0-8993-359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재송동 재송시장 부근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완비, 80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9773-8532

포교원안내

- 위치: 경북 구미시 지산동
- 뒤에 산이 있고 조용하고 깨끗함
- 단독주택 2층, 방2, 거실, 주방, 화장실
- 기도, 상담, 의식하기 아주 편리함
- 가액: 보증금 없음
- 삭월세 12달 250만원
- 시설비 350만원 (약간절충)
- 개인사정상 급
- 누구라도 만족할 장소

017-217-1919
010-8860-0828

사찰안내

- 위치 : 경주
- 한옥 부속건물 2동
- 교통편리
- 평수 152평
- 가액: 8천만원
-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010-4586-8763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 평수 46평. 교통편리
- 보증금 4천만원, 월 14만원
- 시설비 2800만원
- 시설일체 완비
- 현재 법회중

010-8631-6333

암 자 안 내

문화재가 있는 암자

- 신라천년미륵불 있는 사찰 종교용지
- 위치: 경북
- 미륵불 기도실
- 삼존불, 법당, 요사채 방4칸
- 평수 약 300평

010-6474-5903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죽전동
- 3층건물 2층, 45평
-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 방2개, 주방겸 넓은 거실 살림가능
- 도심속 위치 좋음
- 시설비 상담후 절충

010-6616-8025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 4층건물 중 3층 75평
- 1000/75 시3000 =합 4천만원 버스정류소앞 재래시장30M
- 대명5동 지하철역 30M
- 서울 포교원과도 맞교환원함

053)657-0151
010-2273-763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가곡면
- 대지 300평, 법당 40평
- 요사채 60평, 방 10개, 화장실 3개
- 뒤는 기도처로 좋고 돌탑 앞에는 계곡물이 흐름
- 산신각, 심야보일러 2개
- 가액: 2억 2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0-8993-359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재송동 재송시장 부근
- 4층건물에 3층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완비, 800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9773-8532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5동 3층건물 중 2층
- 약 45평. 삼존불, 욕실, 화장실, 주방, 종무실 겸 방 2칸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모든시설 완비(시설 A급), 시설비 1천 5백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010-5535-6487/053)522-6487

김경현 원장의 **몸·마음 이야기**

숙취 해소에는 차가 으뜸

술은 '모든 약의 으뜸(百藥之長)'으로도, '모든 독의 으뜸(百毒之長)'으로도 불린다. 술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가 하면 대인관계에 윤기를 더한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자신과 집안을 파괴하고 이웃에게까지 화를 미쳐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

불가에서 술은 곡차라고 한다. 곡식으로 빚은 차라는 뜻이다. 차는 마실수록 정신을 맑게 하며 이웃의 마음을 풍성하게 한다. 술이 절제될 수 있을 때 술은 곡식으로 빚은 차의 역할을 한다.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할 정도가 되면 술은 단지 독에 불과하다.

술을 마시면 금방 얼굴이 달아오르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다. 원초적으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다른 사람보다 적은 까닭이다. 이런 사람에게 술은 독이나 마찬가지다. "술은 마시면 무조건 늘게 돼 있다"는 믿음은 살생의 시작이 된다.

술의 뜨거운 성질(火氣)을 내리고 수분대사를 활발하게 하며 알코올의 농도를 낮추고 분해한다. 술을 마신 직후 녹차를 내는 것은 생활의 지혜이자 여유이다. 술자리의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알코올의 분해를 바로 시작하는 방법이다. 숙취를 해



녹차 · 인삼차 · 칡즙 등 알콜 해독
술 깨는 약은 근본적인 해소책 안돼
미지근한 온탕욕도 숙취 해소 좋아

술 달게 느껴지면 알코올 중독 시작
이때부터 술친구 찾거나 혼자도 마셔
손 떨리고 피곤하다면 치료 필요

술을 마시다가 점차 단맛을 느끼기 시작하면 알코올 중독의 첫 단계를 의심해 봐야 한다. 이때부터 술친구를 찾거나, 혼자 술을 마시는 결과를 낳는다. 만약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거나 손이 떨리고 권태와 피로가 온다면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

술은 장에서 흡수돼 간에서 대사가 이뤄진다. 술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이 알코올성 간질환이다. 알코올로 간에 이상이 오면 간이 커지고 딱딱해지며, 간세포 사이에 지방이 쌓이게 된다. 여기서 장기간 과음하면 체중이 감소하고 무력감과 식욕이 떨어지는 간경변으로 바뀐다.

술은 간에 이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침의 분비를 억제시켜 식도암을 일으킨다. 또한 위액의 분비를 줄여 위 점막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장의 흡수기능을 나쁘게 해 설사가 난다. 알코올은 열량 이외에 다른 영양소가 없다. 필수 영양소의 양을 희석시키고 영양소 섭취도 감소하게 한다. 단백질 결핍과 빈혈을 불러오며, 심할 경우 알코올성 실어증에 이른다. 여성의 경우 알코올중독은 성장이 부진하고 기형적이며 지능이 낮은 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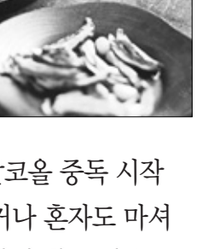
숙취는 술을 마신 다음 구토를 하거나 머리가 무겁고 식욕이 떨어지며 전신이 무력감에 빠지는 것이다. 이 경우 대체적으로 간 기능 회복제나 '술 깨는 약' 등을 찾기 마련인데, 좋은 습관이 아니다. 약에 의존하는 것은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소책은 아니다.

숙취해소에 가장 좋은 것은 전통 차다. 녹차는 소하는 데는 수분과 당분, 알코올 분해효소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것이 바로 칡(갈근)즙이다. 칡즙이 없으면, 칡뿌리 100g정도에 물을 500cc 정도 넣어 1시간가량 은근한 불로 달이면 된다. 감초와 오래된 귤껍질(진피)을 조금 더 넣으면 훌륭한 갈근탕이 된다. 시중에 파는 갈근탕을 복용해 효과를 얻으려면 최소 3병은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녹차와 칡즙 이외에 인삼차도 숙취를 해소하는데 좋다. 인삼은 기를 강화하고 진액을 나게 해 갈증을 없애주며 중화 해독작용이 뛰어나다. 꿀물 역시 수분과 당분, 그리고 여러 무기물질을 보충할 수 있어서 숙취해소에 좋다. 이밖에 간을 보호하는 아미노산이 많은 음식으로는 북어국, 배추국, 무콩나물국, 무즙, 잣죽, 오이죽, 토마토주스 등을 들 수 있다.

숙취해소에는 목욕도 좋다. 그러나 고온욕은 피하고 미지근한 온탕을 즐겨야 한다.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목욕전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지나친 고온욕은 탈수와 아울러 순간적인 혈압상승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해장술은 절대 금물이다. 해장술은 단순한 마취작용일 뿐, 간 손상을 일으키고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선재한의원** (02) 518-0845





정미화 원장의 **건강한 구강 관리법**

오징어 안주 조심하세요

질긴 안주 턱관절 무리 치아균형 '흔들'
와인은 치아변색 촉진 음주 후 꼭 양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치아가 더욱 시리다고 한다. 치아가 시리다고 느껴지면 치주염일 가능성이 높아 바로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날씨가 추워져 이가 시린 것이 당연하다 여기고 방치하면 치주염을 키우게 돼 치료하기가 힘들어 진다.

치주염은 치아 주위 잇몸에 염증이 생겨 신경 전달체계를 예민하게 만든다. 그래서 치아를 시리게 만드는 것이다. 잇몸치료를 통해 치주염을 빨리 치료하시는 것이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해 중요하다.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져 양치질을 할 때 뜨거운 물을 많이 사용한다. 그럴 경우 치아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을 경우 피부에 무리가 오는 것과 같다. 너무 차가운 물로 양치질을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뜨거운 물도 좋지 않다. 겨울철 양치질은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연말과 연초가 다가오면서 자연스레 많은 술자리를 갖게 된다. 이럴 경우 술과 안주를 먹게 되는데, 많은 양의 술과 안주는 치아에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 과음은 당연히 치아를 비롯해 몸에 무리를 오게 만들며, 과하게 먹은 안주는 많은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 치주염을 악화시킨다. 오징어, 육포 등 질긴 안주는 턱관절에 무리를 줘 치아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술에 취하면 양치질을 하지 않고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술과 함께 섭취한 안주들이 입안에서 밤새 충치 균을 활성화 시킨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잇몸이 붓고, 치주염이 발생돼 치아에 불편함을 준다. 특히 와인은 치아 변색을 촉진시키므로 양치질이 반드시 필요하다.

술자리에서 술과 음식은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자리를 모두 피하기는 어렵다. 대신 염분이 많은 음식보다는 야채를 많이 섭취해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양치질을 해야 한다.

또한 가까운 치과를 방문해 간단한 검진을 받아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겨울철 치아관리는 간단한 것 같지만 잊어버리고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다.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해 즐겁고 건강한 겨울 보내기 바란다. **연우치과** (02) 733-1030



Dr. 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좋은 자세는 기억력도 좋게 한다

자세는 오랜 기간 형성되므로
어릴 때부터 바른 습관들여야
바른 자세 보기에도 아름답다

바른 자세를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세가 체형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휜 다리와 척추문제는 나쁜 자세로 인한 중력의 집중과 척추의 만곡이 잘못돼 발생한다. 잘못된 척추의 만곡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허리, 목, 다리 등에도 비틀림 현상을 일으킨다. 휜 다리 및 척추 문제를 개선하거나 예방하려면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최우선 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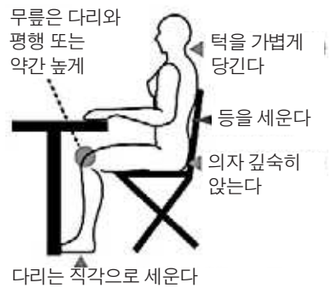
운전자나 골프처럼 계속해서 편향된 자세로 일과 운동을 한다든지,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앉아있거나, 잠자는 것이 습관화 되면 중력이 한 부위에만 집중돼 몸의 중심인 척추가 흔들려 체형이 비틀어지고 휘게 된다.

올바른 자세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걸음걸이는 아랫배를 의식하면서 항문을 긴축한 채 걸음 검음을 크고 넓게 걸어야 한다. 마치 위에 매달려 있는 느낌으로 자세를 유지한다. 이때 주의 할 점은 발끝이 안으로 향하지 않게 하며, 발뒤꿈치부터 닿게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바르게 가방 들기이다. 가방을 어깨에 메면 대체적으로 한쪽 어깨가 올라가 있다. 가능한 무거운 짐은 피하고 가방을 좌우 교대로 자주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깨에 메는 숄더백보다는 손에 들고 다니는 가방이 어깨에 부담이 적다. 배낭은 숄더백이나 휴대용 가방보다 몸에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친다. 그러나 손잡이가 짧다면 자세가 나빠지므로 약간 긴 것을 선택하면 좋다.

세 번째로 올바른 수면자세는 큰 대(大)자로 자는 것이다. 몸을 위로 향한 채 팔과 다리를 가볍게 벌리는 것이 수면자세의 기본적인 바른 자세다. 다리가 'O' 다리인 경우 무릎 아래에 베게 넣고 다리를 올리고 자면 좋다. 엉덩이가 많이 튀어나왔거나 요통이 있는 경우 똑바로 자는 것이 힘이 들 수 있으므로 양 무릎을 모아 옆쪽으로 자면 좋다. 이 때 가끔 신체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 좋다.

네 번째는 바르게 앉는 방법이다. 전체적으로 한 곳에 체중이 몰리지 않도록 앉는 것이 중요하다. 두 다리가 앞 쪽으로 바르게 향해있으며 엉덩이 2~30cm 정도 뒤에 손을 대고 앉는 방법입니다. 엉덩이의 살 중심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기분으로 앉으면 좋다. 양 무릎을 세워 앉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무릎을 너무 굽히거나 몸을 너무 일으키면 엉덩이의 뼈가 바닥에 닿아 엉덩이가 퍼지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좌시에는 무릎 사이는 주먹 한 개가 들어갈 정도로 비워두고 발뒤꿈치에 균등하게 힘이 가해지듯 앉는다. 정좌 때 주의할 점은 두 다리를 바르게 교차시켜야 한다. 그러나 장시간의 정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장시간의 정좌는 다리를 휘게 하는 원인이다.

다섯 번째로 의자에 바르게 앉는 방법이다. 다리에 알맞은 의자 높이는 무릎과 발목이 90도 정도이다. 양 다리와 양 무릎을 가지런히 앞을 향하게 앉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등도 곧게 펴는 것이 중요하다. 등을 필 때에는 가슴이 뒤로 젖혀지지 않게 자연스러운 상태로 유지한다. 만약 자세가 불편하면 다리를 어깨 폭 정도로 넓힌다. 다만 무릎과 다리 사이가 같은 폭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다리는 절대 꼬아서는 안 된다.

자세는 오랜 기간 형성되는 것이므로 어렸을 때부터 바른 자세를 갖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바른 자세는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건강하게 보전시키며 기억력을 증진시킨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병을 예방한다. 때문에 부모들은 소중한 자녀를 위해 바른 자세를 갖도록 신경써야한다. 좋은 자세는 아름다운 체형과 바른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길이다.

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1544-9697

해동불교 임제종
제1세 부종정 심우당 혜정 대종사 49제

귀의삼보하옵고,
불기 2554년 11월 3일(음 9.27) 열반하신
해동불교 임제종 제1세 부종정 심우당 혜정 대종사의
화장을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각계 각층 원로대덕큰스님과
사부대중에게 다시한번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 **회향일 :** 불기 2554년 12월 21일 (음 11. 16)
수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남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25-1번지 반야암
■ **백일제 회향일 :** 불기 2555년 2월 10일(음 1. 8)
목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33-4번지 청암사
■ **전 화 :** 061)644-7273

증 명 : 대종사 적진당 지암
위 원 : 해광, 도명, 도오, 도산, 성법
집전위원 : 법산

해동불교 임제종 종정 대종사 적진당 지암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지리산 야생국우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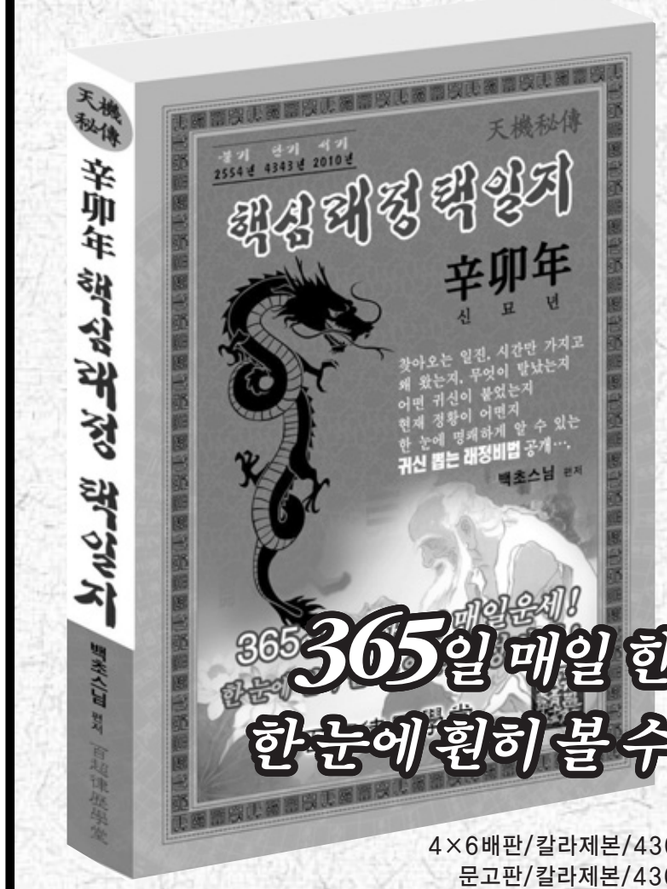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우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에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TEL 063)631-0108 / FAX 063)625-2946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화제의 신간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매일 운세 보는법 공개….
365일 매일 한 장씩 매일운세!
한 눈에 훤히 볼 수 있는 래정비법!
4×6배판/칼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문고판/칼라제본/436쪽/정가 10,000원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百超律歷學堂 (02) 3667-4446
010-3813-4443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⑰ 청주(靑州) 용흥사(龍興寺)

일광삼존불, 한 · 중 불교교류의 증거



용흥사지에서 발견된 '광배 하나에 삼존불이 같이 모셔진' 일광삼존불(一光三尊佛)의 양식은 한국과 중국불교문화의 연관성을 말해준다.

중국 허난성(河南省)을 넘어 동쪽으로 오면 산동 땅에 이른다. 산동은 예로부터 한국과 연관이 많다. 북위 당시 산동을 점령한 군대가 당시 북위의 수도였던 대동지역까지 이주민을 옮기는 과정에서 "산동 육주의 백성과 고려인 36만 명과 기술자 10만여 명을 수도에 이주시켰다"고 기록할 만큼 산동 지역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산동지역에 한국불교와 관련된 유적들이 많다. 그 중 가장 흥미로운 곳이 바로 용흥사(龍興寺)이다. 용흥사는 훗날 당나라에서 한국 승려를 위한 '신라원(新羅院)'을 설치해, 한국과 인연이 더 깊다.

청주(靑州) 용흥사는 청주부내에 있었던 사찰이다. 청주부는 현재 산둥성(山東省) 청주시로, 756년 절도사가 설치돼 산둥성 일대를 관할하던 곳이다. 당대(唐代)에는 산동성의 중심지였다. 1996년 청주박물관 확충공사 당시 용흥사에서 유물군이 대거 나와 세상을 놀라게 했다. 박물관 공사 당시 박물관 남쪽에서 구덩이가 발견됐고, 그 안에 인위적으로 파괴된 불상 400여 구가 발견됐다. 이는 당시 고고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구덩이 안 불상들은 상 · 중 · 하 3개 층으로 정연하게 매몰돼 있었다. 비교적 온전한 불상들은 구덩이 중심부에 놓여 있었고 불두들은 벽에 붙여 있었다. 유물의 시기는 북위부터 송대까지 이르렀고, 구덩이는 송대 이후 파헤쳐 진 것으로 추정된다.

〈대청일통지(大淸一統志)〉에는 "용흥사는 청주부 북문 밖 남양교 북쪽에 있었으며 북제(北齊)때 남양사라고 불렸다"고 기록돼 있다. 〈익도현도지(益都縣圖志)〉에서는 "청주부 서북쪽에 있었다"고 기록했다. 이 기록의 차이는 발굴 결과 청주부 내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96년 출토된 유물로 보아 이미 북위(北魏) 당시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면적은 9000㎡에 달하며 남북 3열로 된 3개 동의 원(院)과 대전과 승방자리도 확인됐다.

청주 용흥사 유물은 과거의 새로운 편린이 현대로 돌아온 놀라운 사건이다. 이 중 우리나라 불교전래 시기와 관련 있는 유물 중 기록이 남은 것은 미륵삼존상이나 석가모니불이 주를 이룬다. 이 불상들은 삼국시대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초기의 중국불교 사상은 복잡하게 전개됐다. 반야계통의 공사상이나, 열반계통의 불성론, 각종 논서를 비롯한 사상들이 중국 땅에 흘러 들어왔다. 이러한 사상의 흐름 속에서 법화사상을 배경으로 한 석가모니불이 주류를 이뤘다.

〈법화경〉은 대중적인 경전 중 하나이다. 또한 불상이나 탑의 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적 뒷받침을 해준다. 이러한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은 북위시대 무수한 석굴과 탑, 불상들에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조성된 불교문화는 당시 동아시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흐름의 한 쪽에 무수한 세월을 땅 속에 묻혀 지낸 용흥사지의 불상들이 시대를 건너서 우리들에게 한국불교와의 관련성을 말해주고 있다. 용흥사지에서 발견된 '일광삼존불(一光三尊佛; 광배 하나에 삼존불이 같이 모셔진 양식)'은 이러한 용흥사지와 한국불교문화와의 연관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초기 유물 중 일광삼존불이 보이는 것만 보아도 이러한 연관성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용흥사지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곳이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62

부설(浮雪), 그가 서성이고 있었다



지난해 겨울, 노장 한 분을 만나러 월명암에 갔었다. 부설 거사가 세웠다는 암자는 부설의 이름이 생각난 듯 하염없이 눈을 맞고 있었다.

불도를 닦던 부설은 20년 만에 입을 연 묘화의 청혼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도반들과 이별을 하고 묘화와 혼인을 한다. 아들 등운과 딸 월명도 낳는다. 어느 날 도반들이 부설을 찾아온다. 자신들의 공부를 뽐내며 부설을 딱하게 여기던 도반들은 뒤늦게 부설의 공부에 놀라며 고개를 숙인다. 부설의 이름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엔 눈이 내렸다고 한다.

내리던 눈발이 잦아들었다. 안거 중이던 스님들이 포행을 나왔다. 찾아간 노장은 후학들과 함께 안거 중이었다. "먼 길 왔으니 공양부터 하세요." 노장의 법문이 기다리고, 월명암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부설, 그가 어딘가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사진부 차장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24도 불설아미타경

삽화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섯 가지 나쁜 것으로 더렵혀진 악한 세간에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위해 아미타불 염불의 가르침을 설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면 오른쪽에는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전각이 그려져 있고, 왼쪽에는 여래가 설법하고 있다. 여래의 백호에서는 양쪽으로 길게 광명이 뻗쳐 있고, 옆에는 스님 한 명이 시립하고 있다.

오탁(五濁)은 말세에 발생하는 피하기 어려운 사회적 · 정신적 · 생리적인 5종의 더러움으로 겁탁(劫濁), 견탁(見濁), 번뇌탁(煩惱濁), 중생탁(衆生濁), 명탁(命濁)을 말한다. 본문에 등장하는 오탁악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익 대사의 〈아미타경 요해〉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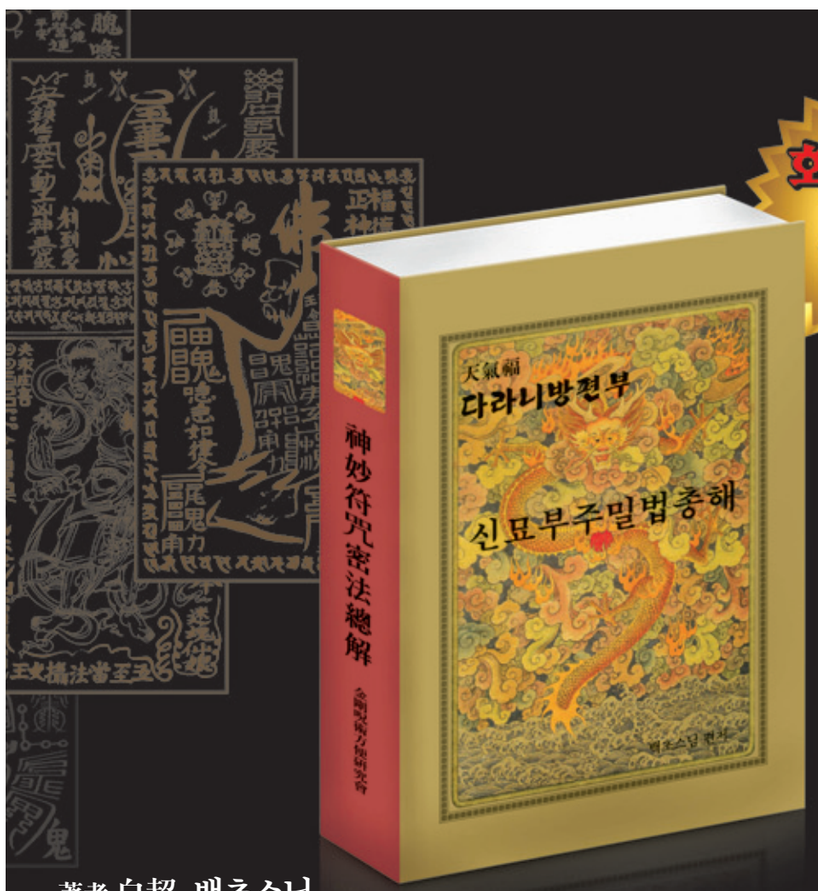
"시대가 흐린 것[劫濁]은 전쟁과 자연재해가 매우 많은 시대임을 의미한다. 우리의 업장을 그대로 지닌 채 속된 세계를 '수평적(일반적인 수행을 수직적인 수행법이라고 할 때 정토 수행법은 지금 있는 자신의 현재의 업 그대로를 가지고도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염불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극락세계로 이동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초월하는 정토수행법이 없다면, 이러한 시대에 중생제도는 실로 불가능할 것이다. 견해가 흐린 것(見濁)은 미혹하고 삿된 견해가 증대해 성해짐을 의미한다. 이들은 우리 몸이 소유하는 실재라는 견해, 죽은 뒤 우리가 소멸하거나 영원히 산다는 견해, 원인과 결과가 없다는 견해, 우리가 자의적으로 집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견해, 우리가 주관적으로 선택한 방법에 의해 제도된다는 견해들이다. 이러한 견해들로 미혹돼 완전히 그 속에 빠져 있으므로, 이것을 견해가 흐린 것이라 말한다. 견해가 흐린 속에서 정토법의 방편으로 마음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제도될 수 없다. 번뇌가 흐린 것[煩惱濁]은 탐욕, 진애, 무지, 오만과 의심에 의한 충동과 혼란이 점차 증대해 분쟁과 혼란이 일어남을 말한다. 이와 같이 번뇌가 치성해 오염된 환경 속에서 우리 보통사람들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임을 확인하는 정토법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제도될 수 없다. 견해가 흐리고 번뇌가 흐린 탓으로 오온(五蘊: 색 · 수 · 상 · 행 · 식으로 물질계와 정신계의 양면에 걸쳐 생멸 · 변화하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다섯 요소를 말한다)이 조잡하고 추하게 섞여 임시로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생긴다. 따라서 중생이 흐리다[衆生濁]는 말이 생긴다. 중생의 모습과 마음은 추하다. 고로 흐리다고 말한다. 인간이 처한 상황이 흐리므로 속된 세계를 싫어하여 멀리하고 기쁘게 정토를 찾는 수행을 하지 않는 한 제도는 불가능하다. 수명이 흐린 것[命濁]은 우리가 지은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가 모두 용렬하여 수명이 짧아져 100년에 이르지도 못한다. 이래서 수명이 흐리다고 말한다. 수명이 흐리므로 정토 수행이 아니고는 제도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서원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 시대가 흐린 것이 청정한 것들의 모임으로 변하고, 견해가 흐린 것이 무한한 빛으로 변하고, 번뇌가 흐린 것이 영원히 고요한 빛으로 변하고, 중생이 흐린 것이 정토의 연꽃에 태어나는 화신으로 변하고, 수명이 흐린 것이 무한한 수명으로 변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토 수행을 통해서만 우리가 처해 있는 오탁악세의 사바세계를 벗어나 영원한 자유와 안락과 평안이 보장된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우익 대사의 말처럼 '정토 수행 말고 우리를 오탁악세에서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불타는 집 안에서 공허한 논쟁의 혼란 속에 길을 잃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겨야겠다.

선학 스님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소장 〈불설아미타경〉 제24도 오탁세계사바국토장엄(五濁世界娑婆國土莊嚴). 덕주사판 1572년간행, 반곽(半郭) 28.2×21.0㎝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 • 중국 • 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남을 죽이면 내가 죽는다는 걸 왜 판단 못합니까!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못한 것만 내 탓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했든지 못했든지 내 탓으로 돌려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둥글게 너그럽게 말해 줄 수도 있고 너그럽게 행동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빡빡 우기고, 한 치라도 질세라 하곤 그냥 대립이 된다면 이건 대립이 된 그 끈에 묶여서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이 다 알아요.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참고, 모든 것을 그렇게 너그럽게 돌리는 그러한 사람은 하늘에서 다 안다고요. 근데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소용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천지가 다 알고 있는데, 하다못해 꽃 한 송이도 알고, 하다못해 풀 한 포기도 알고 있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는 예전에 배나무들끼리 사랑하는 걸 봤어요. 배나무가 저 10리 밖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그렇게 사랑을 하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디다. 그전에 다니면서 어쩌다 쳐다보니까 배나무에 배꽃이 안 피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어, 너도 배나무로 생겼는데 왜 꽃이 안 피니?" 그러니깐 배나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이러지 않습니까? 하하하…. 그래서 바로 시집 장가를 보냈죠. 그랬더니 아유, 그 다음 해에는 그냥 이런 게 열렸어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개구리를 하나 봐도 나는 유심히, 그냥 아무렇게나 보지 않았습니다. 곤충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살림살이와 뭐가 다릅니까. 자식을 위해서 잔등이에다 업고 다니는 거를 보더라도 그렇고, 누가 잡아먹는 거를 번연히 쳐다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응응" 하고 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몸뚱이를 누가 잡아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만약에 차 사고가 났다거나 만약에 앓다 죽었다거나 그러면 끙끙 앓고 그냥 울죠?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사람은 정신을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또 짐승들은 몸과 몸으로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려면, 앞으로 살아나가려면 정신계를 추구하고 또 넓히고 지혜롭게 넘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가는 대로 절실해질 겁니다. 20년 후를 한번 내다봐 보십시오. 20년 후를 갖다가 끌어다가 요 눈 앞에 놓고 어떤가 한번 보세요. 과거를 갖다가 끌어다가 또 요 눈 앞에 놓고 봐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어떤 광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살고 있나를요. 그렇게 달라졌어요, 모두가. 우리 하나하나 살아나가는 게 모두 달라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모두 집을 짓고 또 발전을 시키고 연구하고, 물질과학이라고 해서 연구하고 모두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심성과학이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진실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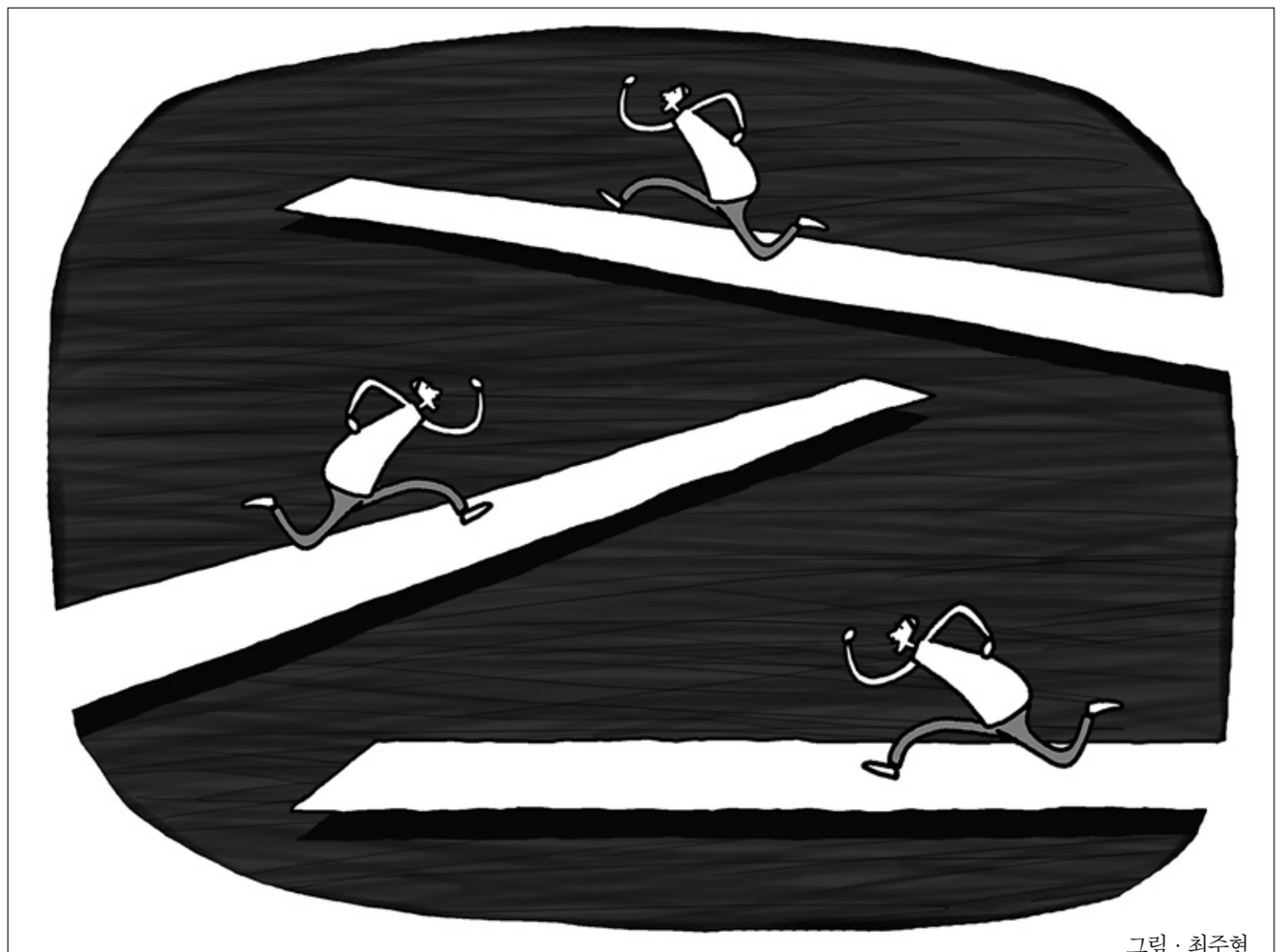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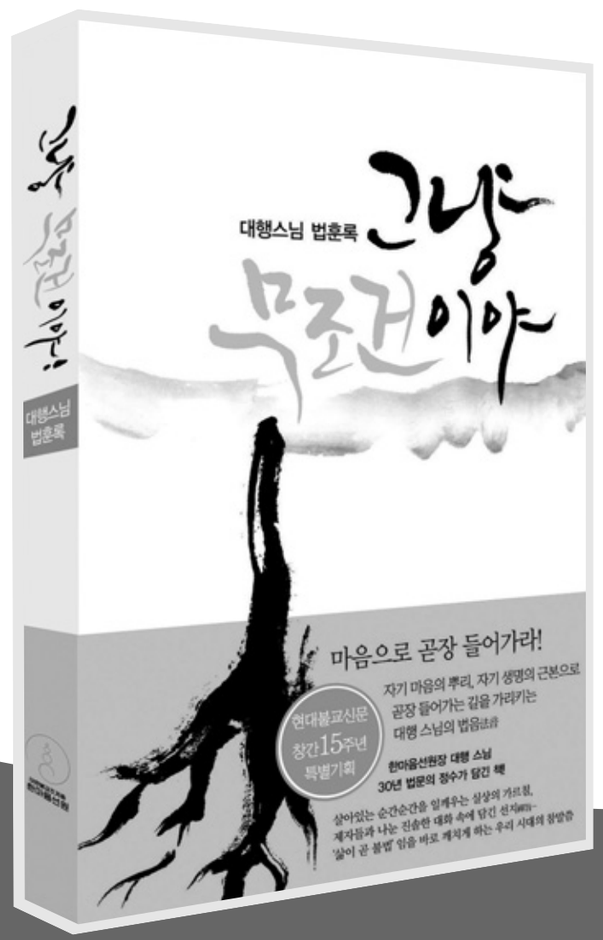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가 마음공부를 게을리 한다면, 지금 세계에서 돌아가는 것도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 국내에서 돌아가는 상태를 잘 보시죠?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활해 버리고 이래요. 그러니 마음이 연결이 될 사이가 없어요. 무의 세계의 정신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사이가 없이 뛰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확 저질러 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한번 확 해 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말해 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다못해 밥을 지어도, 코드를 꽂아 놔서 끓었다 하더라도 뜸을 들여야 하는데 뜸들일 새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일이 저질러지겠습니까. 많은 일이 저질러지죠.

그래도 예전에 조그마할 때 일본 사람들 사는 걸 보면,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한테 해 끼치려고 안 해요. 남한테 해 끼치려고 안 하고 남한테 기대려고 안 하고 남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안 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같이 도움을 준단 말입니다. 마음이라도 조금 착하게 했다, 뭐 일을 해 줬다 이러면 꼭 답례가 있죠. 하다못해 고사를 지내고 떡 한 덩어리 갖다 줘도 거기다가, 접시에다가 그만큼 대가가 되는 물건을 꼭 담아서 보내요. 그때만 해도 '야, 지독하구나.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이 그랬더라면 그렇게 고생들을 안 당할 것인데, 우리 정신이 그랬다면 일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살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 그러한 정신은 높이 사야 되지 않나 하고요. 우리가 나쁜 것은 굴려서 버리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아량과 지혜, 넓은 마음을 우리가 아니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 내 속마음에서는 '아휴,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데, 아주 아주 안 되는데….' 하고 자꾸 그렇게 들어가지마는, 내 이 속마음이 부모의 심정일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기를 때 조그마한 것이 뭐 구덩이인지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똥인지 뭐 더러운 건지도 모르고 아장아장 걸어갈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떨어진다, 떨어진다, 글로 가지 마라." 하겠죠. 그러나 그 어린애는 부모의 심정은 아랑곳없어요. 자기 뛰어나가는 것만 좋아서 막 허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잘했든 못했든 모두 내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 25면에서 계속

덕거리고 뛰어가죠. 어쩌면 그렇게 그거와 똑같아요.

내가 건방진 것 같지만요, 허허, 내 이 모습만 보지 마세요. 때로는 세 살을 먹었지만 때로는 여든 살도 먹었고 때로는 백 살도 먹었고 때로는 삼천 살도 먹었고 때로는 삼만, 아니 수억 광년을 살아온 늙은이와 같기도 하고, 이렇게 화해서 변해서 움죽거리고 있어요. 이 몸을 동상같이 놔두고요. 동상 있죠? 동상! 허허허, 웃는 동상, 말하는 동상, 움죽거리고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동상으로 놔두고요. 즉, 그냥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그런 동상 속에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 뜻을 생각한다면 저 부처님은 저렇게 움죽거릴 수 없는 부처님이지마는 저 부처님 속의 그 뜻은 생사윤회에 걸림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삼천대천세계의 어버이로서, 곤충에 이르기까지 한생각에 천백억화신을 나투시면서 그냥 내놔서 일을 하게 만들고 그러죠. 때로는 하나가 되고 때로는 열 개가 되고 때로는 수만 개가 되고 때로는 한 개도 없고,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하려니까 좀 저거 하나요? 하하하…. 아, 지금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말로 해야죠. 안 그래요?

또 제가 한마디 할 것은, 예전에 구 회장이 처음에 여기 지원을 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구 회장님이 지원을 내고자 생각을 하지 않고 시작을 안 했더라면 오늘날의 이 지원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써 항상 구 회장님한테 감사함을 잊지 마시고 한마음으로써 한뜻으로써 항상 같이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 회장님과 회장단 여러분도 구 회장님이 해 놓으신 그 주춧돌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하신다면 그 마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다 그분이 그분이요 그 분이 그분이라.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광대한 법이라. 이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솥 안의 팥죽이 딴 데서 들어오기를 합니까, 딴 데로 나가기를 합니까. 솥 안의 팥죽 방울은 항상 솥 안에 있지, 솥 안에서 생긴 거지 딴 데서 생긴 게 아닙니다. 하하하…. 그 솥 안에서 팥죽 방울이 생긴 거죠? 그와 같이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서 언제나 서로 아끼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마음공부를 해야 진짜로 사랑할 줄 알게끔 되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시죠. 우리가 공부하는 데 몰라서만 묻는 게 아니라 대중을 위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자비니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는 것도 한편으로 봐서는 참 좋기도 하고요. 하하하…. 한편으로 봐서는 질문 없는 게 섭섭하기도 하고요. 이 양단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상황에 따라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군더더기 붙이지 말고, 내가 이걸 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고, 또 아예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한다면 안 하는 거고 '아이, 이거 뭐 물어볼 게 뭐 있나. 물어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냥 그렇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차원에 따라서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오면서도 가고 옴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무리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함이 없이 했으니까요.

똥을 누고 나왔어도 눈다는 생각을 하고 눈 게 아니기 때문에 똥 눈 사이 없이 똥을 눴다 이렇게 되죠. 모두 똥 누는 거는 그렇게 걸리지 않고 누는데, 하여튼 뭐 하나 샀다 하면 이놈의 거를 꼭 쥐고선 안 놓는 성질이 있어요. 걸레 싹싹 빨아서 꼭 짜 가지곤 세숫대야에 탁 던져 버리듯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고는 딱 던져 버렸다가 다시 훔칠 데 있으면 또다시 갖다가 훔치고 또 그냥 빨아서 던져 버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으련만, 아마 금덩어리를 그렇게 던져 버리라면 안 던져 버릴 겁니다. 근데 금덩어리도 장롱 안에다 꼭꼭 숨겨 놓은 건 잊어버리기가 쉬워도 아무렇게나 던져 놓은 건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게 묘리에요. 하하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착이 떨어지고 원한이 떨어지고 원망함이 떨어지고 증오하는 게 떨어지고 미워하는 게 떨어지고, 모두 서로 불쌍해하고 서로 친근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산다면 돈도 자꾸 들어옵니다. '아이고, 요놈의 집에 들어가면 내가 고생이 막대할 거니까 안 들어간다. 요리 찢고 조리 찢으니까.' 그런데 화목한 집은 자꾸 들어가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돈 쓰는 씀씀이가 빛이 나니까요. 그러니 궁하게 사시는 거는 마음이 궁하기 때문에 궁하게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업이 많고 죄가 많아서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어렵다는 이런 핑계는 대지 마세요. 그건 모두가 핑계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있고 업이 많고 뭐 이런 거는 모든 게 핑계예요. 어떤 분은 요리로 갈 거를 일부러 바득바득 우기고 저리로 가다가 빠져요. 참 그거 성질 하나 이상해요. 하하하…. 그거 참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왜 그럴까 하다가도 하늘을 쳐다보고 웃게 돼요. 참 이상스럽기도 하다. 아이, 개미도 먹을 거를 물고 자기 구덩이로 곧바로 찾아가질 못하고 빙글빙글 돌다가도 꼭 구덩이를 찾아가요, 자기 굴을. 근데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쁜 것은 굴려서 버리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아량과 지혜가 있어야

네? 갔으면 올 줄을 알아야 할 텐데 가 가지고선 그냥, 그냥 새요. 그래 가지곤 빠져요. 그 참 이상하지요.

그러니 어떤 땐 개미 살림살이 하는 거보다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가난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하늘이 무너지고 내일 밥을 굶고 이런다 하더라도 '흥, 네놈이 다 이렇게 해 놓는 거니까 네놈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놔 버리세요. 패기도 없어요? 화도 안 나요? '네놈이 이렇게 형성시켜서 네놈이 이렇게 해 놨으니까 네놈이 알아서 해라, 이놈아!' 그러곤 확 그냥 몰아 버리지 아, 그놈의 거 그냥, 화도 안 나요? 그렇게 그냥 고생들을 하고 그렇게 살게끔 해 놓는 그놈한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점안식과 여러분을 만나 본 이 한 자리가 이렇게 귀중하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우리는 서로서로가 사랑하고 서로서로가 사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림살이도 이루어 보고, 우리 몸뚱이도 건강하게 이루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돌아다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남의 걸로 생각을 하고 일을 해요. 모두가 하나하나 공해서 돌아가는 이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같이 산다는 것을, 더불어 산다는 것을 알아야 일 하나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할 수 있고, 일 하나를 하더라도 모두 자비로 진실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일은 일대로 터지고 벌어지고 끊어지고, 하하하, 그냥 쓰러지고 죽고 죽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나는요, 사실은 요런 거 하나를 이렇게 갖다 놓아도 여기가 질퍽하면 꼭 닦고선 놔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남의 거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야만이 바로 그가 사는 바람에 내가 살죠. 봐요! 자기도 죽이고 그이도 죽이고 이래요. 모두가 그렇게 하고 살아요. 남을 죽이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판단을 못해요. 미국에 그전에 가 봤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나라 사람이 와서 비자를 내지 못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돈을 무이자로 줘 가지고는 뭐라도 하게 만들고 비자를 될 수 있으면 내주게끔 하고 똘똘 뭉쳐서 돌아가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제가끔들 갖다 고해바치고요, 제가끔들 아무개가 비자도 없이 들어와서 저렇게 그냥 산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찌르고 그래 가지곤 못 살게 만들고 내쫓기게 만들고 이럽디다. 그러니까 뭐가 좋겠어요, 그게. 내가 보기에도 상당히 안됐고 참 기가 막혔어요.

그거를 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 마음마음 가짐가짐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데까지 사랑한다면 우리 몸속에 있는 생명체들도 같이 호응을 해 주면서 너 나가 없이 서로 아껴 줍니다. 그러므로써 튼튼하게 금강좌에 모두 앉을 수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생각을 내 가지고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마시고 생각을 자꾸 거기다가 그냥 '이놈아, 너 알아서 해라.' 하고 탁 팽개쳐 놓으면서, 이렇게 바꿔 가면서 하세요. 우리가 그래야만이 자유가 있고 그래야만이 자비가 있고 그래야만이 너그러움이 있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서로 도와 가면서 살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위 법문은 1994년 12월 11일 국내지원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522-845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불자 세상보기

결코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 되는 것



이강렬
극작가

지금 연평도는 귀환한 주민들이 조금씩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급히 손볼 것들만 대충보고 황망히 뭍으로 떠난다고 한다. 그나마 남은 주민들은 밤낮 집안에 틀어박혀 있기에 평화롭던 어촌은 이제 영락없는 유령촌이 됐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일시 통제됐던 연평도행 뱃길이 열렸다고 한다. 인천과 연평도를 오가는 뱃길로 이틀 만에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섬으로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북한군 포격 이후 중단됐던 연평도 어장 내 조업도 보름 만에 재개됐다. 악몽의 연평도 포격 이후 보름 만이다. 물론 어선 대부분이 인천항에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생업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첫 출어가 이뤄진 만큼 보상 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될 경우 연평어장 조업은 조만간 정상화될 전망이다.

불시의 포격으로 연평도의 외관은 한순간에 붕괴됐다. 이제는 인기척 없는 적막감이 감도는 마을로 변했다. 친숙한 세간붙이나 생계를 이어가게 했던 꽃게 그물, 그리고 정든 마을에 아로새겨진 겹겹의 추억들이 눈을 감으면 떠오를 것이다. 슬픔에 잠겨있는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 주민들이 안심하고 귀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목숨을 담보로 거주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안심하고 귀향할 수 있는 안전 확보와 긴급 생계를 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찜질방에 남았으며 더러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헤매고 있다.

당장 먹을 것, 입을 것도 없이 맨발로 피난 나와 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리고 있는 선량한 연평도 주민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실로 참담한 슬픔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늦게나마 난항을 겪어 온 연평도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 문제가 일단락 됐다고 한다.

인천시는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 회의를 갖고 주민들이 임시 거주지 이전의 선결 과제로 요구해 온 생활안정대책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연평도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민 생활안정 및 임시거주 지원에는 인천 등지로 대피한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한 주거 시설로 이동하는데 따른 위로금이 포함되어 있다.

주민대책위는 이 같은 합의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임시 거주지 현장방문과 최종 결정을 거쳐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입주를 시작할 방침이다. 8일, 불행 중 다행으로 김포의 미입주 아파트가 피해주민의 임시거처로 결정됐다.

옹진군 관내 서해5도서 주민들은 그간 수차례에 걸친 해전과 3월 천안함 폭침사건 등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겪었지만 우리 군(軍)의 방어력을 굳게 믿고 긴장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한마디로 국민에게 실망과 불안감을 안겨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삶의 터전을 곧장 고쳐주지 않는지 의문을 갖게 했다. 아직도 다수 국민들은 정부와 군이 북의 도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수습되고 있어 한가닥 위안을 갖는다. 의회를 통과한 '서해 5도 특별법'에는 자녀 대학특례입학을 포함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담겨 있다. 이처럼 앞으로는 지자체 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

국가 안보를 위협한 이번 사태는 대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매뉴얼이나 규정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일련의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 점검해서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시스템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연평도 주민들이 잃어버린 무형의 자산들과 마음에 남겨진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함께 극복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사부대중 칼럼

고현정, 차인표가 1등 배우인 이유



마가 스님
숲명상학교 교장

'대물'이라는 드라마가 최고 인기라기에 애써서 한번 봤습니다. 권상우, 고현정, 차인표 등 쟁쟁한 배우들이 혼신의 연기를 하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어느새 드라마에 푹 빠져 버렸답니다. 어쩜 그렇게 자기가 맡은 배역을 잘해 내는지 "역시 1등 배우답다"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배우가 열심히 하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게을리하면 시청자들이 외면한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시청률이 높아지면 결국 배우에겐 수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시청률이 떨어지면 반대의 결과가 납니다. 이런 평범한 진리는 3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에 나는 올 한해를 주인공으로 살았나? 엑스트라로 살았나?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신·구·의 3업을 맑히는 것이 수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향해 살고 있습니다. 불행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직업도 갖고, 가정도 꾸리고, 취미 활동도 하고, 종교도 갖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행복해지는 방법을 적어봅니다. 매순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이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의 말이 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생각이 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행동과 말과 생각과 행복과의 관계를 항시 깨어서 봐야합니다. 지금의 신·구·의가 주인공인지 엑스트라인지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얻고자 함에도 불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행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보면 항시 행복과는 먼 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꼭 불행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행동, 말, 생각을 하고 삽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야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자기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보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지 못하면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예에서 벗어나 주인이 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마음의 노예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고, 마음의 주인은 일어나는 마음을 잘 살피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어느 곳 어느 때라도 맡겨진 그 일을 멋지게 해내는 사람이 진정 주인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묻는 이들에게 "네 과거를 알고 싶다면 오늘 네가 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네 미래가 궁금하면 오늘 네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내게 닥쳐오는 일들은 과거에 뿌린 씨앗이 열매되어 오는 것이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뿌리는 신·구·의 3업은 미래의 씨앗이란 말씀이지요.

지금 이 순간 "괜찮아!"라는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의 미래는 괜찮습니다. 지금 이순간 "안돼!"라는 씨앗을 뿌리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옵니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지금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고 지금 찡그리면 찡그릴 일이 생긴답니다.

행복한 당신, 행복한 시간을 위해 자비명상을 추천합니다. 자비명상은 나를 긍정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싶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먼저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평소에 얼마만큼 위로하고 지지해주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자책하거나 속상해합니다. 그러면서 열등감과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점점 더 자신은 볼품없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반대로 자신의 단점도 수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도 위로를 해 주면 점점 더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가진 장점을 찾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당신 스스로를 자비로 감싸 안으시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인생에서 주인공입니까? 노예입니까?

사 설

조계종의 대정부 자주화를 지지한다

조계종이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대정부·대한나라당 투쟁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민족문화수호위원회를 구성해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날치기 통과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이유가 충분하다. 개신교의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요구를 들어주었으며, 야당과의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템플스테이를 포교의 수단으로 오해하고 예산 삭감을 주장해 온 개신교 일각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어이없는 일이다. 잘 알다시피 템플스테이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외국인 숙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요청해 시작된 사업이다. 이후 내·외국인이 민족문화를 향유하는 대표적인 문화아이콘으로 발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전국 사찰 출입 거부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각종 절차와 협의를 무시하여 진행하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을 향한 총무원 명의의 성명서에서 이 대통령을 '장로 대통령'으로 지칭하고, '날치기 통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강경한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제 우리 종단은 전통문화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가진 이명박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고, 수행과 신도교육, 포교 등 종교 본연의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바른 인식이다. 자주적이고 당당한 조계종의 본래면목 되찾기를 지지한다.

조계종은 생수판매업체 되려는가

조계종은 7일 '산은 산이요 물은 감(甘)이로다'는 상표를 개발해 생수업체인 하이트진로그룹의 '석수&퓨리스'와 함께 생수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생수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로열티 수익은 승가복지사업에 쓴다고 한다.

종단의 재정이 어려워 수익사업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씁쓸하다. 몇 사찰이 사업자 등록을 해 특산품을 판매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조계종단 차원의 본격적인 수익사업은 처음이다.

우리는 불교 종단의 수익사업은 몇 가지 원칙에 합당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해당 사업이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가, 해당 사업이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에 반하지는 않는가, 기존 동종 사업자와의 경쟁관계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익사업 운영과정은 불교의 가르침에 시종 부합하는가, 발생된 수익은 어떻게 누구에게 회향하는가 등등, 이런 질문들에 충분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조계종 수익사업의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당장, 생수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발생, 플라스틱 용기의 반환경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해명도 필요하다. 또 조계종을 시장에서는 경쟁자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이웃종교에서는 음란물 제작, 무기제조, 출산 제한, 담배 제조, 도박, 환경오염 등에 관련된 회사를 배제하고 윤리적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 지수를 개발해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할만한 사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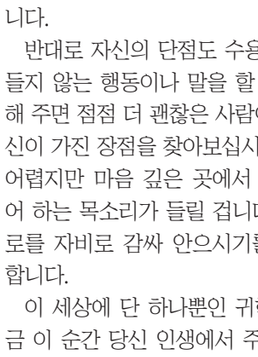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선(禪)이란 무엇인가?
카르마의 소멸
● 맑은 기가 나오는 책 ●



이보다 더 진솔한 禪의 체험은 없다.
불교의 종지는 無我요, 보살의 종착도 無我다.
禪은 목적이 없다. 목적이 없는 것이 목표다.

깨달음을 얻을려면
분별심을 버려야한다.
악(惡)도 버리고 선(善)도 버려라.

사람들이 선(善)을 취하고 악(惡)을 버리고
공(空)을 관하고 정(定)에 들어가면
그것들이 올바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인위(人爲)의 조작에 속하는 것으로
무위(無爲)법과는 거리가 멀다

- 마조선사 -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312쪽 / 정가 15,000원

명당 찾기의 참된 길잡이
한국의 재혈풍수 [상권·하권]



실존의 명당, 재혈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진다!
● 재혈이란, 서기어린 땅의 생기가 감돌아 서리는 명당터를 정확히 짚어서 찾아내는 일이다.
많은 사람은 '한국의 재혈풍수'를 왜 주목하는가! 처음 시도된 한 분야의 전문적 질문에 응하는 답은?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상권 高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76쪽 / 정가 30,000원
하권 高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쪽 / 정가 30,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핫키퍼 발열내의

국제공인인증기관 한국의료시험연구원(KATRI)시험검사필

난로보다 훨씬 낫다 온몸이 후끈후끈~

입기만해도 뜨끈뜨끈 3.3℃~5.6℃까지 상승시켜주는 기능성 발열내의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운데 겨울은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골프나 등산, 낚시, 조깅 등의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추위에 민감하다. 이런 계절에는 사람들의 옷은 두꺼워지고 여러 난방 기구들을 준비하지만 출, 퇴근 시간에 뼛속까지 파고드는 찬바람은 좀처럼 피할 수 없다.

겨울철에 내의를 입게되면 체감온도가 1℃~ 2℃까지 올라가지만 움직임이 둔하고, 뚱뚱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잘입지 않으려고 한다.

첨단기술로 특허 받은 발열내의

핫키퍼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자체 기능성 발명특허(특허번호: 10-0863991)원단을 소재로 만들어져 입고 있기만 해도 체감온도가 3.3℃~ 5.6℃까지 상승하며 뛰어난 신축성과 초경량의 무게로 신체의 유연성까지 확보해 주는 발열내의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주)MFT에서 출시한 '핫키퍼 3.3'은 순수한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9년간 연구개발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기적같은 발열섬유로 이슈화된 상품이다.

'핫키퍼3.3'은 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발열 기능성 조형물로 인체에 무해한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이 피부와 접촉하여 혈류량을 높이고 미세한 기모가 피부와 마찰하면서 체온을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온열을 지속적으로 보온해 주기까지 한다. 또한 내구성이 우수해 세탁에도 발열 기능성이 오래 유지된다.

입은듯 안입은듯 얇고 가볍고 뛰어난 신축성

또한 스포츠 의류의 경우 운동시 발생하는 땀을 즉시 건조, 배출시켜 신체의 온도를 조절해 주어야 하는데 '핫키퍼 3.3'은 통기성이 좋고 땀흡수력이 뛰어나며 자체 항균기능이 있어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안심할 수 있다. 콜라겐과 포도씨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핫키퍼3.3'은 50여가지의 피부테스트를 거쳐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아도 아무런 자극이 없다.

국내 최초 발열 기능성 조형물 부분특허와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의 시험성적서를 통과하여 검증된 '핫키퍼 3.3'은 입기만 해도 난로를 품고 있는 것처럼 체감온도를 높여주고 99%이상의 자외선 차단효과와 정전기방지 효과, 원적외선 효과까지 있어 겨울철 야외활동에 큰 도움이 되며 디자인이 뛰어난 본래 기능인 내복으로 입어도 좋고 멋스러운 부츠에 레깅스로 센스있게 연출할 수도 있다.

일상생활은 물론 움직임이 많은 스포츠나 아웃도어 활동 시에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 겨울철 야외활동을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매일 출, 퇴근하는 직장인, 건설현장, 노점상, 택배기사 등 추위와 싸우며 일하는 사람들이나 스키, 골프, 등산 등 겨울철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방한복과 맞먹는 체감온도 상승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발열내의 '핫키퍼 3.3'은 상의와 하의세트를 **파격가 69,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2세트 구입시 130,000원**에 추가할인된다.

특허번호 : 10-0863991
국내 최초 발열 기능성 조형물 부분 특허

• 색상 : 검정색, 진회색(S, M, L, X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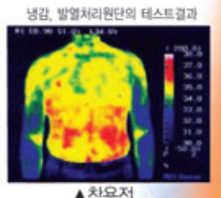
■ 구입문의 : 080-840-7000
■ 농협 : 317-0002-3339-31 (주)오투넷

현장근무, 군인, 경비, 시장상인
부모님 효도선물
등산, 낚시, 골프, 야외활동에 안성맞춤
• 기업납품 및 단체주문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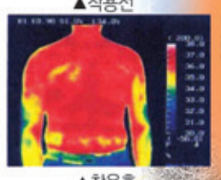


상·하의 세트
69,800원
〈택배비 무료〉

냉감, 발열처리원단의 테스트결과



▲착용전



▲착용후

FUJIKA
추워지면 생각나는 브랜드!! 40년 전통 그명성 그대로 난로 전문메이커

2011년 최신형

인터넷주문 www.nanronara.com

후지카온풍겸용명품전기히터

고유가시대! 기름대비 60~70% 연료비절감!



2011년 FUJIKA STOVE 正品 MADE IN KOREA

초강력 온풍기능의 강력난방, 촘촘한 2중 안전망



360°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 强者!

FUJIKA S-3600(온풍) 15~20평형 59.4㎡
▶정격접압 : AC220V/60Hz ▶중량 : 12kg
▶소비전력 : 3,300W ▶사이즈 : 465×465×690mm
(업소 및 사무실용)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3.1㎾×8=1,683원
특별할인가 188,000원

따뜻한 겨울, 후지카와 함께 하세요~

올 겨울은 엄청난 추위가 몰려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지카 히터가 그 해결책입니다!
절전형 설계로 전기세 절감은 물론 상황에 맞는 온도설정 기능으로 평소에는 약하게, 추울때는 강하게 온도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거부! 후지카는 다릅니다!"

- 2단계/3단계 온도설정으로 전기세 절약형 전기히터
- 동급최강의 성능(우수한 발열력과 열효율을 자랑)
-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3중 안전망 /화재 안전장치 장착
- 무연,무취,저소음의 웰빙 청정난방 기능
- 탄소섬유 가열시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 100% 국내생산 제품으로 항시 A/S 가능

간단한 다이얼 조작으로 손쉽게 강/약조절 가능

FUJIKA A-1800 5~7평형 19.8㎡
▶정격접압 : AC220V/60Hz
▶소비전력 : 1,800W ▶사이즈 : 365×365×710mm
(업소 및 가정용) ▶방식 : 세라믹코일방식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1.8㎾×8=978원
특별할인가 98,000원

FUJIKA AF-3000 12~15평형 42.9㎡
▶정격접압 : AC220V/60Hz
▶소비전력 : 3,000W ▶사이즈 : 365×365×710mm
(업소 및 사무실용) ▶방식 : 세라믹코일방식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3.0㎾×8=1,630원
특별할인가 148,000원



FUJIKA SA-1800 5~7평형 29.7㎡
▶정격접압 : AC220V/60Hz
▶소비전력 : 1,800W ▶사이즈 : 365×365×710mm
(업소 및 가정용) ▶방식 : 탄소섬유발열방식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1.8㎾×8=978원
특별할인가 148,000원



• 탄소히터란?
동급전기히터에 비해 2배의 열효율이 발생되며,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 방출량은 기존히터에 비해 약 3배 많은 최첨단 발열체입니다.

고효율 탄소관램프를 사용하여 열전도율을 극대화 했습니다. 기존의 원적외선히터나 할로겐히터에 비해 열효율과 열전달율이 더욱 좋습니다.

후지카 SAF-3000만의 특별한 기능인 온풍시 바람을 불어내주는 송풍구입니다. 히터기능은 기본! 온풍기능으로 후끈하게 사용하세요.

간단한 다이얼버튼으로 손쉽게 온도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온도를 조절해서 사용하세요.

FUJIKA SAF-3000 15~20평형 59.4㎡
▶정격접압 : AC220V/60Hz
▶소비전력 : 3,000W ▶사이즈 : 450×450×750mm
(업소 및 사무실용) ▶방식 : 탄소섬유발열방식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3.0㎾×8=1,630원
특별할인가 198,000원

무소음! 무냄새! 무연료!

용량은 같아도 난방효과는 2배!

삼성화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이런 곳에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사무실, 가정,식당, 교회, 사찰, 골프장, 스키장, 공장, 학교 카센타, 야외시설, 체육관, 유치원, 학원, 병원, 미용실, 약국, 새벽시장, 피부관리실, 포장마차, 지하상가 등 난방이 필요한 곳

※멀티탭을 사용하지 마시고 콘센트에 직접 꽂으세요.

A/S 100%국내생산과, 확실한 A/S보장!
생산부터 검수 판매까지 논스톱 시스템으로 최저가보장!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탄생한 완벽한 제품 후지카 믿고 구입하십시오!!!

주문전화: 080-840-7000
• 전국무료배송 입금계좌 : 농협 317-0002-3339-31 (주)오투넷